

第一輯

우리고장의民俗

(大川市・保寧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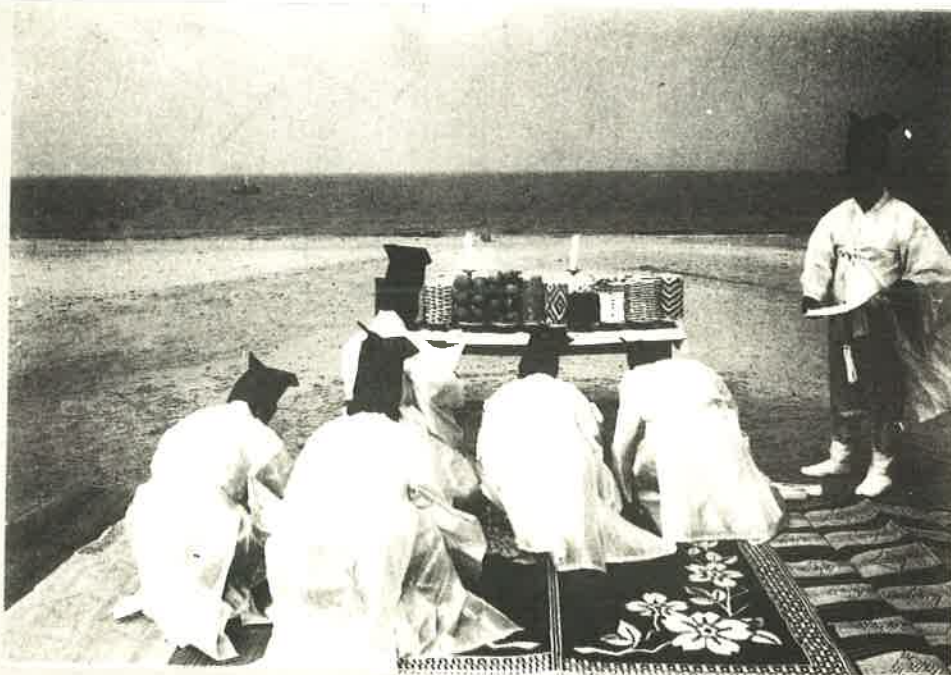


大川文化院

第一輯

우리고장의民俗

(大川市・保寧郡)



大川文化院



대천시민헌장탑



만세보령탑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의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を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發 刊 辭

大川文化院長 尹 源 錫

民俗은 土俗에서 緣由되었고 土俗의 民俗은 곧 俗神 즉 信仰으로 昇華한것도 事實이다. 民俗은 하나의 民族의 土着的 藝術이라 할 수 있고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先祖들은 部族生活에서부터 믿어 왔던 民俗들이 俗神으로 뿌리 박혀 전해오고 있다.

祖上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또는 正月 초하루부터 선달 그믐날까지 경험한 많은 禁忌사항이 信仰처럼 偶像化되어 土着되었던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俗神이란 한낱 迷信에 불과하고 事理에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으나 先祖들은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하나의 敎訓的 格言으로 간직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었었다. 그리고 많은 儀禮와 信仰을 지켜왔다.

우리 祖上들은 이 民俗의 俗神을 최소한 三國時代 이전부터 幸과 不幸으로 生과 死에 비유하면서 믿어왔고 儀禮는 儒敎思想으로 한 時代를 支配하면서 歷史와 함께 民俗文化로 傳承되어 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風俗은 現代文明의 뒷전으로 밀려나 우리들의 生活속에서 褪色되어 가고 있다.

지난날의 民俗! 이를 옛것 낡은 것이라 하며 버리고 잊기에는 너무나 所重하고 아깝다 生覺되어 우리들의 記憶속에서 더 잊혀지기 전에 文獻과 口傳으로 傳해 오는 이 地方의 民俗(信仰)의 一片一片을 모아서 엮어보았다.

이 冊子에 실은 民俗資料 이외에도 發掘되지 못한것도 많으리라 볼때 미흡하다고 본다.

이 모두가 歲月속에 忘却되는 가하면 世風에 밀려 再演을 하지 않으므로 不知不識間에 再現이 不可能한 것이 殆半이다. 그러나 이 刊行物에 目錄된 것만이라도 可及的 俗神이다 迷信이다 라고 無關心과 度外視하지 말고 다시 年中月中 한번쯤은 再演出하면서 傳承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勿論 이것들을 되새기고 살려나가려고 한다면 隨伴되는 여러가지 여건이 걸림돌이 될것이다. 더욱이 나름대로 그地域에서 그뿌리를 알고 그時代 그民俗 行事에 主管하고 참여했던 古老나 技能 保有者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이 마당에 무엇인가 무슨 方法으로든 서둘러 再現토록 有關기관 또는 團體에서 再生에 努力을 하여 지난날의 歷史와 함께 後世에 傳承 保存하여야 할것이다. 이에 本人은 文化暢達에 앞장선다는 立場에서 안타가이 痛切痛感 할다름이다.



축 사

한 지역의 기층 및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중심으로한 민중문화의 발상지인 마을을 단위로한 민속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의미있을 것 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 사회에 살다보면 전통 문화를 외면하기 일쑤입니다만, 이번에 대천 문화원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현지 조사를 통해 발간한 민속지야말로, 선조의 꿈이 깃들어 있는 고향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며, 내 이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이러한 뜻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말을 듣고, 또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나, 같은 마을의 민속이라도 구술하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것이며, 누락이나 오기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로서 하나된 긍지를 느끼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시면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애써주신 윤원석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향토조사 연구 조사 위원님들의 노고와 도움말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3. 2.

大川市長 吳 濟 世

머 리 말

民俗하면 그 地方의 土俗이라 할 수 있고 土俗하면 그 行事나 行爲에 따라서는 土俗神 즉 信仰이라 할 것이다.

발간사에서도 強調된 바와 같이 民俗은 民族의 藝術이라 할 수 있고 民族의 正直한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民族의 永遠한 祝祭인 것이다. 土俗神을 위하고 年中月中, 季節에 따라 住民 모두가 참여하여 行하는 行事가 大部分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옛 八道江山에 地方마다 大同小異하면서도 나름대로 다른 特色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바 뜻의 해석여하에 달리 볼수도 있는 것이다. 忠淸道다 경상도 전라도다 강원도 평안도다 함경도가 모두 색다른 것으로 수백년동안 傳統的으로 繼承傳來 해 오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明滅하여 가면서 이어가는 것도 있고 아주 자취도 없이 忘却되고 또는 完全히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 이에 그 原因은 옛 部族國家 시절 單位的 集團이 分散되거나 人間의 生存興亡에 따라 自然現象으로 技能保有者가 없어져 버렸거나 世態에 變遷課程에서 改造되었거나 變質되는 바람에 요즘사람들이 興味가 現代的 感覺에 밀려져서 觀心도 없고 再現을 試圖치 않는 關係가 큰 原因이라 하겠다. 더욱이 우리 忠淸地方 中에서도 우리地方은 人類의 定着이 오히려 탄 地方보다도 늦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部落을 形成한 歷史가 짧은 理由가 原因으로 볼 수 있기에 集團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民俗이 적고 있다는 것도 他地方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民俗을 가로채거나 흉내내는 程度인 것들인 것이다. 또 이 地方은 高麗國 時代부터 옛 藍浦邑 時節에 비로서 人類가 定着하기 始作한 것인데 이 到來人 역시 北方人이나 또는 中國大陸系 사람들이 모여들어 貧弱한 寒村을 이루었다는 記錄을 볼때 그런대로 제일 먼저 人間이 들어왔다는 곳인데도 이렇다면 우리 고장 大川以北 地方은 더욱이 그 당시에 어떻게 무엇이 獨特한 民俗이 생기고 이어갔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大川 保寧地方은 朝鮮朝 末期에 三郡을 并合하여 大川한내가에 郡廳 所在地를 定하여 오늘에 이른 것인데 여기 무슨 民俗資料를 開發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民俗(信仰) 土俗등이 눈에 약간 보인다는 것도 通俗의인 것 뿐이어서 他에 遜色을免치 못하고 있고 50년 100년전 그後 오늘날은 世相이 옛것을 白眼靚하고 無關心하는 가하면 民俗(土俗風俗信仰(一名 迷信)등은 儀禮에도 두터운 不可分の 連繫性이 있어서 이 모든 形態는 絶對的으로 儒敎에서 우리나라 것이 많고 그 影響이 크다 하겠는데 現世의 實狀은 外來信仰에 밀려 儒敎도 等閑靚하는 時點에 이르러 東邦禮儀之國이라는 韓國사람들이 自己나라 固有 民俗조차 喪失시키고 있으니 寒心하기 그지없다. 言必稱 日本政府가 朝鮮統治 手段으로 迷信이라고 밀어부쳐 文化政策을 抹殺하는 彈壓에 못견디어 土着되었던것도 中斷한 까닭도 理由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한낱 口實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褪色한 辯明에 불과하다.

아무튼 政府에서도 사라져가는 鄉土民俗藝術을 發掘 再現하여 民族文化의 原形을 保存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時點이니 만치 우리 鄉土에서도 現代社會속에 잃어버린 무형의 民俗文化를 되살려 내는데는 수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쏟아져야 하겠다. 여기에 비록 전해 오던 것조차 아직도 찾지 못한 민속의 자료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모습의 원형을 영영 잃어갈 우려가 크므로 기록으로나마 이것을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차 례

■ 우리고장의 전통 민속, 토속 신앙

1) 민속신앙의 개념	9
2) 토속신앙의 개념	11

1. 민 속(신앙)

1) 大川의 守護神(山神堂)祭	13
2) 大川市 宮村洞(궁말) 木神祭	23
3) 大川市 花山洞(꽃고개) 곤현 城隍堂	25
4) 大川 竹亭洞(竹洞) 대라골 山神祭	27
5) 大川 독정이 城隍堂	29
6) 大川 漁港 豐漁祭	30
7) 大川海水浴場 海邊祭(開場式 水神祭)	33
8) 大川洞 新坪(새터)마을 堤防祭	34
9) 大川市 新黑洞 서낭당이 城隍祭	36
10) 大川市 籃谷洞 탑동(塔洞) 城隍堂	38
11) 大川市 內項洞 內松(안소래)	41
12) 大川市 東垆洞 오랏시 새암제(泉祭)	42
13) 大川市 花山洞 오얏골(瓦谷) 山神祭	45
14) 大川市 鳴川洞 울음내(伊川) 山神祭	48
15) 保寧郡 繁川面 外煙島里 전횡(田橫)장군제(將軍祭)	49
16) " 長古島 진대 서낭제	51
17) " " 용왕제	53
18) " 元山島 성황제	54
19) " 靑蘿面 蟻坪 갯밭, 장승 巨木祭	57
20) " 성주면 화장골 수목제	59
21) " 청소면 풍년제	61
22) " 오천항 풍어제	62

2. 토 속(신앙)

1) 1000가지 토속신	63
---------------------	----

■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1) 민속놀이의 개념.....	93
------------------	----

1. 민속놀이

1) 保寧郡 鰲川面 長古島 등바루노리	94
2) 外煙島 풍어당놀이	100
3) 고누놀이	102
4) 고싸움놀이	107
5) 널뛰기 놀이	111
6) 그네뛰기 놀이	114
7) 남대문 놀이	117
8) 답교(다리밟기)놀이	119
9) 백중놀이	121
10) 비석치기 놀이	124
11) 사방치기 놀이	126
12) 씨름 놀이	129
13) 연날리기 놀이	132
14) 윷 놀이	137
15) 자치기 놀이	140
16) 제기차기	143
17) 줄넘기	145
18) 줄다리기	151
19) 공기놀이	153
20) 장치기놀이	155
21) 차전놀이	157
22) 등불싸기	160

■ 우리고장의 세시풍속(歲時風俗)

1. 우리고장 세시풍속의 개념	161
1) 正月의 풍속 : 설날차례, 세배, 설빔, 설음식, 성묘, 복조리, 삼재면하는법, 토 정비결, 윷놀이, 널뛰기, 안택제, 귀밝이술, 부럼깨기, 오곡밥, 더위팔기, 모깃불, 마귀, 연날리기, 입춘, 춘추.....	162
2) 二月의 풍속 : 콩볶기, 머슴날, 춘계문묘석전, 경칩, 춘분	169
3) 三月의 풍속 : 삼진날, 청명절, 한식, 곡우	171
4) 四月의 풍속 : 초파일, 입하, 소만	173
5) 五月의 풍속 : 단오, 망종, 하지, 두레	174
6) 六月의 풍속 : 유두,소서, 대서, 삼복	176
7) 七月의 풍속 : 칠석, 백종날, 호미씻기, 입추, 처서, 벌초.....	177
8) 八月의 풍속 : 추석, 추기문묘석전, 백로, 추분, 강강수월래, 소놀이.....	179
9) 九月의 풍속 : 중량일, 한로, 상강.....	183
10) 十月의 풍속 : 개천절, 시제, 김장, 입동, 소설	184
11) 十一月의 풍속 : 동지, 대설	186
12) 十二月의 풍속 : 소한, 대한, 묵은세배.....	187
13) 윤달(閏月)의 풍속 : 윤달	188

■ 우리고장의 장승, 동제 관련 지명 조서(調書)

1) 장 승	191
2) 마을제당(당산)	193
3) 솟 대	196

■ 우리나라 방언

1. 우리지방과 다른지방의 사투리	201
--------------------------	-----

우리고장의 전통민속 토속신앙

우리고장의 전통민속 토속신앙

1) 민속신앙(民俗信仰)의 개념

① 風水 : 우리民族의 民俗信仰에 있어서 風水說은 지금까지 가장많이 존속해오는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 풍수설은 산줄기와 물 방향을 첫째로 삼아 구분한다. 산에는 반드시 宗山이 있고 이 종산에는 모든 산줄기가 갈라져 나가게 된다. 이 산을 太祖山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태조산은 白頭山으로 이산에서 뻗어나온 가장 큰 山脈을 幹龍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幹龍에서 뻗어나온 산맥을 枝龍이라고 한다. 이 山脈의 龍에는 富貴貧賤과 長短, 老若이 있고 龍이 생긴 모습에 따라 吉龍도 있고 凶龍도 있으며 生龍과 死龍도 있다. 風水說에서는 凶龍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돌산으로서 土質이 섞이지 않아 그 속에서 精氣가 통할 수 없는 石山이 있고, 둘째는 枝龍이 단절되어 정기와 왕래할 수 없는 斷山이 있으며, 셋째는 獨山으로 다른 山脈과 연결이 되지 않아 精氣가 흐르지 않아 단산중에서도 가장 큰 凶山이 되며, 넷째는 山勢가 지나치게 뻗어나가 멈출곳이 없어 정기가 멈추어 보이지 않는 過山이고, 다섯째는 童山으로 草木이 자라지 않아 陰陽이 調和를 이루지 않아서 凶山으로 꼽는다. 風水說에서는 精氣가 모이는 곳이면 吉山이고 정기가 흩어지는 山은 凶山이라 본다. 대체로 보아 吉山은 山勢가 높고 秀麗하며 高低長短의 기복변화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데 비하여 凶山은 그 강세가 단절되고 기복의 변형이 불규칙한 것을 말한다. 風水說에서 두번째의 조건으로 바람을 삼는다. 天地의 氣運은 바람을 타면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여 바람을 타고 오는 精氣는 막아서는 안된다고 다만 모여있는 정기가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藏豐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風水說에서는 穴에 모여있는 정기가 四方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산이나 언덕을 妙라 하는데 이 妙의 임무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四神妙이다. 이 사신묘는 穴(穴)의 사방에서 있는 山을 말하는데 穴이 뒤에 있는 山을 玄武라 하고 穴의 좌측에 있는 山을 靑龍이라 하며 穴의 우측에 있는 山을 白虎라 부르고 앞의 山은 朱雀이라 한다. 四神妙는 각기 그 형상에 따라서 吉凶이 결정되는 것으로 玄武는 안정되고 멈춘 듯한 定止相을 보여야 하며 左靑龍은 길게 뻗고 빙 둘러 쌓인 듯한 형상이어야 하고 左白虎는 범이 웅크리고 앉은 形象이어야 하며 앞山인 朱雀은 山이 낮고 춤추는 듯한 멋이 있어야 吉山에 든다. 風水說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朱雀이나 左靑龍 右白虎보다 뒤에 있는 玄武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로 風水說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이다. 이 물은 땅 표면을 흘러서 땅에 스며 들어 地下水가 되어 地氣를 운반한다고 한다. 左의 靑龍은 陽이고 右의 白虎는 陰으로써 內面을 따라 흐르는 물로 靑龍을 따라 흐르면 陽水가 되고 白虎를 따라 흐르면 陰水가 된다. 또한 양수와 음수가 만나 合流하는 곳을 水口라 하는데 여기에서 음양이 氣가 중화되어 정기를 순화 보장하게 된다.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나는 水口는 산만하다거나 광활하면 그 정기가 모이지 않으므로 明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風水를 보아 墓를 쓰는데 吉山에다가 四神妙가 완벽하고 水口의 調和가 잘된 곳을 골라 묘를 쓰면 明堂자리로 자손이 번창하고 富貴榮華를 누린다는 것이다. 지금도 墓를 쓸때는 지관을 불러다가 묘혈을 정하는데 그것은 지맥에 따라서 그곳에 응결된 생기를 확인하고 그자손에게 미치게될 禍福을 식별하고 복을 받을지언정 화를 입지 않기를 바람에서이다. 지금까지 風水說은 묘자리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때나 부락이 들어스는데도 마찬가지로인데 모든것이 그 사람의 생기를 맞추어 화합이 이루어져야 特히 된다는 것이다.

2) 토속신앙(土俗信仰)개념

우리고장의 민속신앙중에서 자연적인 하늘 땅 물의 어느곳에 든지 神이 존재한다고 믿어 자연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神格化시켜 숭배해 왔다. 이것은 土俗信仰이라 하는데 天地山水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다스리는 神이 있어 그 神을 섬김으로 해서 厄을 물리치고 福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대상으로는 古木이나 怪岩 또는 動植物에까지 신성시 되었는데 그 종류가 매우 多樣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土俗神에는 自然神과 岩石神, 動物神, 植物神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산신제(山神祭)



산을 주
관하는 神
을 山神이
라고 하는
데 그 형체
로 호랑이
나 神仙으
로 나타내
기도 한다.
山神은 守
護 神으로

높은 산이나 이름 높은 名山에 山神이 있고 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서는 해마다 정월보름이나 그밖에 날을 잡아 山神祭를 올려 災厄을 없게 하고, 豐年이 들게 해달라고 하며 또한 虎患이 없기를 빈다. 부락은 대체로 산과 가까이 있으므로 어느 神보다도 自然神中에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神이 되었으며 마을이 吉凶禍福을 빌어 왔던 부락제(部落祭)라 할수 있다. 따라서 山神을 信仰하는 것은 上古時代부터 있었으니 扶餘의 迎鼓와 高句麗의 同盟 그 이전에 馬韓의 千君등 祭天에서부터 三國時代의 百濟에는 日山, 烏山, 浮山등의 三神山이 있었고 新羅에서는 大祀, 中祀, 小祀등 山神信仰이 있으며 高麗때는 三蘇制의 山神信仰과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山神信仰을 그대로 이어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國家的인 山神信仰이 또한 部落單位로 이루어진 山神信仰으로 나타나 部落祭로써 우리地方에도 많은 部落山神祭가 있다.

1. 민 속 (신 앙)

1) 大川の 守護神(山神堂)

오늘은 어제보다 새롭고 내일은 오늘보다 새롭다. 또한 오늘은 어제의 連續이란 것도 萬古不變의 眞理이다.

예로부터 先祖들은 部族生活에서부터 믿어왔던 俗神들이 뿌리박혀 전해오고 있다.

祖上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는 正月 초하루부터 설날 그믐날까지 경험한 많은 禁忌사항이 信仰처럼 우상화되어 土着되었던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俗神이란 한낱 迷信에 불과하고 事理에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으나 先祖들은 오랜 體驗에서 얻어진 하나의 敎訓的 言行으로 간직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었었다. 그리고 많은 儀禮와 信仰을 지켜왔다.

우리 祖上들은 이 俗神을 최소한 三國時代 以前부터 幸과 不幸으로 生과 死에 비유하면서 믿어 왔고 儀禮는 儒敎思想으로 한時代를 支配하면서 歷史와 함께 民俗文化로 傳承되어 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옛 風習은 現代文明의 뒷전으로 밀려나 우리들의 生活속에서 퇴색 되어가고 있다.

옛 土俗의 風習 慣例 등을 復古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民族 特有의 信仰이 있고 只今도 國內到處에는 地方土俗色이 짙은 民俗行事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行事에는 거의가 山神祭 水神祭 거리祭 塔祭 城隍祭 기우祭 독祭 등 많은 種類의 祭享行事가 끼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고장도 例外는 아니다.

1. 연혁(沿革)과 배경(背景)

1894年 甲午 正月부터 오늘날까지 近百年동안 大洞 山神祭를 지내고 있다. 大川 大洞 山神祭堂은 지금의 元洞 山 28番地 鳳凰山 기슭에 建坪 4坪에 시멘트 造 瓦葺이고 正門은 鐵門으로 되어있다.

傳說과 由來를 말하면 옛날 이故場 한내장터는 바다를 막아 造成된 低地帶로서 배(舟)形局이라하여 天災(水災)之變이 일고 疾病으로 人命被害가 많고 凶年이 들고 大小事件의 不祥事가 일어나는等 또 위갈머리 古木나무 부엉이가 부흥부흥하고 울면 그해 豐年이 들고 人命被害도 없고 洞內全體가 平穩하고 山神堂 뒷山에서 여우(狐)가 쿵쿵하고 으먼 郡守(원님)의 身上에 變故가 일어난다는 傳說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낱 傳說로만 傳하여진 것이 아니라 實際事件이 종종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事實을 들어 迷信으로만 넘길 수만은 없기에 土俗神을 믿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事例와 함께 地方住民들과 商務社동무들이 發議主動이 되어 山神堂을 세우고 正月 열나흘밤을 期하여 山神祭를 지내기 始作 오늘에 이른 것이다.

2. 제향(祭享)과 절차(節次)

祭祀의 節次는 大洞稷長이 任員會를 召集하고 그해 生氣福德으로 有司, 祭官을 가려

내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祭物等 一切를 準備케 한다.

祭官의 집에는 용대旗를 門前에 꽂아 세우고 黃土를 놓고 금줄을 달고 不淨한 사람의 出入을 嚴禁하고 3日前부터 전家族이 몸과 마음을 淨潔히 하고 沐浴재계 한다. 그리고 祭物도 不淨이 안타도록 細心注意하며 淨潔히 장만한다.

祭日には 낮 12時경부터 不淨이 없는 洞民과 任員들이 參集하여 祭祀를 걸른다는 뜻으로 農樂을 울리고 市內一周하면서 山神堂으로 올라가 中間地點 山골짜기에 있는 우물에서 諸祭官들이 冷水沐浴을 하고 祭堂에 올라 祭物을 진설하는 데 “메”는 그 장소에서 직접지어 올리고 祭禮에 드러가서 初獻讀祝亞헌 終헌하고

誠金錄에 依하여 이름을 一一히 呼名하면서 그분의 一年身數를 祝願燒紙를 올려준다. 이렇게 끝내고 “쌀죽”¹통과 따로 準備한 祭物을 곁고루 가지고 農樂치면서 大川川邊에 가서 “거리祭”를 지내고 이날의 山神祭는 모두 끝이 난다.

여기에서 이러한 背景을 紹介한다면 大川은 한내장터라 이름하여 자리잡은 이고장은 바다를 막아 造成된 低地帶로서 오히려 바다보다 낮은 바닥인데다가 윗쪽 大川川 上流엔 靑川내(지금 청천저수지)가 있어서 장마철에는 聖住山 烏樓山 등 長山에서 흐르는 急流로 因하여 1년에 몇번씩 물난리로 洞民이 전부 山으로 기어 올라가 피난을 하는 등 몹시 不安한 곳이다. 農事도 水浸으로 폐농하는등 이와 같이 물난리를 겪으며 또 疾病이 만연하여 人命被害도 많았고 座不案席이었다. 그러나 그당시 5日장이 서는 장터는 구장터, 나무장터인데 지금의 철교밑까지 갯물이 들어와서 木船(中船)등 漁船들이 生鮮과 섬 장꾼을 실고 出入하였고 구장터 쇠개(金浦) 船着場에는 全忠丸이라는 기계배가 大川~群山~仁川을 往復하면서 交易을 했고 수많은 島嶼에서는 海產物을 실고 出入港하는 곳이기에 可謂集散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때는 흥청대던 5日場이었다. 京南鐵道가 開通되면서 구장터에서 새장터로 장이 옮겨지면서 새장터가 發展하여 오늘의 大川市가 된 것이다.

이곳 大川市街 부락뒷산은 멀리 오서산에서 連峯하여 내려온 표고 약 200m 主峰이 鳳凰山이고 남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우뚝 머문 곳이 鳳山이다.

그 양옆으로 위갈머리 동네와 아래갈머리 샛터 동네가 자연 양옆으로 이루어졌고 현 대천국민학교가 자리한 곳이 전래적인 明堂地로 꼽힌다.

이 곳에서 서북으로 丘陵이 여러개 있고 현재 大乘寺 현충각이 자리한 곳은 일제시대 왜인들의 수호신인 神社가 일시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중심가의 농경지 및 대천천, 그리고 아득한 서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대천의 明堂地이다.

서북에는 대천여자중학교와의 사이에 표고 약 50m 능선에 자리한 곳이 대천(한내) 산신당을 모신 곳이다.

당초 대천시까지는 원래 서해바다를 막아 이루어진 동네로서 지대가 바다면과 같아 해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에는 오서산, 성주산 등 長山에서 흘러 내리는 많은 물이 급류로 흐르는 옥계천, 나원천 등이 합류한 靑川川을 거쳐 한내(大川川)로 자연 범람하게 되어 한바탕 수재를 겪게 되며 농토는 황폐화 되고 아울러 온마을 주민들은 높은 산으로 한 때 피난 소동을 겪게 된다.

현재는 1950년대에 청천저수지를 막아 한여름에 수위조절을 하므로 안심을 하게 되었지만 약 10년을 주기로 대천천이 범람하여 적지않은 수재해를 겪게 된다.

한편 대천시의 지형이 자연 다른 부락과 같이 전래적으로 行舟形局이라고 마을 주민 고로들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재래 대천 동민들의 토속적 신앙으로 정착되어 갔고, 특히 대천 동민들의 상호협동과 부락공동체로서 각종 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대동계가 지속 발전되었다.

전통적 부락인 堂山마을 어귀에 자리한 곳에 대동샘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 주변에 인가가 적어서 조용했다. 이 샘의 發源은 높은 산줄기를 따라 힘찬 수맥이 있어서 다른 부락의 샘보다 뛰어난 수질과 풍부한 수량으로 많은 동민들의 식수로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대동샘을 보호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昇華된 바 당산샘 또는 당샘으로 推仰되었다.

이곳 내동부락의 다른 한 샘은 산신당 陵線북쪽 넘어 계곡변 언덕위에 자리한 샘으로 우수한 수질과 수량이 풍부하여 사시장철 물이 고갈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샘이다.

따라서 이 샘도 부락민 공동체의 식수이며 생명수로까지 보호, 숭앙의 대상으로까지 토착화 되었다.

대동샘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이 새겨져 있다.

左補處竭羅龍天

南無三洲護法韋默天神

右補處和修吉龍天

이 섬에서 정월 열나흘 저녁에는 山祭堂에 오르기 전에 祭官들이 목욕재계를 하고 제의에 따라 제수 및 제기를 갖추어 엄숙하게 당샘제를 치른다.

이 부락 山神祭는 오랜 옛날부터 전래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災殃과 壽福康寧을 기원하게 되었으며 토속적인 민족신앙으로 승화되게 되었다. 이것은 신을 頌祝하고 그에게 바라는 것을 祈求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천의 대동마을은 먼저 설명한 堂山祭 외에도 山神祭를 해마다 지낸다.

제의 절차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저녁에 山神堂에 올라 山神祭를 엄숙하게 지내게 된다. 당시 山神祭를 주관하는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일명 商務社(장돌뱅이의 집단체)가 주동이 되기까지는 文書로 전해지지 않고 口傳으로 전해져 오며 역대 會長단 有司들의 考證으로 추리된다. 즉 創始 당시의 會長은 吳炳善(一名 夏益)씨이고 有司로 朴永三씨 등이었으며 당시의 상가 주민들의 생활상태는 영세하여 넉넉치 못하였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온 마을의 合心體로 발족되기까지의 규모는 당시의 세시풍속을 따라 歲初에 풍물패를 앞세우고 乞粒을 하게 되며 이 기금으로 마을에 필요한 모든 行事 및 器物 등을 이루고 장만하게 된 始源이 되었다.

1. 山神祭儀

堂山主의 자격은 責任感과 실천력이 구비된 洞民 중에서 生氣福德을 보아 主當者로 뽑게 된다. 선택된 가정은 개인적으로도 榮光으로 생각하게 된다.

선출된 主堂家에는 그 이튿날부터 대형의 용대기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大字로 썼으며 왼쪽에 당해년갑에 正月十四日로 기재된 기를 대문 앞에 높이 꽂아 놓고 대문 밖에는 예외없이 황토를 퍼놓고 왼새끼줄에 숯과 백지와 소나무 가지를 꽂아 놓고 금줄을 늘어놓아 禁斷區域임을 동네 안팎으로 널리 알리고 出入을 삼가하게 한다.

祭儀前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제사날 7일전부터 부부가 집에서 찬물로 목욕재계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둘째, 부정한 장소를 가지 않으며 보거나 듣지도 생각해서도 안된다.

셋째, 부부생활도 일체 금한다. 제사를 지낼 때까지는 부부가 방을 따로 쓰며 자제한다.

넷째, 동네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은 참여치 않고 자제한다.

다음은 生氣福德 또는 天氣를 보아 祭官 有司들을 뽑는다.

동네 乞粒은 正月 四日 會長이 有司들과 마을 農樂치는 패를 불러 풍물준비를 하게 한다.

드디어 乞粒에 나서게 되면 그 行列은 용대기를 선두로 풍물패를 앞세우고 會長과

有司가 뒤따르며 대개 찾는 집에서는 歲初가 되어 상을 차려 쌀을 놓고 촛불을 켜서 一行을 정성껏 맞이하여 誠金이나 穀食을 내어 놓는다. 풍물패들은 집안 한바퀴를 農樂을 올리면서 집안팎을 신나게 돌아다닌다. 이때에는 세시풍속이 후하여 자기집에 술과 안주를 정성껏 接待한다. 그리고 일반 상점에서는 청과류, 건어물, 명태, 포 등을 내어준다. 또한 가게가 넉넉한 집에서 술과 설빔음식을 待接하는 호뜻한 풍경은 풍물잡이들의 興趣을 한껏 돋우기에 족하다.

대개는 많고 적고간에 誠心으로 분수에 맞도록 주는대로 받는 것이 乞粒의 참뜻이며 따라서 마을 人心이 후하고 協同心이 자별했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적극 참여하고 성금을 내주는 분들은 변함없이 당연히 매년 표하는 것으로 안다.

山神祭의 전날인 正月 十三日은 아침 일찍 회장과 有司들이 모인다. 일부 有司는 祭物 준비와 장흥정을 맞는다. 해마다 정갈하고 精誠을 다해주는 점포에서 최상품으로 골라 쓰게 된다.

또한 有司들은 당샘과 목욕재계하는 샘물을 깨끗이 품어내고 그 주변 청소를 말끔히 한다. 당샘은 저녁 늦게 뚜껑을 덮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개인이 떠가기 전에 祭物을 장만하는 主堂者의 집에서 충분히 쓸 물을 길어다 미리 담아 놓게 된다. 해마다 이 날은 인근 개인집에서는 꼭 이를 지켜 자제하여 준다.

특히 산신당 내부는 쓸고 닦아내고 그 주변도 청소하고 정리하게 된다. 이는 당해 主堂者가 맡아 하여야 한다.

드디어 山神祭일인 正月 十四日에는 아침부터 회장과 有司들은 용대기를 선두로 풍물패를 앞세우고서 官과 民이 성금을 내어준 동네 家家戶戶를 찾아 한바탕 農樂을 올려 지덕을 닦아주는 사전의식을 행하게 된다. 아울러 동네 길목마다도 돌면서 연중 무사 태평을 정성껏 祈願하는 뜻에서 힘차게 지덕놀림을 한다. 이렇게 온종일 누비고 다녀주다 보면 더러의 집에서는 자기 집 門前에 상을 받혀 쌀과 穀食을 소복히 놓고 촛불을 켜고 정안수를 떠놓고 성금 등도 올려주는 집들도 허다하다.

마침내 종일 풍물을 치다가 오후 4시경 당산에 올라간다.

堂山祭 앞마당에 대형 용대기를 꽃아 놓으면 정상의 깃발은 바람에 나부낀다. 또한 장작불을 피워서 대낮같이 밝혀 놓는다. 그리고 한바탕 農樂을 올린다.

한편 祭官, 祝官 일행은 골짜기 목욕하는 샘에 가서 정월 얼나홀 저녁에 매서운 北風 거센 바람이 추위도 무릅쓰고 精誠을 다하여 목욕재계를 한다.

이윽고 제당 앞마당에 올라가서 몸을 녹인 다음 제복과 유건, 도포를 입고 행전치며 祭禮 준비에 정성을 다한다. 이 때 主堂者 집에서 정성껏 차린 제물을 지게에 저서 올려온다. 그리고 祭官들은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 순서로는

첫째줄에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은행, 호두, 굴 등을 진설한다.

둘째줄에는 채와 부치개. 산자 등을 올린다.

셋째줄에는 생선, 조기, 민어포, 마른 명태 등을 진설한다.

넷째줄에는 삼탕을 진설한다.

다음줄에는 시저와 잔대를 올린다.

이때에 특히 메와 국은 부정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神堂 옆에서 바로 끓여서 맨 뒤 神位 자리 앞에 진설한다.

한편 神堂을 향하여 왼편에는 소머리를 익혀서 올린다. 그리고 그 바른편에는 백설기를 띄시루채 올리며 제주 준비와 퇴주 그릇, 촛대를 비롯하여 香爐, 향합이 앞에 놓고 축판과 燒紙 봉치 준비를 끝내면 드디어 祭禮儀式이 시작된다.

제의절차에는 祝官은 실내에 촛불을 켜고 실내 뒷벽 중앙에 木箱함문을 열고 神圖 즉 산신상이 모셔져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서 初獻官에게 진설을 보이고 행사를 청한다.

의식이 끝나면 祭官席은 제당 밖 바른 편에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등 祭官이 차례로 서고, 반대편에는 집례가 서서 의식봉행 절차문을 읽어 감으로써 의식 절차에 따라 始終一貫 엄숙하게 제의 절차가 진행된다.

의식절차문 흘기(笏記)

初獻官은 세숫물에 손 씻으시오.

初獻官은 신위전에 부복하십시오.

祝官은 향을 받들고 獻官은 받아 향로에 피우시오.

獻官은 잔을 받아 술 부어 잔을 가쉬워 올리시오.

初獻官 이하 모든 祭官들은 강신 재배하십시오.

祝官은 잔을 받들고 獻官은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산신전에 올리시오.

祝官은 개를 열고 입시하십시오.

初獻官 이하 모든 祭官은 꿇어 앉은 채로 머리 숙이시오.

祝官은 독촉하십시오.

祝 文

維歲次 ○○ 正月 ○○ 朔十四日 ○○

幼學 ○○○

敢 昭 告 于

山神之位

名山鎮北 揚靈降祥

實賴默祐 宣我農商

鼓潤以時 毆邦禳禳

舟車利涉 民物俱昌

盈止寧止 來福無量

上元極煙 庶歆射觴

初獻官은 재배하시오.

初獻官은 잔을 비우고 나오시오.

亞獻官은 세숫물에 손 씻으시오.

祝官은 잔을 받들고 獻官은 잔에 술을 채우시오.

亞獻官은 재배하시오.

祝官은 잔을 비우고 나오시오.

終獻官은 산신전으로 입실하여 제상 앞에 앉으시오.

祝官은 잔을 받들고 獻官은 잔에 술을 채우시오.

終獻官은 재배하시오.

獻官은 나오시오.

祝官은 시저를 내리고 개를 덮으시오.

初獻官 이하 모든 祭官은 재배하시오.

依福禮를 올리겠습니다.

初獻官은 산신전으로 입실하시오.

祝官은 잔을 내려 初獻官에 드리시오.

獻官은 술을 드시고 안주 드시오.

初獻官과 祝官은 축판을 들고 나와 축문을 소각하시오.

燒紙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初獻官은 산신전 앞에 大洞都燒紙 즉 대천시 전 동민의 안녕과 萬事亨通함과 天災地變에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燒紙를 맡아서 끝에 촛불을 댈다.

다 타 내려오면 손바닥으로 높이 날려 훨훨 잘 타오르면 그 해의 길운을 점친다.

祭官 자신들이 燒紙는 각자가 심축하여 올리고 다음은 각 기관 순서로 燒紙에 썬여 있는 대로 發源 燒紙를 올린다. 그리고 乞粒에 참여해서 성금을 내준 官民이 골고루 적혀있는 燒紙를 순서대로 다 올리고 燒紙올림이 다 끝나면 제상에서 제물을 골고루 조금씩 담아 거리제에 가져가게 된다.

獻官 이하 각 祭官의 음복과 모여든 兒童들에게 삼색실과와 여분으로 준비해간 음식과 떡을 한 조각씩 골고루 나누어 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쌀죽 한동이를 지게에 지고 山祭堂에 꽂아 놓은 용대기를 선두로 풍물패를 앞세워 신명나고 搖亂하게 치면서 會長과 모든 祭官들은 뒤따르며 마을 한복판에 있는 한대로 간다.

드넓은 긴 내의 맑은 물이 기세좋게 도도히 소리내어 흘러가는 당시 12간 다리 천변에서 준비하여간 지푸라기를 열그십자형으로 깔아 놓고 가져간 祭物을 고루 진설한다.

會長은 온 동리 마을에 災厄, 역질, 惡鬼, 부정 등의 침입을 막고 마을안의 災福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 달라는 간절한 呪文을 외우고 東西南北 사방을 향하여 절한다.

한 祭官은 내려가는 냇물에 쌀죽을 손으로 집어 던져준다.

지난해의 묵은 액은 가고 새해는 밝은 해가 되어 달라고 祈願하면서 고시례를 연방 외치면서 쌀죽 한동이를 다 내던지는 것을 끝으로 山神祭를 끝나치고 보조신이 하위신으로 모셔 내려오는 마을의 공동체 信仰의 전반적인 信賴의 의식으로 유래하여 행사하여오는 고시례한 제물은 희미한 달빛에 비치면서 흩어져 하염없이 떠나려 간다.

사물패의 풍물소리는 신명나게 끊임 새 없이 울리고 고시례를 끝으로 제의는 파제가 된다.

일동은 용대기를 말아서 들며 풍물을 치고서 이윽고 제물을 차린 主堂者 집으로 전부 철수하게 된다.

이제 정월 대보름 아침나절에 決算하게 되는 대동회의를 갖고 乞粒된 총액과 제의비, 인건비 등 기타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남은 여재가 있게 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예치하여 이 기금으로 공동기물도 장만하고 제당 수리비 등에 충당하게 된다.

(후기)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特有의 농경사회에서 수천 수백년 대대로 傳承되어 온 토착적 민속신앙은 한편 단순한 民俗信仰이라기보다 대대로 永久 안주하는 부락공동체의 안위에 대처하는 공동의식으로의 절대적인 參與儀式이었음을 강조한다.

沿 革

한말 日本의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1894년 甲午改革이 실시되어 地方制度改革이 단행되어 褙衣面이 되었다.

1914년에 大川面이 되고 면사무소, 郡廳 등 관공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1930년 廣川부터 大川까지 天安기점 경남철도 현 장항선철도가 놓이게 됨으로 海路와 陸路가 四通五達로 發展한다.

더욱 철로가 놓이면서 舊市場에서 철로안으로 大川驛을 관문으로 새장터에는 도시계획선을 이루어 속속 學校, 관공서가 들어서고 개인주택, 상가가 점차로 이루어지면서 부락식 農村촌락에서 近代式 도시형태로 形成되어 갔다.

이에 따라 國道가 천안-장항간에 생기고 대천-울진간, 대천-공주간의 지방도로가 점차 확산 開設되어 갔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解放이 되었고, 1962년 大川邑으로 승격이 되었다.

이후 1986년 大川市로 승격이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는 동안 喜怒哀患을 겪어보기로 한다.

처음의 당집 規模形態를 살펴 보기로 하면 場所와 位置는 현재의 자리로 변함이 없었다. 돌담혹벽 3평 초가지붕으로 문은 양쪽으로 열게 되었고 목판이었다. 자물쇠는 채우게 했다. 매년 가을에 지붕의 이엉을 새로 덮었다.

그러나 호젓하고 외딴곳에 있어 인적이 드문 탓으로 젊은 청춘남녀의 密會 場所로

이용하는 까닭에 신당안에 모시어진 산신도가 여러번 破損되는 일이 있었으며 문작훼손과 파제가 수차 있어서 지방주민들이 분개한 바 여러차례 있었으며 번번히 개보수를 하여야 하는 實定이 있었다.

역대 회장단은 列擧 전래하나 그때 그때의 有司 명단을 昭祥하게 밝히지 못함이 유감이다.

당초에 商務社가 주관하기는 1894-1914년까지 20여년간 관장하였으며 새장터가 發展함으로 상업자, 농가, 어업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대동단결체로 대동계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帝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승해 온 이 지방 大川의 수호신으로 신앙되어온 제당이 1950년 6·25 動亂에 혼란속에 특히 대천 시내에 폭격이 심하였고 난리통에 동민들이 식량을 위시하여 생활필수품의 부족과 땔나무도 없어 戰戰兢兢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동란통에 자연 제당 개보수를 제 때에 못한 관계로 훼손이 누적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붕괴일로의 위험상태까지 처했었다. 그러다가 인근 주민이 제당 지붕의 석가래 등을 빼다가 추위에 땔감으로 하여 겨울을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崩壞되었다.

일설에 동터가 나서 땔감으로 가져간 사람들에게 원인없이 몹시 앓는 병자가 생겼었다 하는 風說이 나돌았다. 그 중에 당시 리서기를 보고 有司로도 있던 안모가 그 당시 원인모를 질병으로 6개월여의 병고 끝에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한다.

그 후 매년 제당 지붕 개보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70년 4월에 현재의 제당모습으로 시멘트블록조, 시멘와용 4평건으로 당시 보령군수 이이구, 국회의원 최종성, 경찰서장 이영우 諸氏외 관민 200여명으로부터 지원 기부금을 받아 준공을 보았다. 그 기념으로 제당안 벽에 당시 推進 회장단 최칠성, 이보성, 이희철, 윤용현씨 등이 현판을 걸어놓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당시 일신하게 내부에 山神圖 상자도 뒷벽에 附着하여 이 고장 화가 이창호(인간 문화재)씨로부터 산신도를 高價로 그려 받은 神圖 역시 당시 목탄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청춘남녀의 몰지각한 作態의 피해로 훼손을 본일이 가장 안타까움을 지금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그 안에 보관중인 용대기 대형 2매와 소형 1매를 이 때 개인 有司 최모가 보관하였으나 우연히 득병하더니 이로 인한 弊害라 생각했음인지 남모르게 소각한 바 있다가 몇달 뒤에 결국 사망하고 그래서 시초의 용대기는 소실당했다.

이와같은 갖은 受難 끝에 현재의 알루미늄판 철문으로 개조 사용하고 있는 바 時代의 變遷에 따라 생활수준과 文明의 기지가 發達하여 근래에는 굳이 구차한 행태가 사라지면서 신성불가침에 금단구역이며 아울러 신성시되게 되었다.

● 산신에 대한 영험 이야기

역대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최칠성씨는 평소 有司로 있을 당시 늦게까지도 독자

녀를 못하여 弟氏가 자신의 장자를 양자로 호적에 입적한 바 있었다.

이에 평소 고심중에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산신을 모신 결과 만득으로 아들 삼 형제를 얻어 그 자손들이 현재 번창함으로 생전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였다.

회장으로 재직 당시 근 80세가 되었어도 정월 열 나흘 저녁 흑심한 눈발속에서도 알몸에 계곡 샘물을 떠서 술선하여 목욕제계하고 오르던 모습이 이제껏 선하다.

◎ 1968년경에는 시내 모모한 청년들이 무단히 득병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노인층에서 수호신으로 믿어 모시는 山神祭를 소홀히 지내서 그렇다고 여론이 비등한 후 더욱 주관하는 有司들의 책임이 중차대함을 깨닫고 그후 더욱 정성을 모아 우금에 이르고 있다.

◎역대 회장단의 명단

오병선(일명 하익), 박영삼, 최용보, 한춘원

성호영(일명 公員) 박용준 이회규

최장렬, 이정복, 전동수, 최철성, 구종서씨 등으로 이어온다.

◎ 근래의 山神祭 변천

예전에 비하여 지켜오던 제례의식이 많이 간소하게 되었고 제례절차도 더욱 간소화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제당에 대한 깊은 외경심도 많이 사라졌고 아울러 祭官이나 祝官, 有司, 실무자 등도 여러 금기사항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祭官을 맡지 않으려 회피하기 때문에 祭官의 선출 자격이나 과정도 매우 간편화 되어갔다.

예로써 목욕제계는 대중목욕탕이나 자가 욕탕에서 하는 정도로 대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기천, 기백년 전승되어온 토착적인 민속신앙이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나 젊은 층의 참여도가 희박하여 계속 계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는 初獻官을 면때는 면장이 읍까지도 그 장들이 맡았고 시로 승격

후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는 등 범관민이 합동체가 되어 우리 것을 수호하며 전승한 바 이렇듯 토착적 민속신앙을 영원불멸 후손에게 미풍양속으로 전승시켜야 하겠음을 역설해 둔다.



2) 大川市 宮村洞(국말) 木神祭

이 마을은 옛날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신 경순대왕께서 신라천년사적을 선국(仙國)하시고 軍士馬를 이끌고 離宮行事하며 聖王님으로 한때 平居하신 역사적인 사례로 이곳을 성주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또한 성주산 줄기의 옥마산은 玉皇上帝가 天地公事를 하실 것을 金傳大王이신 경순대왕님이 옥마를 타시고 사해의 용궁이 보인다는 王臺山에 오셨다가 龍華彌勒 石造像 造成하시고 가셨다는 古事로 산명, 지명과 더불어 여러 사적은 例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대왕님을 모시고 다니던 宮人들이 起居하면서 이 들에서 곡식을 가꾸고 양식을 소출하였다 하여 지명을 궁뜸(宮野)이라 붙였으며, 이후 천수백년 기나긴 세월을 거치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러 규모가 큰 行政洞으로 독립된 마을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전통적인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는 대천시 전체에서 유일한 木神祭가 독특하게 전승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약 500여년 묵은 巨木(팽나무)이 동네 동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해마다 정월 열나흘을 제삿날로 정하여 당일에는 부락민 전체가 총동원되어 木神祭를 지냈다 한다.

이 木神祭에서 농네 사람들은 먼저 동네를 위하고 그 다음 각자의 소원성취를 소원함은 물론 雨順風調하여 豐農과 한편 바다에 接해 있는 곳으로 아울러 豐漁를 所願하였다.

이 동네가 이루어지면서 유일한 대동샘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줄기가 거세어 한 마을 100여호가 살고 있을 때까지도 바가지로 떠다가 식수로 넉넉히 사용했다고 한다.

유일한 이 샘을 칠월 칠석 전날에 한번 품어주고 주위를 깨끗이 대청소를 하고 아울러 선달 그믐날에도 마을 공동으로 품고 청소하였다고 한다. 특히 정월 초하루부터 샘물을 떠가는 등 사용하는 것을 제삿날까지 금기했다고 한다.

이 샘도 세월따라 크게 개조되어 둘레와 바닥을 콘크리트 한지도 오래되었으며 현재 보존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뜯리고 주위집들이 철거되고 있어 없어질 날이 경각에 있다.

제의를 이 마을 金用禮(66세)씨의 설명에 따르면 化主는 생기복덕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되는데 선출된 化主는 일주일전 부터 목욕재계를 매일하고, 외출을 삼가며 모든 금기사항을 스스로 지켰으며, 동네 사람들도 化主집을 드나들기를 자제했다고 한다.

또한 제사 사흘전에 마을 입구마다 신성시하는 금단의 금줄을 띠고 부정한 사람은 마을에 못들어 오게 했다.

제삿날 저녁에 제사상에 삼색실과 포, 식혜 그리고 메와 떡을 차려놓고 풍물에 맞춰 주민들은 청수를 떠온 다음 化主로부터 분향, 헌작한 다음 祝文을 읽는다. 그리고 마을주민 호주대로 소지를 올리고 축원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마침내 제사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음복을 하게 된다. 이 木神祭가 끝나도 주민들은 집에 떡을 마련하고 각기 또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

이렇듯 수백년 내려오는 전통 부락제는 마을의 평화와 단합을 위해 실시된다.

전설에 따르면 다시와서 정성을 드려 소원을 빌면 아기를 못낳은 사람도 아기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1930년대부터 바다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많았다 하며 당시 철에 따라 칠산갈치잡이, 연평도 조기잡이배 등 서해안의 수 많은 어물들을 가뜩 실은 중선이 여러채인 선주들이 있어 한 때 흥청이던 호뭇한 시대를 맞기도 한 부락이었다 한다.

<木神祭의祝文>

維歲次 0 0 正月 0 0 朔十四日 0 0

化主 0 0 0 謹告于

木壇之神之位 樹老婁百 根固枝茂

物告直神 神基靈矣 惟茲一洞

共侍平安 도以濟誠 賴有吉祥

逐凶道吉 萬事昌成 爲此春酒

以介眉壽 海農豐盛 六畜繁殖

富貴之願 太平之祝 謹以酒果

靈神 尙

饗

그러나 이렇듯 성황했던 이곳 木神祭도 유사 이래 수천년 동안 연면 전승해 오던 농경 사회 특유의 민속 및 토착신앙이었지만 1950년 6·25동란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변천하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3) 大川市 花山洞 곶고개(곶현) 城隍堂

1. 연유

이 마을은 곶고개(곶현)이었으나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꽃고개(花峴)로 불린다.

마을 밑에 5, 6가구가 살고 있는 주암(周岩)이라 부르는 동네가 있다. 옛날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배를 매어두는 주암(舟岩)이 있어 마을 이름으로 붙여졌다.

2. 성황당

이곳 곶고개 마을은 이조(李朝) 중종(中宗)때 사화에 밀려서 낙향한 한양(漢陽) 조씨(趙氏)가 대대로 살아오는 마을이다. 동네 앞의 자연석 바위위에 갓을 세운 돌비(石碑)에 한양조씨묘촌(漢陽趙氏墓村)이라고 조각된 표비(標碑)가 서 있다. 약 30여호가 오손도손 마을을 이루고 산다.

지금은 2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로 대천 어항으로부터 대전으로 이어지는 36호 국도가 고개로 이어져 간다.

바로 곶고개 중턱에 정좌나무(느티나무)인 수령 약 500여년도 더 된 거목(巨木)이 있고 바로 위 고개에 청라를 경계한 곳에 성황당이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신앙신인 성황신을 모시고 있는 이 곳 마을의 성지이기도 하다.

옛날에도 이 길은 큰길로 못사람들이 왕래하던 길목이다. 신작로가 나기전까지는 남도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과거길로 자연 이 길을 따라가야 함으로 오로지 말을 타고 가는 선비, 걸어서 가는 과적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중요한 고장이다.

그래서 으레히 이곳 성황당은 이정표도 되고 쉬여가는 곳이기도 하여 오가는 사람마다 돌이나 나무가지를 던져 하루의 안녕과 재수를 성황신께 기복(祈福)하던 성지(聖地)이다. 자연 던져지는 돌담불이 이곳 부락의 신단(神壇)이요, 아울러 주변 큰 소나무가 지켜주는 성지(聖地)이므로 자연 부락민 전체가 신성시 하며 수호신으로 받들게 되었다.

예외없이 이 마을에서도 다른 고장과 거의 같은 형태로 한해의 가을걷이를 마치면 안택과 거리제를 지내게 된다. 이 성황당신께 음식을 차려다 놓고 지내게 된다. 때로는 가족중에 병고가 있어도 음식을 정성껏 차려다 놓고 원새끼줄에 오색형갑을 꿰매어 주변 나무에 매어 달아 울긋불긋 환하게 하며 성황신께 쾌유를 빌던 것도 토속적 민속이다. 더우기 괴질병이 돌게 되면 동네가 일체로 합심하여서 정성껏 내음을 하여 성황신제를 지내는 것도 다른 고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민속신앙으로 치제한다.

그러나 이곳 성황당도 현대 사회형태에로의 탈바꿈으로 인해 해방을 전후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4) 大川市 竹亭洞 대라골 山神祭

대라골은 雲中半月形 또는 아침에 모란꽃이 피어나는 형국이라고 전해진다. 뒤에는 標高 200m의 高山으로 背山臨水의 전형적인 마을이다.

이 동네에서 仁祖朝王妃가 되었고 후에 大妃가 된 분이 誕降하였다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民俗信仰으로 傳來하여 오는 동네 뒷산의 山神堂과 동네 어귀 山葉에는 七星堂이 있는데 해마다 정월 열 나흘 저녁이면 七星祭를 먼저 지내고 山神祭를 나중에 치제하는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있다.

이 마을은 金寧 金氏를 위시하여 각각 다른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100여戶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모여 산다.

이 동네의 堂山祭는 약 500여년전부터 전래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속신앙도 다른 부락과 같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발달과정에서 1950년 6·25동란을 前後하여 점차 소멸되어 갔다.

七星堂은 동네어귀(洞口) 山葉에 위치한 큰 팽나무 밑에 있는데 흙벽에 짚으로 이엉을 덮어 유지하고 있으며祭를 모실 때 올리는 메의 수가 두 개인 점으로 미루어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 內外神을 모셨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한다.

祭物로는 이 곳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숭어 두 마리와 소가 있다.

소는 잡아 山神堂(上堂神)에는 소머리를 쓰고 이 곳에는 소 뒷다리 두개를 같이 삶아서 祭床에 올린다. 과실, 채, 月餅, 白餅 등도 祭床에 올린다.

祭官이 정성껏 焚香을 하고 아울러 祭酒를 올리면서 동네의 무사안일과 새해에 豐年農事를 빈다. 또한 동민전체의 無病無事함을 빌고 동네에 모든 괴질과 악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祭官이 呪文을 외친다.

다음은 韓紙(사고지)로 大洞都燒紙를 올리고祭가 끝나면 祭物로 썼던 牛足の 우측 다리살을 발라내고 뼈만 祭堂뒤 팽나무 남쪽 밑 땅에다 묻어 놓는다.

또한 祭物로 올린 김(海草) 석장에 메밥을 싸서 3개를 만들어 동네로 들어오는 길 옆에 묻어둔다.

祭日 초저녁에는 七星祭를 끝내고 풍물을 앞세워 堂主집으로 간다. 또한 山神堂(上堂神)에 올릴 祭物을 지게에 준비하여 지고 온 마을 사람들은 뒷산으로 올라 간다.

山神堂의 규모는 흙담벽 2평에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다. 문은 남으로 향하여 사립문으로 되어 있다. 내부 중앙에 山神之位라 쓴 위패를 걸어 놓는다.

1. 祭床에는 果實, 채소, 白餅, 소머리(익혀서 쓴다), 메, 국, 祭酒 등이 놓인다.

1. 祭儀: 전통적인 儒敎儀式으로 한다.

初獻官이 焚香하고 獻官外의 參席人 全員이 再拜.

獻官이 獻爵, 奠爵 하면 이어 祝官이 讀祝한다.

初獻官이 再拜하고 다음 獻官이 獻爵, 奠爵하며 이어 再拜하고 다음으로 終獻官이 獻爵,

奠爵하고 再拜한 다음 獻官 이하 參席人員 全員이 再拜한다.

祝官은 初獻官에 飲福禮를 하고 다음은 준비한 韓紙(사고지)를 祭官이 部落都燒紙를 해 올리고, 차례로 戶別 세대주 姓名을 呼名하고 미리 記入한대로 촛불 앞에 앉아 외우면서 無病長壽와 災害 액땜을 빌고 豐年農事를 빌어주는 燒紙를 올려준다.

燒紙가 끝이 나면 參席人이 飲福後에 祭物은 堂上主宅으로 운반된다.

<祝 文>

維歲次 ○○ 正月 ○○ 朔十四日 ○○

竹洞民代表 幼學○○○

敢 昭 告 于

愚昧한 本 洞民들은 山神靈님의 恩德으로 天地爲父母하고 日月星辰照鑑下에 깊이 保全되고 있습니다. 神靈님께서 우리 마을에 鎮坐하시여 億兆蒼生을 굽어 살피시고 愛護撫育하여 주심에 忠心으로 感銘不已입니다. 全知全能하심에 伏願컨데 우리 洞民들과 畜生에 이르기까지 雨順風調로 各己 生業에 所願成就하고 한편 疫疾의 殃화와 水災의 각종 災殃과 患難病苦를 防禦하여 주시옵고, 우리 洞民 각 家庭에 幸運이 다하기를 祝願하나이다. 祭典에 略說清酌하옵게 歆饗 하시옵소서.

1. 제비:正初에 풍물패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면서 곡물과 금전으로 乞粒한다. 當該年에 洞비규모를 정하여 미리 豫額하여 호별방문을 하여 乞粒에 임한다.

1. 禁忌:선출된 堂上主는 각종 祭物의 만반준비를 책임지기 때문에 매일 저녁 내외가 목욕재계하고 장독을 정성을 드려 정화수를 떠다 바친다.

아울러 집앞에 황토를 퍼고 원새끼줄에 韓紙를 끼워 걸어 놓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규제한다. 물론 이웃사람들도 그 집의 출입을 자제한다. 또한 祭官으로 뽑힌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제해야 한다.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된 사람은 당연히 금기사항을 꼭 지킬 줄 아는 행습이 있었음은 예로부터 傳承되어온 토속신앙 또는 민속신앙으로 우리나라 土着農耕社會의 한 特色이라 하겠다.

5) 大川市 竹亭洞(독정) 城隍堂

이 마을에는 화암서원에 배향되어 유림들의 춘추제향을 받으시는 천휴당(天休堂) 이 선생의 묘(墓)가 계시고 신토비각이 있는 독정부락이다. 직계자손과 교화 노(盧)씨가 마을의 시초부터 살고 있는 약 400여년 된 마을이다.

현재는 보령종합병원이 들어서 있고 특히 청천 저수지 뚝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과 청라면 장산리로 넘어다니는 고개마루에 성황당이 있었다. 이 곳 성황당도 부락민들의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곳이며 신성시하던 금단구역이다.

옛날에는 인가는 멀고 수목이 우거져서 낮에도 호젓했으며 더우기 밤에는 호랑이를 위시해 여러 금수들이 출몰하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곳은 넘나드는 이웃 옥계 오삼전에 살고 있는 부락민들과 마소의 왕래가 빈번했던 큰 길이기도 하다. 그렇던 이 곳도 1940년대부터 도로가 넓혀져 우마차는 물론 자동차길이 되었고 1992년도부터는 2차선 포장도로로 변했다.

옛날에는 이곳 성황당에 이웃부락민과 오가는 길손들이 하루의 통행길이 무사평안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돌이나 나무가지를 주워 성황신께 던져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따라서 자연 크고 작은 돌담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돌레에 해묵은 큰 나무들이 서 있어서 자연 성황신의 정신적 위압으로 인해 신성시되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 성황당은 독정부락의 수호신으로 추앙되었으며 한해의 추수 후에는 온 동네 집집마다 안택과 거리제 등으로 저마다 이곳에 와서 제물을 차려놓고 성황신께 정성껏 소원성취와 무사안일을 기원했었다.

오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으레히 가을부터 이듬해 봄날이 풀릴 때까지 계절적인 돌림병이 만연하게 된다.

만일 이웃동네에 윤기(장질부사), 손님(마마), 홍역 등이 들었다 하면 이와 같은 돌림병이동네에 침입함을 막는 기우에서 자연 부락행사의 일환으로 성황제를 지낸다.

우선 짚으로 말을 만들어 양허리에 작은 섬을 매단다. 그리고 주부들은 동네 집집을 돌면서 밥과 반찬을 조금씩 얻어 담아 원새끼줄로 묶은 다음 동네 정갈한 주부들이 농악 대신 양푼과 바가지를 두드리며 성황당에 다다른다.

준비한 짚단으로 불을 피우고 정갈한 짚을 추려 열십자로 놓아 준비한 밥 세그릇과 몇 가지 나물을 놓고 청이 좋은 부인이 내 동네만은 괴질병 즉 전염병이 들어오지 말라는 주문(呪文)을 목청 높이 외우면서 정성껏 기원한다. 또한 오색실과 형짚 등을 원새끼줄에 피어 성황신 나무에 매여 단다.

이러한 식으로 울긋불긋 했던 돌담의 성황당신을 위하던 것도 역시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서서히 사라져 갔다.

6) 大川漁港 豐漁祭

큰 닻과 작은 닻 사이 모랭이에 위치한 水神祭堂에 대한 제사는 약 500여년전부터 杞溪俞氏, 慶州朴氏, 潭陽田氏가 모여사는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발포모시와 고개넘어 군들이 마을에 약 20여호가 좁은 농토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어 자연 바다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해산물을 작은 풍선으로 원근해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해변에서 채취하는 어패류와 해태, 해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옴으로 하여 때로는 출범한 조그만 범선이 풍랑에 휘말려 실종되는 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드러지게 되었다.

원래 원시적 어획방법으로 나무기둥을 세우고 발을 엮어 만든 살, 매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잡이 등 모두가 년중일기 변동에 기인된다.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여 해쳐 나가려 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연에 대한 외경과 각종 천재로 인한 연유에서 민간신앙이 발로된다. 그리하여 재래 민간신앙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사상에서 발로하여 이곳은 자연승배에서 우리나라오는 天帝와 四海祭를 신앙의 대상으로 洞祭를 지내왔다 한다.

큰 닻과 작은 닻으로 이어지는 모랭이를 일명 龍모랭이라 하는 바 이곳 중턱에 위치한 祭堂은 예나 지금이나 특이하게 암석투성이의 색깔이 검어서 용모랭이라 이름한다.

자연거암이 방안과 같이 삼면에 둘러 있고, 그 위에 매년 짚으로 이영을 엮어 지붕을 덮는다. 한 해의 풍상으로 퇴폐한 지붕을 꼭 음력 정월초 삼일에 새로이 덮는 것은 새해에 새롭게 단장하며 정성드려 이온다.

祭儀의 날은 동민전체가 참가함으로 生氣福德을 보아 祭官을 정하고 祭物을 준비하는 등 主堂者를 뽑게 된다.

일단 主堂者로 뽑힌 가정에서는 문전에 금줄을 치고 양면에 세 무덤식 귀토를 펴고 정갈함을 표시하며 아울러 금단구역임을 알린다. 청홍백 삼색의 각기 칠척식의 천으로 된 깃발을 한데 묶어 높은 장대에 매단다.

祭日까지는 主堂者는 매일 목욕재계하고 부부간에도 각방을 써야 하며 온 가족이 부정한 곳도 가지 말아야 하고 또한 보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 이웃사람들도 출입을 자제하게 된다. 主堂者는 물론 동면 전체가 삼가 근신하여 수호신을 정성껏 받드는 정성에 연유한다.

祭官은 물론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祝官으로 뽑힌 사람들도 정갈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1. 祭物 장만하는 비용은 정초에 매호당 걸림으로 충당한다.

1. 祭物은 과실과 돼지머리는 생체로 올리고 민어포와 명태포를 올린다. 백설귀, 시루떡과 祭酒는 꼭 빚어서 쓴다.

祭物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이 마을 수호신인 극황상제와 용왕신을 정성껏 숭

양하는 연유이다.

1. 祭日은 정월 열나흘 저녁(해지면) 지내게 된다. 특히 바다 바람에 추위가 극심한 때로서 밑의 모래사장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동민들이 장대기를 높이 꽂아 놓고 농악을 힘차게 신명나게 울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와 바다에 참 용하신 사해용왕신께 울려 퍼져 감응을 바라는 신악이 된다.

제의식은 천제지신 紙榜을 왼쪽에 모시고 사해용왕지신을 바른쪽에 모시고 그 앞에 祭物을 진설한 제상이 놓여진다.

서쪽에 촛불을 켜고 향합, 향로를 놓아 분향하고 술잔의 다섯을 우선 천제와 동해, 서해, 남해, 북해용왕신께 올리며 初獻官이 분향재배하고 祭酒를 올린다음 祝官이 讀祝을 한다. 初獻官이 재배하고 돌린 술잔을 모두 퇴주한다.

亞獻官이 술을 다섯잔에 올리고 재배하고 다섯잔 모두 퇴주하고 종헌관이 나아가 祭酒를 다섯잔씩 올리고 재배한다.

끝으로 獻官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배하고 初獻官에 祝官은 잔을 드려 음복례를 행한다.

그리고 祝文을 初獻官이 燒紙하고 준비한 白紙(韓紙)를 燒紙해 올리는데 천제와 사해용왕신께 신원하는 大洞都燒紙를 올리고 부락민 각 호별 주인의 성명을 호명하고 그 가족에 무병안녕과 생업이順利로 소원성취하기를 성심껏 기원하는 燒紙를 불태워 올려준다.

끝으로 祭物을 골고루 조금씩 바가지에 담아 내려와서 바다물에 던지는 고시례(許食)식을 끝으로 파제가 된다. 許食이 있는 후 지난해에 풍랑에 파선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따로 음식을 고루고루 준비하여 넋을 위로하는 뜻으로 바다에 던져 위로한다.

<祝文 內容>

歲在 00年 正月 00朔 十四日 00

幼學 000

天帝님과 四海龍王님께 告祝합니다.

우리 人間들의生과 業이 年中 雨順風調의 順理와 바다에서 얻어지는 海產物이 豐年들어 遠近歸帆이 順坦하게 滿船이 되고 近海漁具類 採取가 豐盛하여 喜悅을 祈求하고 家家戶戶 無病과 泰平을 祈願하옵기에 精誠을 모아 謹以酒果 性幣醴齊하옵기에 굽어 飲饗하시옵기 祈願합니다.

이 지방은 크게 발전없이 유래되어오다가 서기 1420년경 일제가 침략후 이곳을 중요한 발전지역으로 보아 대천어항발전을 서둘러 큰담금과 작은 담금 사이 제당이 위치한 용모랭이의 암석산을 대대적으로 부수어다 어항방파제를 쌓게 됨으로 지형이 크게 변형이 되

었다.

따라서 제당은 없어지고 이때부터 어선도 대형화되어 먼바다 칠산 갈치잡이, 연평도 조기잡이 한눈 베 일명 증선으로 발달하여 어업이 성행함에 따라 증선업을 하는 업주단위로 각기 출어시에 지내는 풍어제로 변함으로 각 어주들은 형편에 따라 성대한 무당굿패를 불러 지내기도 하였다. 정성드려 自體로 告祀를 지내면서 서기 14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는 풍선에서 소형의 어선까지도 기계화가 되는 등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현재의 일일백여척의 어선이 입출항하는 대형항구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동제는 소멸되고 현재는 어촌제에서 통고한 시기에 행사적으로 풍어제를 드린다.

(大川漁港 豐漁祭)

祝 祇

太極始分陰陽生	水火行處造化變
一點水火萬類源	無量萬物無窮化
萬德高聖性閑寂	擁護漁場萬衆生
北海局內司神靈	大川海上大光明
司海神靈威德高	法坐發願持頌念
歸依衆生咸贊歎	降臨道場獻供養
無量聖衆加護法	願通南北三千里
四海便邦成一家	主宰統領聖壽高
文武百官爲國忠	氣流順調年年豐
苦海衆生及平和	萬山樹木茂綠新

作 祝祇 大川文化院長

尹 源 錫

7) 大川海水浴場 海邊祭(開場式)(毎年 7月 1日)

민속신앙을 신봉하는 전통 祈願에서 年例的으로 거행하는 행사가 서막이 오르기 직전에 우선 四海龍王님께 祭祀를 드린 水神祭를 올리는 뜻은 특히 해수욕장기간 중 浴客 수백만 인파가 自然 海水와 같이 오게 하고 天災, 水災인 災害로부터 인명의 피해가 없이하고 무사안일하게 피서를 즐기고 또한 지방민의 소망하는 사업에도 번창을 기원하는 회구에서 드리는 水神祭이다.

祭儀式은 전통적인 유교의식으로 행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제상에 祭物을 진설하고 笏記 唱笏의 순서에 따라 初獻, 讀祝, 亞獻, 終獻의 순서대로 의식을 마치고 끝으로 祭物을 고루 그릇에 담아 바다에 고시례(許食)를 하고 끝낸다.

《水神祭 祝文》

維歲次 壬申 六月 丁丑朔 初二日 戊寅

大川海水浴場 繁榮會長 李 元 吉

敢 昭 告 于

天上玉皇上帝 四海龍王之神

今爲大川海水浴場 開場于

神其保佑 俾無艱祭

萬人悅樂 淨心鍛身

精誠發願 謹以酒果

祇薦于神 尙

饗



8) 大川洞 新坪마을 路祭 (堤防祭)

鳳凰산 남쪽 기슭에는 준용하천인 한내 냇물이 서해로 밤낮없이 흐르고 있고 부락앞에는 높이 약 5미터를 쌓아 올린 방파제가 있는 셋터말이다.

약 300여년 전부터 문씨, 차씨, 윤씨 등 각 씨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사는 전통적인 마을이다. 이러한 냇가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해마다 水破를 겪는 불안과 농사는 물론 주거환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심하고 또한 몹시 불안하여 연례행사로 똑막이를 하는 것이 이 부락의 연례행사이다.

이로 인하여 동네 동쪽의 제방쪽에 노제장소를 택하여 버드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고 神木으로 정하였다.

路祭 일명 똑제는 부락전체의 수해 및 괴질 예방과 아울러 풍년을 빌고 동민 전체가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민속신앙으로 지내는 路祭(똑제)이다.

1. 祭日: 음력 정월 상순 밤중 0시에서부터 2시 사이

2. 祭費: 부락 각호에서 헌납하는 곡물과 금전으로 총당 또는 걸립하는데 정초에 전통을 자랑하는 이 부락 풍물패가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면서 새해복덕을 빌어주는 지신 밝기를 하여주는 뜻에서 바깥 마당을 돌아가며 한발강 풍물을 치고 어른과 아이들이 안마당으로 들어가 집주위를 돌아주는데 특히 뒷걸 장독대에 가서는 더욱 신나게 풍물을 쳐준다.

그러는 동안에 그 집에서는 설빔으로 마련한 설음식과 설술을 형편에 따라 내어준다. 이 집 저 집에서 마신 술로 취기가 도도해진 풍물패 일행은 더욱 신명나게 풍물을 쳐주고 이와 같이 동네 집집마다 돌면서 걸립으로 거둔 곡물과 현금으로 제비마련을 한다.

3. 祭官: 당상주와 다른 세 명을 선출하되 육십갑자를 따져서 생기복덕운이 닿는 남자에 한하여 선출을 한다.

4. 禁忌: 선출된 당상주는 제물 준비책임을 맡아 하기 때문에 (동네의 집집마다 물줄이 좋아 대개 자기 집에 샘이 다 있다) 매일 저녁 내외가 목욕재계하고 정성들여서 정안수를 뒤장독에 떠다 놓는다. 그리고 집대문 앞에 황토를 퍼 놓고 왼 새끼줄에 한지를 끼워 넣고 금줄을 건다. 물론 이 부락에서도 금줄은 부정한 사람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금단 구역 표시이다. 아울러 당상주는 제사날까지 부정한 곳은 가지 않고 먼 곳은 출입을 삼가하며 부부가 방을 따로 쓴다. 아울러 동네 전체가 자숙자제를 하게 마련이다.

선출된 제관들도 매일 저녁 목욕재계를 하고 먼곳 출입은 물론 부부사이에 각방을 쓰게 된다. 부정한 곳을 피하며 정갈한 몸가짐을 제일까지 꼭 지켜가고 있다.

5. 祭物: 과실, 채소, 포, 떡시루, 돼지를 잡아 머리를 익혀서 쓴다. 제주도 넉넉히 빗어서 쓰게 된다.

6. 祭儀: 대개 이곳 제의도 유교의식에 따라 진행된다.

초헌관이 분향하고 기타 헌관과 참석인 전원이 재배, 헌관이 헌작, 전작하면 축관이 독축한다. 초헌관이 재배하고 다음 헌관이 헌작, 전작하고 재배하면 헌관 외 일동이 재배하는 순으로 제례절차가 모두 끝난다. 다음은 제상을 물리고 음복을 한다.

다음은 준비한 한지(사고지)를 제관이 부락도서지를 소지하고 차례로 부락의 가가호호 세대주 성명을 호명하며 그 가족수를 미리 기입한 대로 촛불 앞에 앉아 외우면서 재해를 막고 무병장수, 안녕을 빌어 소지를 올려 준다. 소지올림이 끝나면 참석한 부락민이 음복한 디옥에 남은 모든 제물은 당상주 덕으로 옮겨간다.

<祝 文>

保寧陸忠面新坪路祭祝文

維

歲次庚寅正月壬寅朔初十日辛亥海東朝 解國忠清南道保寧陸忠面新坪里居閑良

金萬東焚香再拜敢昭告于

五方之神河海山川道路之神伏以需棲 下麓西海之濱大川之上大路之邊有此新 坪村衢有神一村居民家家戶戶生掄長掄 男女老少父茲子孝天唱婦隨維神保佑 無疾無災農業資生各食其力春種 夏耘秋收冬藏男耕女織衣食豐足維 神保佑豐年懷懷風不爲灰虫不爲災川 澤灌溉水不爲災閭閻德比大不爲災 無事無慮官災消滅痘神入門子女 頑吉颺颺不侵厲疫不入盜賊莫近席 豹遠道牛馬難犬六畜繁盛百事如意 家給人足一村太平時和年樂維 神保佑祝辭如享物薄誠淺所望則大神 其默佑庶歆尚

饗

1. 다음날 파제날에는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걸립한 제물의 규모에 대하여 결산하는 회의를 하게 된다. 대개 당해년의 동비마련에 목표를 세워서 매호당 형편을 보아 미리 예액한 대로 걸립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산하는 동계가 진행된다.

물론 풍물패는 농악을神明나게 올리게 되고 동네 남녀노소는 물론 아이들까지 남은 음식과 빚은 술을 들며神明나게 한판 어우러지도록 노는 하루가 어느덧 저문다.

1. 마을 수호신목으로 당초에는 일곱그루가 푸르게 같이 잘 자라서 두어 아름씩 되던 나무들도 오랜세월을 거치는 동안 한 그루 한 그루씩 자연 고사하였으나 두 그루는 1945년 해방때까지 울창하게 잘 자라 높이 약9미터, 나무둘레는 두 아름이 되도록 무성하게 커 갔다.

1. 神木은 神體로 알고 이곳 동민들은 평소에도 신성시 하여 동네에서 무슨 탈이 생기면 정갈한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 남몰래 밤중에 들고 가서 원새끼줄에 오색형짚을 끼워서 나무둘레에다 매달아 놓고 주문을 외우면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 상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와같이 전래적인 민속신앙으로 連綿히 이어오던 이 행사도 197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神木은 자연 고사하고 이 자리에 마을 회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이 곳은 마을의 기물 보관창고로도 활용되었다.

지금은 마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

이와같이 영고성쇠 번천을 거듭하고 있다.

9) 大川市 新黑洞 서낭당이(城隍祭)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속신앙으로서 신혹동 서낭당은 대천시에서 육굴, 절굴, 군마루, 흑포, 군두리로 통해하는 구도로 옆에 흑포 서낭당이(성황당)가 자리하고 있다.

이 동네는 500여년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듯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가 자리잡고 있는 부락이다.

이 마을 수호신으로 토속신앙의 대상인 성황당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7일이면 부락민은 총동원해서 성대하게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울창하게 서 있는 신목(神木)으로 북나무, 소나무, 팽나무 세그루가 있으며, 이 신목은 수령이 약 300년이고 높이가 7m, 둘레가 한 아름 반 정도 된다.

이 곳 제의도 다른 곳과 거의 같아서 이 마을 사람들은 먼저 동네를 위하고 그 다음으로 각자의 소원성취를 빌고 우순풍조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해마다 정초 7일을 정하여 제를 지낸다. 다른 고장은 거의 음력 정월 열나흘 날 지내는데 이 고장만은 음력 정월 초이렛날로 지낸다.

제주(祭主)는 정초 동네 연로하신 어른들이 그해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갖춘 사람을 제주로 선택하여 정한다. 선출된 제주는 날마다 목욕재계하고 근신하면서 제사날까지 집앞에 황토를 펴놓고 원새끼줄로 금줄을 치고, 마을 입구마다 금줄을 걸어 부정을 예방하는 것은 다른 고장이나 같아 금단(禁斷) 구역임을 알려 사전에 부정한 사람을 엄격히 통제한다.

또한 온 마을 사람들도 제사날까지는 몸가짐을 자제한다. 혹시 제일(祭日)전에 동네에 초상이 나면 제일(祭日)부득이 연기하게 되며 마을 노인들이 다시 정하는 날로 잡아 제사를 올리게 된다.

제비(祭費)마련은 다른 부락과 같이 정초 3일부터 동네사람들이 모여 풍물들을 앞장세우고 풍물을 신나게 쳐가면서 집집마다를 돌아다녀 현곡이나 금전을 걸립한다. 이때에 풍물패들은 어느 집에든 대문 또는 사립문을 통해서 안마당, 부엌, 뒤장독대 등을 두루 돌면서 한바탕 신나게 풍물을 올려댄다.

드디어 제사날에는 삼색실과 포, 식혜, 메, 국, 떡시루 등 제물을 정성껏 올리고 특히 제주집에서 빚은 술로 잔을 올린다. 그 다음 제주가 분향한 다음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호주대로 소지(燒紙)를 올리면서 축원을 한다. 이때 소지는 축문을 외우면서 온동네 집집마다 대주가 준비한 한지(규모가 작고 얇은 것)를 불태우면서 하늘로 날리며 각자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제사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마련된 술로 음복을 한다. (음복이란 제사 지낸 술을 마시면 소원성취가 된다는 뜻이다.)

<祝 文>

維歲次 ○○ 正月 ○○ 朔初七日 ○○

祭主 ○○○ 謹告于

城惶堂之神 神基靈矣
惟茲一洞 共侍濟誠
賴有吉祥 逐凶導吉
三農豐穰 六畜繁殖
太平之祝 謹以酒果靈神 尚
饗

이외에도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각기 소원성취하여 달라고 나름대로 정월 한 달내내 성황신께 가서 기원한다.

그리고 이곳을 통래하는 사람들은 꼭 성황당에 돌 세개씩을 주워서 던져주고 간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꼭 짐을 내려 놓고 쉬어도 간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락공동체의 토속 및 민속신앙도 외래 종교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 와서부터 자연식퇴 내지는 소멸되어 갔고 특히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들무덤 등이 없어지면서 전래적으로 성역시되던 신목주변이 새롭게 정돈되고 현재는 성황목만이 쓸쓸히 서 있다.

1980년까지 굳게 믿어 치성을 하시던 한 할머니가 작고한 후로는 아주 발길이 끊겼다.

10) 大川市 籃谷洞 塔洞 城隍堂

1) 이 마을 뒤의 산이름은 신라말(新羅末) 경순왕(敬順王)이 전국을 주유할 때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찾아 일시 머물렀다는 고사로 인해 왕대산(王臺山)이라 부른다. 그리고 단술한 것 같으면서도 오묘한 형세를 간직한 터전을 갖춘 동네이다.

마을 이름은 약 500여년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여 동네를 이루었는데 이곳을 지나던 어느 노승이 절터를 잡고 절을 세우기 위하여 탑은 세웠는데 절을 짓던 중 노승이 병에 걸려 죽어서 탑만 남아 서 있게 되어 탑동(탑굴)이라 한다.

그런데 일제말엽 이 탑을 왜인이 일본으로 밀반입해 갔다 한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옛날 이 동네에 중년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 생활은 넉넉하나 슬하에 자식이 없음을 늘 한탄하여 마을 어귀에 남몰래 음식을 장만하여 놓고 빌기를 오래한 결과 신의 도움으로 힘입은 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들과 딸 남매를 늦게 얻어 잘 자라게 되었다.

그 고마움을 잊지않고 계속하여 이 자리에 고사를 지내던 중 어느 봄에 소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고 돌로 당을 모은 것이 이곳을 지나는 길손은 물론이요, 그 후에 동네사람들도 자연히 신앙의 대상으로 토속신앙인 성황신을 섬겨 오던 중 이곳을 쌍소나무 성황당이라 일컬으면서 마을 전체의 신목(神木)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이 신목을 마을의 제신(祭神)으로 제사를 지내오던 중 1950년대에 한 나무는 고사하고 1980년대에 이 성황당의 돌담불에 년년세세 쌓였던 색색의 형집 등이 매달려 있는 것을 치우고 주위를 가로공원으로 재정비하였다. 그에 따라 왕래하는 사람들의 쉼터로 변하였다.

한편 도로가에 쏠려 있는 이 신목을 두 받침대로 받쳐 신목으로 지정하여 보호목으로 삼아 보호하고 있다. 늘 푸른 이 거목은 지금도 청청하게 자라며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3) 계속하여 400여년간의 성황신에 대해 신앙으로 매년 제사를 지내오던 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로공원으로 바뀔과 동시에 오랫동안 믿어오던 민속신앙의 맥이 끊기어 없어지고 말았다.

4) 관련의례

매년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마을의 질병을 막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낸다.

제관(祭官)은 정초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그 해 흉사가 없고 운수가 좋은 사람을 선정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대문앞에 금단구역으로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펴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그리고 성황제 3일 전에는 바깥출입을 삼가한 채 매일 찬물로 목욕 재계하며 근신을 한다.

거리제의 비용은 정월 초삼일에 부정이 없는 부인들이 앞장서서 집집마다 쌀이나 돈을

거출하는데, 초상을 당했다거나 출산한 가정의 집에서는 걸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물(祭物)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설기, 포, 나물, 술 등을 준비하고 역시 마을에서 깨끗한 부인들이 선출되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

당일 낮에는 원새끼로 금줄을 꼬아 마을입구와 금단구역인 성황당 신목(神木)에 금줄을 치고 깨끗한 황토를 펴서 부정한 사람과 잡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는다.

마을에서는 서오항제를 앞두고서는 절대로 살생을 금하며 부정한 일, 궂은 일을 가려 성황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조심한다.

이윽고 날이 어두어지면 동네어귀에서부터 신명나게 풍물을 치면서 성황당 신목 앞으로 다가가서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의에 따라 성황제를 엄숙하게 지낸다.

성황제에는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 상여나가는 것을 본 사람, 달거지하는 여자, 출산,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성황제에 참여하는 어른들과 부인들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조신하게 참여한다.

제의는 마을에서 최고령자와 제관이 먼저 잔을 붓고 절을 올린다음 축을 읽는다. 이어서 부녀자들이 2, 3명씩 차례로 절을 올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 디 소지를 올린다. 또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소지를 끝으로 제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성황제에 참석한 동민 일동은 함께 음복하고 마을로 돌아가 밤늦도록 즐거운 놀이판을 벌이게 된다.

5) 祝 文 維歲次 ○ ○ 正月 ○ ○ 朔 十四日 ○ ○

幼學 ○ ○ ○ 敢昭告

城惶之神 維比孟春 若是昭事

一里康吉 百穀豐穰 冀賴神休

非體將誠 惟神顧歆 永奠厥居 尙

饗

6) 손님(마마) 내음

옛날에는 돌립병으로 홍역, 운기(장질부사), 손님(마마) 등이 만연하여 자녀를 많이 두어도 중간에 커가면서 이 괴질 등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잃게 됨으로 마음놓고 잘 키운다는 것이 천재일우였던 시절이다.

근래와 같이 의학이 발달하여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낳기를 하는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연례행사처럼 가을부터 겨울을 나는 동안에 계절적으로 돌립병이 자연 발생으로 나돌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옆 동네에 손님(마마)이 돌면 십중팔구 죽거나 얼굴 등이 곰보가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예방법으로 손님내음이라 하여 동네 전체의 부인들이 나서서 정갈한 부인을 골라 짚으로 엮어 말의 형체를 만들어서 목에 원새끼줄로 끈을 매고 허리 양쪽에 짚으로 만든 섬을 매달고서 앞에서는 풍물을 신명나게 치며 집집을 돌면서 한쪽의 섬에는 밥을 다른 한 쪽 섬에는 반찬을 조금씩 거두어 놓는다. 그리고 네다리 몸체를 새끼줄로 묶고 네 사람이 들고 앞에 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동네 집집에서 뻗놓지 않고 다 거두어 성황당으로 참석한 부인들이 다같이 간다.

준비한 짬단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주위를 녹이며 한쪽 성황신목 앞에 정갈하게 젖은 짬을 열십자로 깔아 놓는다. 그리고 밥 세 무덤, 반찬 세 무덤을 가지런히 펴 놓고 성황신목에 말의 목에 매단 줄을 단단히 매달고서 성황신께 무서운 들림병이 우리동네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굿거리 풍물을 힘차게 쳐 댄다.

그리고 참석인원 전체가 두손을 마주하여 비비면서 진심으로 나름대로의 주문을 외워 괴질병과 모든 악귀를 막아달라는 심축을 제각기 기원한다.

11) 大川市 内項洞 内松(안소래)

이 마을은 신라말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넘겨주고 주유천하 하실때 이곳 산천 경계를 탐하여 일시 머물렀다는 왕대산(王臺山)이 있다. 왕대산에는 현재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왕대사가 있고 그 옆 넓직한 바위 절벽에 아련히 조각되어 빛이 보이는 미륵상은 전국에 존재하는 미륵상과 똑같은 독특한 조각법과 형태는 경순왕이 순력하는 곳마다 산재해 있다는 전설이 얹힌 곳으로 해발 약 150m이고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다.

옛날부터 삼면이 바다요, 빼어난 경치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다.

이 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 안소래 마을이다.

마을의 시원은 아득하고 현재 경주이씨, 전주 이씨, 경주 최씨 등 여러가지 성씨가 60여 호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물론 이 마을도 비옥한 농토는 적지만 서해 천수만의 간만차가 높아 썰물에 무진장한 해초와 어패류가 풍성하여 이를 채취하여 소득이 높아 잘사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도 다른 마을과 같이 수호신으로 믿어오는 산신당(山神堂)이 왕대사 옆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동성이에 있다.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이 마을이 600여년전부터 시초가 되면서 유래된 민속신인 왕대산신령을 모셔 놓은 곳이다.

벽은 돌로 쌓고 짚으로 지붕을 이은 2평 남짓한 당안에 전형적인 산신령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화상(탱화)을 뒷벽에 걸어 놓고 앞에 제상을 놓아 나무문을 달아 놓았다 한다.

매년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정초에 풍물을 치며 동네 가가호호에서 걸립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와 제관을 정한다. 또 철저한 금기사항을 지키며 제물을 장만하고 돼지를 잡아 제상에 돼지머리를 익혀쓰고 아울러 삼색실과 채소, 생선, 포, 떡시루, 메, 갯(국)을 차려 놓고 초헌, 독축, 아헌, 중헌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한지(사고지)로 대동소지와 동네가가호호 세대주 성명을 호명하면서 새해 일년동안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신수를 비는 소지를 올린다.

제례가 끝난 다음 제상을 물리고 참석한 제관과 동네사람들이 음복을 하고 밤늦도록 풍물패를 앞세워神明나게 동네를 한바퀴 돌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거듭神明나게 놀이판이 벌어진다.

이도 일제말 무속말살정책에 밀려 소멸되고 현재는 산신당터만 남아 있다.

維歲次 0 0 正月 0 0 朔 十四日 0 0

<祝 文>

堂主 0 0 0 敢 昭 告 于

王臺山神之位 神人以和 不言以親

維嶽降靈 日德日仁 撫鎮茲土

以安居民 百妖逃形 禎祥日臻

謹以 神嗜飲食 庶幾飲格 尙

饗

이 동네 李 相倍(77세)氏 증언

12) 大川市 東垆洞 오랏시 새암제(泉祭)

(1) 형성과정

이조 말엽 우라면(于羅面) 우랏시 또는 어휘가 바뀌어 오랏시(오랏)등으로 마을 이름이 바뀌어간다. 또한 면소재지이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명산 성주산을 뒤로 하고 드넓은 앞들녘에는 창창대해인 서해를 향하여 한내(大川川)이 도도히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수질이 좋고 풍부하여 비옥한 넓은 들논에서 많은 쌀양식이 얻어지고 있으며 주변 평섬, 명암(鳴岩), 번덕지에는 무진장한 전곡(밭곡)이 풍부하여 천혜의 부자마을을 이루고 있다. 자연 환경의 좋은 천혜적인 복지(福地)로 인구가 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전에도 이 마을 호수가 300여호가 넘었는데, 대동(大東)부락 또는 대천시내 동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1914년 행정개역에 따라 동대동(東垆洞)이 되었다.

(2) 유 래

이 마을에는 유일(唯一)한 샘터가 있고 동내앞에 수백년된 거목(巨木)인 느티나무가 마을 앞에 우뚝서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요. 오고가는 길손들도 여름날에 쉬고가는 정좌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1990년부터 도시계획 구획정리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고사(枯死)되었다.

이 나무에서 약 50m 북쪽앞에 위치한 샘터에는 윗샘(上部), 아랫샘이 약 20m 간격을 두고 있었다. 이 샘의 내부는 네모난 자연석으로 석축이 되었고 둘레는 배수로가 잘 되며 샘바닥이 항시 깨끗했다고 한다. 윗샘은 깊이가 두 깊이가 넘었고 아래샘은 두길 정도였다고 한다.

특유한 점은 윗샘은 겨울에 따뜻한 물이 솟고, 아랫샘은 여름철에 얼음같이 차가워서 일명(一名) 옷샘이었다고 한다. 여름밤에 다투어 길어다가 목욕을 하면 땀띠가 씻은듯이 나았다고들 한다.

워낙 물줄기가 좋아서 이 마을 300여호 온 마을사람이 이 샘을 사용하여도 달리지 않은 이 샘을 자연 공동으로 금기사항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샘에서 고마움을 느끼게 된 온 마을 사람들이 칠월 칠석날에 음식을 준비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암제를 지내고 하루를 쉬고 신명나는 풍물을 치며 정좌나무에 그네를 매여 띠고 각종 놀이를 하며 즐겨 놀았다 한다.

1) 경비

염출은 여름철 논에 김매기 시작 초벌매기때부터 동내 두레를 시작하여 대종가의 논매기를 위주로 하여 일꾼들의 음식을 제공하고 영세농의 논에 김을 매 주되 두락당 임금을 받아서 이를 예측 합한 재산으로 제사경비 또는 동네 소, 대사경비를 충당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부락은 부락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다.

2) 제주

제사날 소요되는 술을 담그는 사람을 선정하여 술을 담그게 하고 음식장만도 이 집에서 하게 된다.

3) 금기

칠석날 전일에는 동네 집집에서는 다음날 쓸 수 있는 물을 길어다 준비하여야 하고 이날 오후에는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샘물을 품어내며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고 명석을 덮어놓는다. 다음날 아침 나절에 새암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물을 길어갈 수 있다.

4) 제주(祭酒)를 담그고 음식을 준비하는 화주(化主)는 다른 마을 풍습과 같이 시초부터 대문에 원새끼줄에 한지쪽을 끼워 걸어 놓고 문밖에 황토를 퍼서 부정을 막고 매일 목욕재개를 한다.

5) 제사음식으로 삼색실과, 생선 포 등과 두부, 부치개를 준비하고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6) 제례 화주(化主)는 의관을 갖추고 제상에 제물을 차려 놓고 헌작을 하면 제관과 모인 사람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재배한다. 무축단배로 끝이난다.

여름날 들판에서 솜씨를 뽐내던 풍물패는 신나게 샘가를 땀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음식상은 밖에 있는 정좌나무 밑에서 옮기게 되고 미리 준비된 음식에 온 동네 노소(老少)가 물리어 음복을 하고 부락민이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7) 이 새암제의 유래(由來)는 민속신앙으로 굳게 믿는 것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쓰는 물이 많이 나와 주기를 원하고 무병장수는 물론이요, 괴질병이 돌아도 전염이 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 되어 주기를 비는 마음에서 지내는 마을 공동의 제사였다.

8) 흔히 동네 집집에서 무슨 탈이 있어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에 샘가에 와서 정갈한 짚을 열십자로 깔아 놓고 그 위에 음식을 놓고서 새암신에게 간절히 비는 것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9) 기원(起源)은 이 동네가 생기게 된 때부터로 짐작이 가나 알 수 없고 1945년경 전후로부터 이 풍속도 소멸 되었다고 한다.

10) 옛날 우라면(于羅面) 사무소 자리는 현재 개인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만 말

—동대동 3, 4통 노인정 여러분과 俞 春植(66세)씨 등이 증언한다.—



오랏시 샘터



옛 우라면사무소

13) 大川市 花山洞 오얏골(瓦洞) 山神祭

(1) 마을의 명칭

이 마을은 뒤로 성주산이 연해져 가면서 소두봉(小頭峰)을 이룬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주산이 동쪽에 있어 동명이 동산리(東山里)라 하였던 것이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화산동(花山洞)으로 개명 되었다.

(2) 마을의 기원

이 마을의 기원(起源)은 주로 평산 신씨(申氏)가 대대(代代)로 거주하여 왔고 약 600여 년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성씨가 모여사는 부락으로 약 30호를 이루고 있다.

(3) 산신당의 위치

연대(年代)는 알 수 없으나 뒤의 동산(東山)줄기 오르막(살구나무골)에 왕소나무 5그루가 오손도손 둘레를 이루고 있다.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인 적송(赤松)으로 수령이 약 400년은 되어 보인다. 그 둘레안에 자연석으로 돌을 쌓아 둘레를 담으로 쳐놓았는데 길이가 25m, 높이가 1.6m가 된다. 입구는 동내쪽으로 나 있다. 이 담장 북판에 상면(上面)이 반반한 바위덩이로 가로 2m, 세로 1.5m, 높이 1m의 자연반석이 있다. 이 바위가 제물을 차려다 진설하는 주바위(일명 명상바위)이다.

이곳에 성주산신을 위하는 산신당이 있다.

(4) 제의

해마다 정월 열 나흘 저녁을 제일(祭日)로 정하여 산신제를 올리게 된다.

재액(災厄)을 없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해 달라고 빌며 호환(虎患)이 없기를 기원한다. 마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빌어왔던 토속적인 부락제(部落祭)라 하겠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적인 토속신앙으로 해를 거르지 않고 연면(連綿)히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고 한다.

만약 제일(祭日)에 날이 꺾거나 불순하면 날짜를 어길 수 없어 동내차일을 치고 지낸다.

1) 祭費마련은 정초에 집집마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현금이나 현물로 걸립하여 충당한다.

2) 祭官선발 우선당주를 비롯하여 祭官은 初獻官, 亞獻官, 宗獻官, 및 축관을 선발함에 엄격하며 다른 부락의 전통제와 거의 같다.

모두의 집안에 임산부가 없어야 하고 상중(喪中)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입제일 10일전 부터는 각기 근신하고 매일 목욕제계한다. 그리고 각기 집앞에 황토를 퍼 놓으며 아울러 금줄을 대문앞에 매여 단다. 부정한 사람은 자제함은 물론이다.

또한 산제 드리는 우물은 파제일까지 꼭 명석으로 덮어 금기시 한다. 그리고 이튿날

주집에서만 쓰게 하는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을에 초상이 나게되면 부정하게 됴으로 온 동네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저녁 일찍 금기를 지켜온 당주집 식구만이 제사를 드린다.

3) 제수 : 삼색실과 어육전, 포, 탕, 소채, 간장, 식혜, 시루떡, 돼지머리(익혀서), 메, 국, 제주(祭酒)등이 진설된다.

4) 제사 : 역시 유교의식으로 행사(行祀)가 치러진다.

初獻官이 분향하면 일동이 다같이 재배하고 헌작하며 축관이 독축한다.

獻官이 재배하고 퇴주하고 나오면 亞獻官이 헌작 재배한다. 거듭 퇴주하고 나오면 종獻官이 헌작 재배한다.

후에 獻官 및 모인일동이 재배하면 初獻官에게 축관은 음복례를 한다.

이로써 제사는 끝나고 미리 준비된 사고지로 소지를 올리게 된다.

대동을 위하는 初獻官이 소리높혀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나서 각기 祭官들의 소지를 올리고 가가호호 세대주성명을 호명하면서 그 집안의 무사안녕의 소지를 올려주는 것으로 제의 절차가 끝나면서 파제가 된다.

5) 제물을 거두어 지계에 지고 풍물패를 앞세워 당주집으로 내려오면 동네 남녀노소가 모여서 한편으로는 음식을 먹으며 한편으로는 농악을 울려서 가가호호 돌아 술이 취한대로 부락민과 어울려 밤새도록 즐겁게 지낸다.

6) 이동네의 현재 주동인물인

대동회장단은 신재화, 신재명, 황장연, 신근섭, 백창현, 신의섭 諸氏 등이다.

(5) 산신당 사진



太市 花洞 (瓦洞) 石東山 祭祝文

三之神曰

尊靈昭格于下

鄉食

維歲次。正月。朔。日。堂主。取齋沐百拜祝願于

天地肇判 最貴者人 山岳為鎮 最靈者神 神以佑人 人以依神 巍彼聖山 維洞之鎮

民俱爾瞻 日有尊神 所求者多 所願者成

伏惟

調順風雨 稼穡以登 遠祛水火 瘟疫不犯 魅魍魎蹤 盜賊遁藏

虎豹奔走

五穀蕃熟 六畜茁長 戶口殷富 老少咸寧 神其明矣 神其靈矣

何事不成

茲值孟春 日吉辰良 戒心添誠 真牲于俎 何事不成 隨事祝願

宜應如響

賴以永昌

謹以菲薄真具薦此祝事

尚

14) 大川市 鳴川洞 伊川(울음내) 山神祭

성주산과 옥마봉으로 이어지는 서쪽에 위치한 계곡에 명천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인근에 수목이 우거지고 물이 맑아 시원하고 약수로 잔병이 있는 사람이 목욕을 하면 몸이 완쾌해진다고 한다.

오랜 옛날에 선인(仙人)들이 찾았다는 전설이 얹힌 계곡으로부터 한등성이 북쪽으로 넘어 있는 계곡이 산제당이 있던 곳이며 산제굴이 있다. 지금은 대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아래 질펀하게 펼쳐져 있는 마을에 큰산인 성주산에서 집수되는 현재 대천시와 남포면을 경계하는 큰 내가 있다. 여름에는 폭우로 큰물이 날때마다 수재가 나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있어 항상 내(川) 뚝매기를 단단히 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의 기원은 약 700여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마을이며 대대로 여러성씨가 모여 살고 있으며 약 100여호를 이루고 있는 큰 마을이다.

약 500여년전에 동민 합심으로 산제당을 세워 매년 정월 열나흘 저녁에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재해 액운을 제거하고 사회연풍과 동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역시 이 마을도 정초에 건립을 하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와 제관을 선출하여 당제를 오랜 전통적 민속신앙으로 승화시켜 지내 오다가 1940년경 왜정 말엽때 미신타파의 말살 정책에 의하여 제의가 폐기되고 자연 산제당도 없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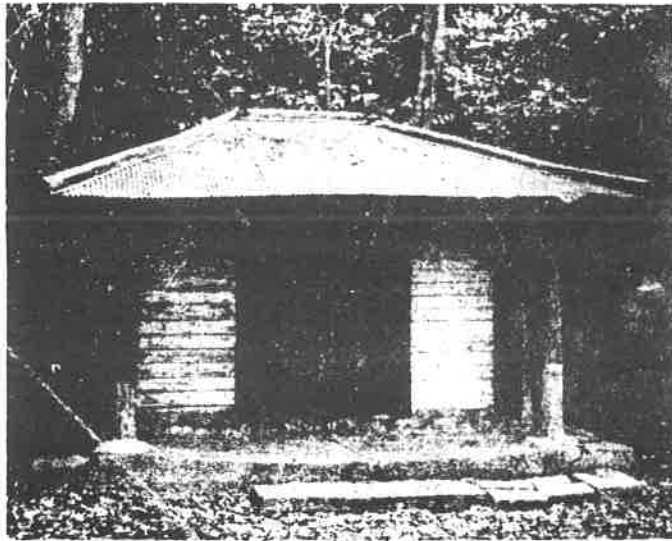
—이마을 거주 申東秀(73세)氏 증언—

15) 외연도(外煙島) 전횡(田橫) 장군제(將軍祭)

이민족(異民族)의 인신(人神)을 부락집단 신앙의 수호신(守護神)으로 하여 그 신(神)에게 그들의 생활안정을 의탁해 오고 있는 섬마을이 있다.

즉 옛날 제국(齊國)의 전횡(田橫)이라는 장군신(將軍神)을 봉안하고 그 신(神)에게 온갖 정성을 바쳐 그들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기(期)해 오고 있는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리 주민들에게서 그러한 생활의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민족신(異民族神)에게 집단생활의 안정을 의탁해 온 예가 전혀 없지 않으나 충남(忠南)지역내에서 흔치 않은 민간 생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외연도(外煙島)는 충남(忠南)의 도서중 내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다.

근(近) 149호(戶)의 가구에 64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곳 당산(堂山)의 동백수들로 천연 기념물 제136호의 상록수림(常綠樹林)은 이 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여기 당산

(堂山)에는 산신단과 당사(堂舍)가 있어 주민들은 이 숲속 전체를 극히 신성시(神聖視)하여 왔다. 그리하여 6·25직후 이곳의 민속조사(民俗調査)를 왔던 국립조사단원들조차 이 숲속에 접근을 못하고 되돌아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도 변해서 10년전 육지의 모인(某人)이 당산 주변의 동백목을 벌목해 버렸고(그후 벌목한 사람은 온 가족이 멸족 하였다 한다) 그후에는 누구나 당산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동백목 사잇길을 따라 동북쪽 산정에 오르면 그곳이 「봉우리」로서 높이 2m 정도에 둘레가 10여m쯤 되는 자연암(自然岩)이 있다. 이것이 이 당산의 산신(山神)단. 주 위에는 흩어진 우골(牛骨)들이지만 성대하였던 제물(祭物)을 짐작케 해준다.

여기로부터 서남방으로 30m쯤 아랫쪽에 함석지붕의 2평 남짓한 당사가 있고 이 당사가 전횡장군(田橫將軍)사당이다.

당(堂)의 문루에는 제(齊)의 공족(公族)이었던 전횡장군(田橫將軍)이 제(齊)의 왕(王) 전영(田榮)의 종제(從弟)로 왕위를 엿보다 오해를 받고 도피함 제(齊)가 망하게 됨에 의로운 군사 오백인을 이끌고 배를 타고 동으로 밀려오다 이곳 외연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등의 전공(田公)사당기라 적힌 현판이 걸려있다. 당내(堂內)에 들어서면 정면에 전횡장군

신위의 위패가 보이고 그 곁에 전횡이 팔이라 일컫고 있는 소저아씨의 신위(神位)가 보인다.

그리고 좌우로는 당산신위(堂山神位) 도당신위등의 위패가 보인다. 한편 이러한 신위의 면전(面前)을 스친 느낌(원 새끼줄)위에는 여인의 저고리와 길지(창호지)가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코티분을 비롯 나이롱, 머리빗, 거울, 땀기 등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당내의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두개의 하아리가 놓여 있고 그속에는 수십점의 여자옷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원래 이곳의 당 제(堂祭)는 4월 11월등 연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5년전부터는 4월제 한번만을 거행해 왔고 이 제를 이곳 주민들은 전횡 장군제(田橫將軍祭)라 부르고 있다.

제일(祭日)은 4월중 길일(吉日)을 택하여 거행되며 늦어도 제15일전까지는 제주(祭主)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제주는 그날로부터 몸의 부정을 금해야 하며 특히 제물을 만들 때는 절대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여 해방전까지만해도 제물을 만들때 소변을 보려면 나무젓가락으로 근(根)을 꺼내 변(便)을 보고 목욕을 해야하였다 한다.

제의는 제일의 오전에 제주가 당산입구 「하밭」이란 곳에서 몽둥이를 곁에 놓고 당사를 향하여 「미련한 인간들이 잘못하는 일이 많지 잘하는 일이 많겠으리까마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하는 「등장」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어 제주는 그 몽둥이를 들고 산신단으로 올라가 그 물로 단을 정결히 닦고 이어 사당으로 내려와 역시 동이의 물로 그곳을 깨끗이 닦아내면 이어 제물이 진설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초야(初夜)에 산신제를 거행하고 자정이 되면 전횡장군제를 지낸후 다음날 새벽 하산길에 옛날 제물을 훑쳐먹고 족사했다는 총각 김서방을 위하여 고기 한점, 떡 한쪽, 술 한잔을 부어 놓은 후 곧장 하산하여 부락앞 해변의 방파제 끝에와 용왕제(龍王祭)를 거행한다.

용왕제가 끝나면 김밥 세덩이를 바다에 던지는 허식(許食)이 있고 이어 파제에 들어간다. 파제는 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종일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농악을 울려대는 즐거운 놀이로서 노소를 불문하고 흥을 돋울 일이면 서슴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파제는 주민들의 가장 고대하는 년중행사이다.

田公詞堂記

公姓田 諱橫也 古齊之公族也 當漢興齊亡之時 義不屈節 與五百人 人居于滄海國之 半洋山矣 漢恐其爲後患 遣使招之 公不得已與二客 至洛陽 自劉于霜花店 嗚呼公之赴招實非畏漢之威也 使島中之人 免其兵禍也 二客亦不受漢爵 作薤露歌 穿 公之塚 傍而死 島中五百人 與島樹同日同死 千萬古之 所未聞也 公之恩義 胡至此極乎 雖西山之採 東海之蹈 亦不踰此矣 半洋山 乃今之外烟島也 至于今 數千載 尚未建祠 但以石臺 爲享神之堂矣 居民限其節義 感其神明 斫代樹木 始建廟宇 設牲以祭 公之精靈宛然在上 豈不盛乎 豈不敬哉 繼而銘之日 一片孤島 萬古義魂 海若聽 令巨靈守 門衛魚龍 古窟風浪 不噴 居民殷富 水產盛繁 百世欽仰 永奠香鐺

丙子 十一月 日

16) 장고도 진대 서낭제

언제부터인가 뱀을 부락의 집단수호신(集團守護神)으로 삼아 그 뱀을 위한 제의(祭儀)를 거행할 무렵이면 임신부가 멀리 외딴 해막(解幕)으로 피신을 하여야 하는 마을 50여년 전 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해막(解幕) 혹은 산막(産幕)이나 이제는 충남지역내에서는 이곳에서 만이 찾아볼 수 있는 특정기간의 출산장소이다.

이러한 금기(禁忌)와 정성으로서 거친 바다 생활의 평안을 빌고 품의를 기원해 온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의 한섬 장고도는 어쩌면 충남의 제주도라 할 만큼 재래의 민속을 보존해 오는 섬마을이라 하겠다.

장고도는 동국흥지승람(東國興之勝覽)등의 문헌에 보면 장고도라 기록되어 있으나 왜정초에 이동명(里洞名) 명칭 기록에서 부터는 장고도(長古島)라 표기하여 왔다.

이곳은 오천항에서 출발하여 원산도를 거쳐 30분쯤 서북방으로 달리면 마치 가로 놓은 장구모양의 길쭉한 섬으로서 아마도 이 섬의 지형에 의해 장고도란 섬의 이름이 지어진 듯 하다.

박씨, 강씨, 편씨가 대부분인 이 섬에는 근70호의 가구에 4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1개 국민학교에 7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섬마을의 가장 큰 년중행사의 하나는 정초의 당제로서 이 당제를 진대서낭제라 부르고 있다. 진대란 뱀을 지칭(指稱)하는 경칭어로 충남도내에서 뱀을 주신으로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으나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파란뱀이 많다고 하며 주민들은 이 뱀을 죽이거나 쫓으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12간지에 의하면 뱀과 기목이(거먹이 돼지)가 상극이라 하여 성안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며 돈육을 먹으면 탈이난다 하여 외지에 나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곳의 진대서낭제는 정초 길일 택하여 거행되며 제주의 선정은 12월중순경 대동제에서 실시된다. 제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주가 아닌 사람 두해동안 사소한 불상사도 없었던 사람, 가내에 임신한 여인이 없는 사람, 제가 끝날때 까지 집안에 월경한 여인이 없는 사람, 제일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이라는 사람이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여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목욕을 하고 새옷을 갈아 입고 문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 잡인의 래입(來入)을 막으며 범방(犯房)을 금(禁)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먹지도 말아야 하는 등의 각종 금기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의 이러한 금기(禁忌)의 일부는 제가 끝난뒤 즉 다음 제주가 선정될 때까지 1년간 지켜져야 한다. 한편 부락의 부녀자들중 제주가 선정된 날로부터 제의가 끝나기 전에 출산할 기미가 있는 임부는 미리 해막으로 피신을 하여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제의가 끝난다음 귀가 하여야 한다.

충남도내에서 아직도 해막이 남아 있는 곳은 이 장고도 뿐으로 이곳의 해막은 원래 섬의 동북단 「대머리」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근년 정부의 독립가옥집단지주 시책에 따

라 1973년 7월 현재의 위치인 부락 서남측 장고 국민학교 곁에 다시 건립하였다. 당산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위치한 해막은 약 3평 정도의 분족벽에 스테이트 지붕을 얹었으며 2개의 방과 1개의 부엌이 있다.

한편 제(祭) 3일전 부터는 일반인의 동정(洞井)사용이 금지되고 다만 제주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일이 되면 각가(各家)의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고 새옷으로 갈아 입은 뒤 정결한 마음으로 제의(祭儀)가 거행될 시각을 기다린다.

제주는 제일 오전 9시쯤 제주를 비롯한 집사자(執事者)들이 상당(上堂)에 입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정오가 되면 입제(入祭)에 들어간다.

제를 마친 일행은 오후 3시쯤 하산하다가 도중의 하당에서 다시 제를 거행하게 되는바 이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船主)들은 선체내에 배가 없는 사람들은 집안의 장독대에 시루 청수(淸水)와 촛불을 켜놓고 지성을 다한다.

이를 「당맞이」라 하며 하당에서의 제가 끝나면 제주 일행이 제주택으로 직행하여 간단한 음복(飮福)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의를 마친 다음날을 「후럼날」이라하여 이날은 온주민이 모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 하루를 즐기고 부락총회에 들어가 부락의 대소사(大小事)를 논의하게 된다.

17) 장고도의 용왕제

용왕제란 용왕제(龍王祭)를 말한다. 어촌에서는 흔히 용왕(龍王)을 요왕, 유왕, 유황으로 칭하기 때문에 용왕제를 요왕제, 유왕제, 유황제라 부르고 있다.

이 요왕제는 항해의 안전을 용왕께 의탁하는 일종의 개인신앙이며 부녀자들에 의해 거행되는 의식으로서 장고도의 요왕제는 다른 어떤 어촌의 의식보다도 순수하고 정결하다.

음력 2월의 첫번째 진일(용날)이 되면 부정이 없는 부인이 정성껏 목욕을 한 후 새옷을 갈아 입고 시루떡 밥, 과일, 나물 등 제물을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면 부인은 만조(滿潮)를 기다려 그 제물을 이고 정결한 해변으로 나가 그곳에 켜이나 흰종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陳設)한 다음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각각 재배를 하고 용왕국을 향하여 요왕할머니를 수없이 부르며 계속 절을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용왕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 용왕을 향하여 「죽은 나무가로타고 다니면서 무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고사(告辭)를 반복하여 수없는 절이 끝나면 진설했던 제물을 섞어 백지에 세뭉치를 만들어 쓴다. 익사자의 수에 따라 뭉치를 증가시켜 싸기도 한다.

제물 뭉치를 던지면서 「진더이 받아 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 제물을 섞어 만든 뭉치를 「요왕짐」이라 한다.

그때 요왕짐이 가라 앉아야만 용왕의 음(陰)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 부인은 요왕짐이 가라앉기를 기구하게 된다. 반면 요왕짐이 물위에 뜨게 되면 용왕의 음우를 받을 수 없고 불길하다 하여 부인은 다시 목욕하고 재차 요왕제를 거행하여야 하며 그래도 물위에 뜰 경우엔 제일을 연기하여 요왕제를 지내게 된다.

즉 2월에 첫 진일이 두번이나 요왕짐을 받지 않을 경우엔 3월의 첫 辰日 만조시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왕제를 거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부터 요왕제가 무사히 끝날때 까지 늘 요왕짐을 잘 받아 주기를 기원하게 되고 이 의식이 끝나면 마지막 절차로서 제물을 한데 뒤섞어 여기저기 해변에 골고루 던지는 의식으로서 요왕제는 끝나게 된다.

18) 원산도의 성황제(城隍祭)

원산도내(元山島內)에는 여덟곳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곳 주민들의 외형적인 생활형태는 동일하지만 집단신앙의 내면은 마을마다 서로 다르다.

각각의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당산에 서로 다른 당신(堂神)을 모시고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의 집단제의를 거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 주민들의 신앙대상을 보면 고양 할머니 호랑이 말신 각씨신 지황신등 매우 같은 당제라 하더라도 제일이 일정치 않고 제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제의(祭儀)를 보통은 「망제」라 하지만 곳에 따라서 「당제 모신다」「진고개」「지황제」「사창」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의는 일반적으로 당산에 위치한 「당집」에서 거행하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당산에 의막(차일)을 설(設)하고 그 곳에서 제를 거행하는 곳도 있고 굳이 우물가에서 거행하는 마을(사창)도 있다.

이러한 원산도내의 묘우(당집)중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선촌의 묘우와 진촌의 묘우를 들 수 있다.

먼저 선촌의 당을 보면 당산 중턱의 소나무 숲속에 위치한 2평정도의 목조 와가(瓦家)로서 (당, 당집, 각씨방, 사당)이라 부르고 있는 이 당집은 한쪽이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고가로 짙은 고풍을 풍겨주고 있다.

이당집 용마루의 동측 귀면와에는 강희(康熙) 13년갑인 9월보령(九月保寧)이란 문양이 새겨져 있어 지금부터 삼백년전 청나라 강희 13년 즉 1674년에 보령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촌(鎭村)의 당집은 당산 정상에 시멘트 벽에 기와로 덮인 1평 정도의 묘우로서 「萬寧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현판의 좌측벽 윗부분에는 「원산신당중수기(元山神堂重修記)」라 새겨진 액판(額板)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역인간(歷人間)을 보호하는 것은 영(靈)이요 그 영이 거(居)하는 곳은 당(堂)이니 이곳 당에 영을 안치하고 그 영에게 풍어, 풍농, 우순풍조(雨順風調)와 제(諸) 질역을 물리쳐 주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액판(額板)의 말미에 「승정四丙午六月」이란 구(句)가 보이는데 이는 곧 1846(헌종(憲宗)12도광(道光)26) 병오년으로 이때 중수(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촌인 사당이나 진촌의 만령당은 원산도내의 대표적인 집단 제전처(祭典處)로서 짙은 고풍을 풍겨주고 있다.

그리고 마을마다 거행하고 있는 당제의 대상신(對象神)을 보면 마을마다 독특한 신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촌(船村)에서는 그들의 당신(堂神)을 「산신, 당산할머니, 혹은 각씨신」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대상신이 산신이며 그 신은 여신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촌의 경우는 마(馬)를 대상신으로 하고 있으며 초전에서는 「고양 할머니」「수신」「지황신」「산신」「호」등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신은 대부분 여성신으로 신당에 여자의 옷이나 화장품을 바치고 있다. 따라서 신을 표시하는 신체(神體)도 마을에 따라 다르다.

초진의 예를 들면 초진의 당집에는 진흙을 빚어 만든 고양이 상을 모시고 「고양이할머니」라 부르는데 이 고양이는 뒷다리중 한쪽 다리가 없어진 것으로 고양이의 뒷다리가 없어진 이유를 「마을에 호랑이가 침범했을때 고양이가 쫓아 내다가 한쪽다리를 잃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받드는 고양이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편 진촌의 당신은 말로서 「말서낭」이라 하고 땅내의 신주로 철제 마상을 안치해 두었으나 모두 도난당하고 지금은 사제인지 도제인지 알 수 없는 각종 동물상11점(動物像 十一點)이 당사내 선반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동물상은 매년 당제를 거행할 때마다 한개씩 만들어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제전에 동물상을 바친 이유는 생폐례제의 일종으로 제시(祭時)마다 신을 위하여 생폐로서 동물을 한마리씩 바쳐야 하는데 매년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산동물 대신 흙으로 동물을 만들어 바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동물상은 산동물을 대신하는 모조동물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물이 다르고 그 제의 대상신이 서로 다른 원산도의 각 마을에서는 그 제의(祭儀)의 일자 또한 각기 다르다.

그러나 당제는 정초에서 중순경에 택하여져 행해지고 있으며 제주를 선정된 날로부터 부정이 있을 경우 다음날로 연기된다. 제주는 부락의 성인남자중 각종의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 결정하는데 보통 제10~15일전에 대동계에서 구두호천으로 결정한다.

제주는 선정날부터 대문에 금줄을 늘이고 문전에 황토를 퍼 잡인과 부정의 래입(來入)을 금하여 자신도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금기사항을 지키는데 대부분 제가 끝나면 금기도 해제되나 곳에 따라 1년동안 지켜지기도 한다.

한편 주민들도 부정을 금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집안팎을 깨끗이 한다. 특히 제기간 동안에 산고(産故)가 예상되는 부녀자는 타부락으로 피신하여 제가 끝난 뒤에 돌아오는데 진촌의 경우엔 「액막이랑」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하였다.

제의(祭儀)는 보통 곳에 따라 2차당제를 거행하기도 한다. 제물은 매, 탕, 시주, 조라, 포, 과일 등을 비롯해서 우(牛)1두나豚 1두를 진설하는데 이때의 경비는 대동계에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각호에서 추렴하여 충당한다.

제의를 절차는 극히 간소화 하였으나 선촌의 예를 들면 대단히 거창하다. 먼저 당산에서 1차 제의를 거행하고 당산 기슭에서 마을곳을 거행한다. 이 곳은 내륙으로 부터 초치(招致)된 10여명의 단골 무당과 광대들에 의해 하룻밤 이틀낮 동안 무당의 열두거리곳을 비롯하여 광대들의 각종 기예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이 마을에서 제주와 부정이 없는 몇사람이 제당에 올라 간단한 제를 올리고 하산하여 제주실에 모여 마을 사람들과 음복(飮福)을 하고 허식(許食)을 하는 과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거짐같은 마을에서는 제 다음날을 「후렛날」 「후령날」이라 하여 이날 하루를 전 주민이 모여 먹고 마시며 즐기기도 한다.

19) 靑羅, 蟻坪(갯밭) 장승 巨木祭

이 마을은 동쪽 명산 성주산을 뒤에 하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벌판 고려말 김성우(金成雨)장군이 왜구(倭寇) 초토사가 되어 대천어항(漁港)군두리로 육해군을 이끌고 들어와 이 지역에 술한 신화적 지명(地名)을 남기여 놓은 지역중의 격전지였던 이곳 의평(蟻坪) 벌 흑색복장의 왜구를 수없이 무찔러 그 시신이 개미집더미 같았다는 갯밭 마을이다. 원거인 씨족 전주이씨를 위시하여 각성씨 집성촌으로 이루어오기 600여년 현재 100여호가 넘는 큰마을이다.

이 마을도 성주산신(聖住山神)을 모시는 산중턱에 자리한 산신당(山神堂)이 있었고 마을 앞에 장승내의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을 세워 장승제를 올리고 마을북판에 정좌나무(巨木느티나무) 600여년 넘었다. 현재 郡나무로 지정 목신제를 매년 정월 초 5일을 제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오는 마을이다.

1) 선달 보름기를 기하여 동네 어른들이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堂主) 및 제주들을 뽑아 정한다. 각기 책임을 맡은 당주와 제주들은 부정을 막는 금기사항을 엄히 지켜야 한다. 또한 맡은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2) 재정 다음은 동네 풍물패를 앞세우고 걸립(乞粒)에 나선다. 집집에서는 현곡으로 형편에 따라 내여준다. 현금도 내여준다. 모인 재산을 처분하여 당주(堂主)에게 전한다.

3) 당주는 農者は 天下之大本이라 쓴 용대기를 장대 높이 집앞에 꽂아놓고 문앞 양옆에 황토놓고 금줄을 친다. 뽑힌 당주와 제관들은 매일 내외(內外)간이 각기집에서 목욕재제하고 부정한 곳도 가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 동네 사람들도 선달 그믐날에는 다같이 당샘을 품어내고 주변을 청소한 다음 제삿날까지 뚜껑을 덮어놓고 당주집에서만 제수 준비에 사용하게 한다. 이 동네 사람 전체는 선달 그믐날 집안청소와 동네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마을입구로부터 장승백이 정좌나무 등 산신당 오르는 길목에 금줄을 치고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정초여서 누구나 부정한 곳도 가지도 않고 맑은 몸가짐을 간직하여 동제(洞祭)를 맞이한다.

4) 당주집에서는 제사준비로 제주를 넉넉히 담그고 10여년에 한번씩 장승을 새로 바꾸게 되는 해는 아침부터 복새를 이루는 사람들의 먹이장만도 동네 부정이 없는 부인들이 와서 거든다. 또한 당일예 상당신(山神堂)제 하장승제 마지막으로 목신(木神)제 이 세군데 제물 준비도 만만치는 않았다고 한다.

5) 제의는 유교식으로 행사하는 바 정월 초닷새날 초저녁에 산신제를 지내고 다음은 장승제 마지막으로 마을 북판 목신제를 지내게 되는 바 온동네 노소가 모이고 풍물패를 앞세워 치루어지는 이 제례 행사가 밤새는 줄 모르고 흥겨운 한밤이 된다.

6) 그러나 이 마을에도 1960년대부터 지하자원으로 무연탄이 매일 생산량이 수천톤씩 생산되고 자연 한산 인부들이 운집(雲集)하면서 그 가족도 늘어나고 또한 광산업주들이 주관하는 산신제 등으로 밀려 동민합심으로 지내오던 산신제도 없어지고 동네입구에 세워

진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두 내외 신장도 자연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없어졌고 다만 동네 복판 거목 목신제 만은 옛날 그대로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7) 제물 삼색실과 어포 소채탕 백설기시루 돼지머리(익혀서) 메 국을 진설하고 제주를 올리게 된다.

8) 제례 초헌관이 분향하고 모든 헌관 및 참석자 전원이 재배한다. 초헌관이 헌작하고 축관이 메의개를 열고 삼시한 다음 독축을 한다. 초헌관이 재배하고 퇴주하고 나오면 아헌관이 헌작 재배한다.

다음은 메의개를 덮고 헌관 및 일등이 재배하고 축관은 초헌관에게 음복례를 하고 축문 망요례를 끝으로 대동소지를 위시하여 제관순서로 동네집집의 세대주 성명을 호명 일일이 새해 신수대통을 빌고 모든 재액을 쫓아주고 대동화목과 행운을 빌어준다.

9) 이마을도 1990년부터 많이 생산되든 무연탄도 바닥이 나고 정부에서 합리화로 자연광산도 끝나면서 한때 흥청이든 세월도 가고 옛터전을 지켜오던 원주민(原住民) 많이 지키고 있는 의평마을이다.

祝文은 옛부터 내려오는 山神祝文을 계속하여 쓰고 있다.

祝文 內容 別紙

現在 會長團 韓相憲・鄭相麟・申光浩・李潤九・趙英元

20) 보령군 성주면 화장골 수목제

오랜 지방문화를 간직하고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10만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여 그 전야제로 이어지는 성주 화장골에서 수목제, 청소국민학교 교정에서 풍년제, 오천항에서 풍어제를 지낸다.

이와같은 토속적 민속신앙의 행사광경과 제의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祝 文>

維 檀紀四千三百二十五年 歲次壬申 九月庚辰 朔 三十日己酉

山林組合 常務理事 朴준圭는 名山大川 神靈님께 삼가 告하나이다.

英明하신 神靈님이시여 예로부터 이 고장은 水紫水明하고 深深幽谷에 樹木이 鬱鬱蒼蒼하여 林産資源과 地下資源이 豊富하여 景色을 자랑하는 由緒깊은 곳이기에 自古로 많은 明賢碩德이 輩出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萬歲保寧 榮華之地라 이름하여 내려옵니다.

우리 十萬郡民은 神靈님의 保佑하신 恩德으로 安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人間들은 感應할 따름이옵니다.

祈願하옵컨대 歲歲延年 人間과 더불어 六畜의 生命까지도 安全을 지켜주셔서 家家戶戶 기쁨과 웃음으로 和合하고 生業에 從事하여지도록 神靈님께서 恩窮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을 擇하여 여기 祭壇을 모으고 精誠을 다하여 牲幣 庶品을 올리오니 歆饗하시옵소서.



祝

又一維

歲次庚寅正月癸未朔五日丁亥幼學。敢昭告于

聖佳山神之靈曰

山名錫佳
崇天之聖

儼立導像
拱抱吉星

震々洋洋々
鎮我一村

仁以生民

孝悌順信

壽富康寧

木杳登樓

德以保民

惟靈所導

惟靈所佑

惟靈所助

蓮桂香名

弄璋與瓦

福善省惡

三灾八亂

惟靈所賜

惟靈所俯

惟靈所保

於斯敢售

五勞七傷

居此山下

寢有常祀

載牲以簡

於斯敢肆

影贍莫報

元正晨良

灌酒以清

恭祝虔告

神既格思

伏惟庶歆尚

祥雲降靈

人敢射思

饗

21) 보령군 청소면 풍년제

<祝 文>

壬申 九月 三十日 祭主 金完鎭은 이곳 車嶺山脈의 기슭으로 太古以來 이 고장을 지켜주시고 歲歲延年 豐年으로 이끌어 주신 神農님께 삼가 告하나이다.

英明하신 神農님이시여 예로부터 이 고장은 山水가 秀麗하고 人心이 溫厚하여 살기 좋은 萬世之保寧으로 保佑해 주시고 今年에도 災殃없는 大豐의 恩寵을 내려주셨으니 郡民 모두가 感泣할 따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明年에도 豐年을 이루어 집집마다 豐饒롭고 和合의 웃음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神農님께 恩寵에 感謝하옵고 郡民의 精誠으로 飲食을 차려올리오니 歆饗하십시오.



22) 보령군 오천항 풍어제

1) 풍어제 광경



土 俗 文 化

(1000가지 土俗信)

土 俗 文 化

(1000가지 土俗信)



이 토속문화 1000가지(토속신앙)를 속신이다. 미신이다라고 우습게 생각마시고 가정주부 규수들께서는 꼭 한번이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튼 잡지에 비할 수 만은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필독의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편집자 윤 원 석—

1. 결혼(結婚)

1. 혼인날 비가오면 불길하다.
2. 혼인날 눈이 오면 부자가 된다.
3. 혼인날 마당에 차일을 얹치면 해를 입는다.
4. 혼인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잘 살 수 없다.
5. 혼인날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
6. 혼인날 신랑이 웃으면 첫 아들을 낳는다.
7. 신방의 촛불을 손으로 끄지 않고 입으로 불면 복 달아난다.
8. 첫날 밤에 문 열어 놓고 자면 복달아난다.
9. 혼인 첫날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에게 말 대답한다.
10. 노총각이 남의 혼인집 음식을 먹으면 장가는 더 늦어진다.
11. 선달 결혼은 행복하지 못하다.
12. 신랑의 가마가 들어올때 굴뚝에 서있으면 재수 없다.
13. 신랑의 가마가 들어올때 처마끝에 서 있으면 재수 없다.
14. 시집가는날 술뚜껑을 만지고 가야 잘 산다.
15. 신부를 돕는 사람은 임신부나 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16. 시집갈때 꿀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면 딸을 많이 낳는다.
17. 6월의 혼인은 불행하다.
18. 처녀가 상위에 바가지를 올려 놓으면 시집을 늦게 간다.
19. 첫날밤에 밖에 나가면 복 달아난다.
20.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를 먼저 벗기면 암종다.
21. 춘삼월에 결혼하면 행복하다.
22. 함속에서 붉은 옷을 먼저 꺼내면 첫아들 푸른옷을 꺼내면 첫딸을 난다.
23. 함속의 염낭에서 콩이 나오면 딸을 낳는다.
24. 혼인날 신랑가는 길에 상주를 보면 부정탄다.

2. 임신(妊娠)

- 25. 임신부가 방고칠때 구들을 넘어가면 재보를 난다.
- 26. 임신부가 절구통에 앉으면 재보를 난다.
- 27. 임신부가 개고기를 먹으면 앓는다.
- 28. 임신부가 오리고기 먹으면 손가락이 붙은 아이를 낳는다.
- 29. 임신부는 상가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 30. 임신부가 말 고삐나 새끼줄을 넘어서는 안된다.
- 31. 임신부는 시루나 무거운 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32. 임신부는 쪽 밥을 먹지 않는다.
- 33. 임신부는 몸속에 불결한 것을 품고자면 앓는다.
- 34. 임신부는 무너진 담장을 넘지 않는다.
- 35. 임신부는 벌레먹은 과일이나 껍질어진 과일을 먹어서는 안된다.
- 36. 임신부가 남을 속이면 아이가 거짓말 한다.
- 37. 임신부가 담을 넘으면 어린이가 도둑된다.
- 38. 임신부가 닭발을 먹으면 아이가 닭발된다.
- 39. 임신했을때 우물이나 굴뚝을 고치면 아이에게 해롭다.
- 40. 임신부가 부엌비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 난다.
- 41. 임신부가 죽은 사람을 보면 앓는다.
- 42. 임신부는 동물을 죽일때 보아서는 안된다.
- 43. 임신했을 때 집을 고치면 해롭다.
- 44. 임신부가 남을 미워하거나 흠을 잡으면 어린이가 그렇게 된다.
- 45. 임신부가 밧줄을 넘으면 열 두달만에 아이를 낳는다.
- 46. 임신부가 숯불을 피우면 좋지 않다.

3. 출산(出產)

- 47. 미역을 날것으로 먹어서는 아니된다.
- 48. 부정한 사람이 산실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49. 첫 이래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 50. 산후 삼칠일안에 사람이 들어오며 부정탄다.
- 51. 이웃집에서 출산하면 팔래를 하지 않는다.
- 52. 산후 21일간은 금줄을 쳐야 한다.
- 53. 한집에서 두 사람이 출산하면 한 사람이 친다.

4. 사망(死亡)

- 54. 혼인을 앞둔 집은 상가에 가지 않는다.

55. 초상이 나면 장례가 끝날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는다.
56. 사람이 죽으면 고양이가 못 들어가게 아궁이를 막는다(만약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선다고 믿어왔다).
57. 상가에서는 탈복할때까지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는다.
58. 사람이 죽었을때 기름냄새를 풍기면 해를 입는다.
59. 관위로 칼을 넘기면 시체가 일어선다.
60. 상가는 장례를 마칠때까지 마당을 쓸지 않는다.
61. 상여가 나갈때 우물을 덮지 않으면 물이 마른다.
62. 상중에 이웃에서 바느질하면 그집은 망하다.
63. 상주가 새옷을 입으면 저승의 부모님이 걷는 길이 어둡다.
64. 어린이는 시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65. 염할때 시체위로 칼을 넘기면 아니된다.
66. 객사(외출중 사망)했을때는 시체를 방으로 모시지 않는다.
67. 시체를 산 사람이 넘어 다녀서는 않된다.
68. 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문 밖에서 짚불을 쏘여준다.
69. 상가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린다.
70. 상중에 빨래를 넣어두면 우환이 든다.

5. 식사(食事)

71. 밥상 모서리에 앉으면 모난소리 듣는다.
72. 누어서 밥을 먹으면 아니된다.
73. 다리를 뻗고 밥을 먹으면 가난하다.
74. 마루에서 밥을 먹을때는 방문을 열어 놓는다.
75. 문지방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빌어 먹는다.
76. 문지방에 식기를 올려놓고 먹으면 귀머거리 된다.
77. 바가지를 밥상위에 올려 놓으면 가난하다.
78.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면 가난해진다.
79.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차례 이사한다.
80. 밥그릇을 손에 받치고 먹으면 가난하다.
81. 밥먹을때 밥그릇을 겹쳐놓고 먹으면 줄 초상난다.
82. 밥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83. 밥먹을때 수저 든 손을 흔들면 복 달아난다.
84. 밥먹은 자리에서 즉시 누우면 아니된다.
85. 밥먹을때 턱을 고이고 먹으면 복 달아난다.
86. 밥먹다가 수저를 떨어 뜨리면 재수없다.
87. 밥먹고 수저를 상위에 놓을때 소리가 나면 아니된다.

88. 밥을 비벼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면 체증이 없어진다.
89. 밥상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부부 싸움한다.
90. 밥상앞에서 울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91. 밥그릇을 깨끗이 먹지 않으면 복다라난다.
92. 밥그릇에 물을 부어 먹지 않으면 복 다라난다.
93. 밥먹은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면 복 다라난다.
94. 밥상을 삼년간 한손으로 밀거나 당기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95. 수저를 짧게 잡는 처녀는 가까운곳에 멀리 잡을 때는 멀리 시집간다.
96. 식사중에 변소가면 복달아난다.
97. 식사중에 말을 많이하면 해롭다.
98. 식사중에 밥을 많이 흘리면 복달아 난다.
99. 밥먹을때 밥그릇의 뒷면부터 먹으면 도둑된다.
100. 식사하면서 이를 보이면 가난해 진다.
101. 식사 도중에 청소하면 빌어 먹는다.
102. 식사중에 입안의 음식이 보이면 아니된다.
103. 음식을 문턱에 놓았다 먹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104. 음식을 칼로 베어 먹으면 아니된다.

6. 여성의 예절(禮節)

105. 손에 가루를 무치고 밖에 나가면 재수없다.
106. 깨진 거울을 보면 근심이 생긴다.
107. 고부간에 화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108. 떡을 가지고 장난하면 꿈보신랑 얻는다.
109. 떡찌다가 변소가면 떡이 설익는다.
110. 말머느리가 외출이 찾으면 집안이 망한다.
111.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 집의 장맛이 쓰다.
112.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남편이 재수 없다.
113. 여자가 밤에 머리를 빗으면 팔자가 사납다.
114. 여자가 밤에 머리 빗고 변소에 가면 귀신이 모인다.
115. 여자가 밤에 거울을 보면 꿈보신랑 얻는다.
116. 밤화장하고 자면 혼이 나간다.
117. 벼개를 깔고 앉으면 소박 맞는다.
118. 여자가 새벽에 보이면 재수 없다.
119. 시아버지 앞에서 젓을 먹이면 아니된다.
120. 시집가서 큰 그릇을 깨면 재앙이 생긴다.
121. 시집가서 사발을 깨면 계속 켤다.

122. 여자가 아침에 큰 소리 내면 재수 없다.
123.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신을 신으면 후생에 그 사람과 부부가 된다.
124. 여자가 남자의 길을 앞질러가면 재수 없다.
125. 여자가 책을 넘으면 공부를 못한다.
126.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127.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그 남자의 허리가 아프다.
128. 여자가 자면서 발장난 하면 시집가서 쫓겨난다.
129. 여자가 휘파람 불면 팔자가 사납다.
130. 여자의 소리가 담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131. 여자가 다듬이돌 위에 앉으면 쫓겨난다.
132. 여자가 문지방을 베고자면 평생 다른집은 구하지 못한다.
133. 여자가 치마를 태우면 부모와 이별한다.
134. 여자가 임신중에 화로를 넘으면 불효를 낳는다.
135.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복이 나간다.
136. 여자가 숲속에서 소변을 보면 뱀을 낳는다.
137.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을 못간다.
138. 처녀가 머리를 풀고 부엌에 들어가면 생전 고생한다.

7. 잠자는 자세(姿勢)

139. 누어서 발을 벽에다 올려놓고 자면 아니된다.
140. 밤에 하늘을 보고자면 입이 뻐뚱어 진다.
141. 밤이슬을 맞고자면 입이 돌아간다.
142. 머리를 북쪽으로 두르고 자면 복 달아난다.
143. 벼개를 높게 베고자면 빨리 죽는다.
144. 여자가 이마에 손을 얹고자면 남편이 죽는다.
145. 아랫목에 머리를 두르고 자면 해롭다.
146. 아침에 엎드려자면 복이 나간다.
147. 버선을 머리말에 벗어놓고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
148. 입을 벌리고 자면 복이 나간다.
149. 이를 갈면서 자면 복이 나간다.
150. 발을 포개고 자면 복이 나간다.
151. 팔을 베고자면 가난하다.
152.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다.
153. 허티띠를 맨채로 자면 귀신이 저울질하고 저울질할때 떨어지면 죽는다.

8. 정직성(正直性)

- 154. 거짓말 하면 엉덩이에 빨난다.
- 155. 길에서 칼을 주어오면 동티난다.
- 156. 나이를 줄이거나 늘이면 쉬 죽는다.
- 157. 호박을 훔치면 죽을때 호박같이 붉는다.
- 158. 머리빗을 주어오면 재수있다.
- 159. 도둑을 맞고 물고기의 눈에 바늘을 꽂으면 도둑의 눈이 먼다.
- 160. 임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고하면 병어리를 낳는다.

9. 일상생활(日常生活)

- 161. 간난아이에 꿀을 많이 먹이면 말을 더디 배운다.
- 162. 손톱을 밖에 버리면 올빼미가 먹는다.
- 163.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효성이 적어진다.
- 164.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부모의 상에도 올지 않는다.
- 165. 풀을 먹이면 바보가 된다.
- 166. 김치를 잘먹는 사람은 기와집에서 살 수 있다.
- 167. 나무를 잘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 168. 남들이 손을 잡고갈때 그 가운데를 뚫고가면 재수 없다.
- 169. 남에게 악담하면 그 악이 되돌아 온다.
- 170. 어른에게 인사할때 맨발이면 아니된다.
- 171. 남에게 침을 뱉으면 버짐이 난다.
- 172. 남을 비웃으면 입이 삔뚫어진다.
- 173.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으면 그집과 사이가 멀어진다.
- 174. 남의 곡식을 먼저 가져다 먹으면 죽어서 소가 된다.
- 175. 남의 몸을 넘어가면 재수가 없다.
- 176. 낮에 대문을 잠그어 놓으면 재산이 늘지 않는다.
- 177. 누른밥을 좋아하면 다시 그집에 태어난다.
- 178. 늦잠이 많은 사람은 가난해진다.
- 179. 다듬이 돌을 베고자면 입이 삔뚫어진다.
- 180. 다듬이 돌에 앉으면 치질이 생긴다.
- 181. 다듬이 돌위에 앉으면 앓은뱅이가 된다.
- 182. 다듬이 돌위에 먹을것을 놓았다 먹으면 귀먹어리가 된다.
- 183. 다리미질을 끌고루하지 않으면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
- 184. 떡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 185. 뒷박으로 동냥을 주면 가난해진다.

186. 두사람이 한대야에서 손을 씻으면 싸운다.
187. 뜨거운 물건을 잘 드는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는다.
188. 마을의 느티나무(당산나무)를 베면 동티난다.
189. 모자를 쓰고 식사하면 가난해진다.
190. 문턱을 밟으면서 넘어다니면 재수가 없다.
191. 물건을 주었다 빼앗으면 이마에 빨난다.
192. 밤에 휘파람불면 뱀이 나온다.
193. 밤에 휘파람불면 호랑이가 나온다.
194. 밤에 휘파람불면 도둑이 든다.
195. 밤에 손톱을 깎으면 인정없는 사람이 된다.
196. 밤에 휘파람불면 귀신 나온다.
197. 밤에 손톱을 깎으면 복 달아난다.
198. 밤에 손톱깎으면 올빼미가 눈알 빼간다.
199. 밤에 다듬이질하면 우환이 든다.
200. 밥먹을때 다듬이질하면 귀먹는다.
201.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예뻐진다.
202. 부모의 출상중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203. 부엌 바닥에 침을 뱉으면 죄가 된다.
204. 아궁이에 먹을것을 버리면 가난해진다.
205. 불때면서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그 빗자루가 도깨비된다.
206. 부엌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빗지고 산다.
207.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싼다.
208. 비올때 머리감으면 부모상때 비온다.
209. 비오는날 머리감으면 비오는날 죽는다.
210. 빈다듬이돌을 두드리면 가난해진다.
211. 사다리밧을 지나면 복이 나간다.
212. 남의 머리를 넘어가면 키가 크지 않는다.
213. 삶은 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쪼든다.
214. 쌀을 볶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
215. 새벽잠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
216. 생쌀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217. 벼를 까 먹으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다.
218. 선달 그믐날 밤에자면 눈썹이 켜진다.
219. 소고빼는 넘지말고 밟으면서 지나야 한다.
220. 손톱을 씹으면 아니된다.
221. 손톱을 깎아서 불에 태우면 아니된다.

222. 술뚜껑위에 바가지 얹어 놓으면 도둑이 든다.
223. 남자가 시루밑의 떡을 끓어 먹으면 곰보아내를 얻는다.
224. 아침일찍 집안을 청소하면 평화롭다.
225. 어두울때 빨래하면 동네가 망한다.
226. 어릴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227. 어른에게 눈을 흘기면 사팔뜨기 된다.
228. 아이들이 어른의 신발을 신으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
229. 어린이가 어른의 모자를 쓰면 키가 작아진다.
230. 어린이가 담배를 피우면 뼈가 삭는다.
231. 어린이가 꿩알을 먹으면 입이 뻐뚱어진다.
232. 여자가 새고기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233. 참외밭 근처에서 신끈을 바로매면 도둑으로 의심 받는다.
234. 우물에다 소변보면 벼락맞는다.
235. 우물가에 밥알을 떠내려 보내면 삼대를 빌어 먹는다.
236.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쪽니가 난다.
237. 자식에게 악담하면 악담처럼 된다.
238. 밤에 남에게 불을 빌려주면 복이 달아난다.
239. 밤에 다리미를 빌려주면 그 처녀는 시집을 못가고 바람이 난다.
240. 밤에 집밖으로 쌀을 내어가면 복이 달아난다.
241. 밤에 다듬이질하면 머슴이 집을 나간다.
242. 밤에 다듬이질하면 노인이 죽는다.
243. 절구통앞에 둘러앉으면 종기가 난다.
244. 절구통에 앉으면 게을러진다.
245. 절구통에 앉으면 재수 없다.
246. 정월 초하룻날 싸우면 일년 내내 싸울일이 생긴다.
247. 정월 보름날 아침에 대청소하고 오물을 태우면 연중화재가 안난다.
248. 정월 초하룻날 울면 일년 내내 울일이 생긴다.
249.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아니된다.
250. 주걱으로 술을 두드리면 가난해진다.
251. 집안 어른이 식사할때 머리를 빗으면 해롭다.
252. 첫번째로 부친 적을 처녀가 먼저 먹으면 시집 못간다.
253. 칼을 부뚜막위에 그냥 놓으면 부정 탄다.
254. 콩나물 죽을 삼년 쭈어 먹으면 부자가 된다.
255. 한 방에 불을 두개 키면 싸운다.
256. 호박씨 까 먹으면 이가 생긴다.
257. 화를 잘 내면 일찍 죽는다.

10. 꿈

- 258. 꿈에 물을 보면 술이 생긴다.
- 259. 꿈에 별이 품안으로 들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 260. 꿈에 비를 맞으면 술이 생긴다.
- 261. 꿈에 손으로 해를 잡으면 운수가 좋아진다.
- 262. 꿈에 여자가 가슴에 해를 안으면 아들을 낳는다.
- 263. 꿈에 큰 화재를 당하면 부자가 된다.
- 264. 꿈에 하늘에 오르면 벼슬을 한다.
- 265. 꿈에 결혼하면 불길하다.
- 266. 꿈에 곱게 차리고 나가면 신변에 해롭다.
- 267. 꿈에 남자가 중이되면 불길하다.
- 268. 꿈에 머리와 수염이 빠지면 근심이 생긴다.
- 269. 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병이 생긴다.
- 270. 꿈에 윗이가 빠지면 아버지가 아랫이가 빠지면 어머니가 앞이가 빠지면 손아래가 어금니가 빠지면 손위사람이 죽는다.
- 271. 꿈에 입에 상처를 입으면 집안이 망한다.
- 272. 꿈에 입이 막혀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급한 병에 걸린다.
- 273. 꿈에 여자를 보면 구설을 듣는다.
- 274. 꿈에 눈섭이 떨어지면 병으로 고생한다.
- 275. 꿈에 눈섭을 깎으면 이사간다.
- 276. 꿈에 장님을 만나면 매사에 되는일이 없다.
- 277. 꿈에 살이 많이 찐 사람이나 너무 마른 사람을 보면 흉하다.
- 278. 꿈에 본 사람이 옷을 벗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 279. 꿈에 손가락을 끊으면 자식에게 병이 생긴다.
- 280. 꿈에 손가락이 부러지면 자식에게 불길하다.
- 281. 꿈에 어린이를 안으면 근심이 생긴다.
- 282. 꿈에 웃으면 우는일이 올면 웃는 일이 생긴다.
- 283. 꿈에 이를 빼면 사람이 죽는것을 본다.
- 284. 꿈에 노래부르고 춤을 추면 구설수가 있다.
- 285. 꿈에 코피가 나면 재수가 좋다.
- 286. 꿈에 오른팔이 부러지면 아버지와 형제 또는 자손에 해롭고 왼팔이 부러지면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불행하며 양쪽 팔이 부러지면 큰 병에 걸린다.
- 287. 꿈에 가마를 타면 기쁜일이 생긴다.
- 288. 꿈에 거울이 깨지면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
- 289. 꿈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재수가 없다.
- 290. 꿈에 칼을 얻으면 재수가 없다.

291. 꿈에 고기를 먹으면 병이 생긴다.
292. 꿈에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안이 망한다.
293. 꿈에 떡을 얻어 먹으면 감기 걸린다.
294. 꿈에 밥을 먹으면 감기 걸린다.
295. 꿈에 방고래가 무너지면 집안이 망한다.
296. 꿈에 배를 먹으면 벼슬을 한다.
297. 꿈에 부엌에서 술이 깨어지면 흉한일이 생긴다.
298. 꿈에 부엌에서 돌이 일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299. 꿈에 술이 취하면 병이 든다.
300. 꿈에 옷을 입으면 재수가 없다.
301. 꿈에 용을 보면 재수가 좋다.
302. 꿈에 달을 보고 임신하면 아들을 낳는다.
303. 꿈에 관을 가지고 집에 오면 관록이 있다.
304. 꿈에 귀인으로부터 칼을 받으면 벼슬을 한다.
305. 꿈에 귀인에게 절을하면 대길한다.
306. 꿈에 귀인을 만나면 좋은일이 생긴다.
307. 꿈에 귀인이 관을 주면 대길한다.
308. 꿈에 남에게 옥을 당하면 재물을 얻는다.
309. 꿈에 남에게 천한 일을 당하면 좋다.
310. 꿈에 남편을 안으면 큰 재물을 얻는다.
311. 꿈에 도적이 되면 구하는 바를 얻는다.
312. 꿈에 머리가 세면 장수한다.
313. 꿈에 머리를 빗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314. 꿈에 머리카락이 다시나오면 오래 산다.
315. 꿈에 멀리 여행하면 매우좋다.
316. 꿈에 목욕하면 벼슬이 오른다.
317. 꿈에 몸에서 피가나면 재수가 있다.
318. 꿈에 몸이 날으거나 하늘에 오르면 운수 대통한다.
319. 꿈에 몸이 물속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도와준다.
320. 꿈에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성공한다.
321. 꿈에 발을 씻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322. 꿈에 부부싸움하면 화합한다.
323. 꿈에 부부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
324. 꿈에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면 행복이 열린다.
325. 꿈에 부인을 포옹하면 기쁜일이 생긴다.
326. 꿈에 사람을 만나서 서로 울면 좋은일이 있다.

327. 꿈에 얻어맞으면 힘이 생긴다.
328. 꿈에 사람을 죽이면 부자가 된다.
329. 꿈에 칼에 찔려 피가나면 운수대통한다.
330. 꿈에 사람이 죽으면 재수가 있다.
331. 꿈에 자기가 죽으면 좋은일이 생긴다.
332. 꿈에 세수하면 근심이 생긴다.
333. 꿈에 입에서 피가나면 술이 생긴다.
334. 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좋은 소식이 온다.
335. 꿈에 죽은 사람이 관밖으로 나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336. 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재물을 얻는다.
337. 꿈에 통곡하면 기쁜일이 있다.
338. 꿈에 형제가 싸우면 대길한다.
339. 꿈에 거울을 얻으면 좋은 아내를 얻는다.
340. 꿈에 관을 쓰고 높은 산을 오르면 벼슬이 높아진다.
341. 꿈에 금을 주으면 재수가 있다.
342. 꿈에 도끼로 나무를 베면 큰 돈이 생긴다.
343. 꿈에 도끼와 칼을 얻으면 벼슬을 한다.
344. 꿈에 독의 물이 넘치면 재물이 들어온다.
345. 꿈에 바늘과 실을 얻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346.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운이 트인다.
347. 꿈에 버선을 만들면 부지런해진다.
348. 꿈에 글을 배우면 벼슬길에 오른다.
349. 꿈에 새로운 벼슬을 하면 귀한 자식을 얻는다.
350. 꿈에 수레를 타면 좋은 일이 생긴다.
351. 꿈에 신발을 얻으면 좋은 일이 있다.
352. 꿈에 여자가 칼을 빼면 자식을 얻는다.
353. 꿈에 저울질하면 재수가 있다.
354. 꿈에 독에 물을 담으면 좋은 일이 있다.
355. 꿈에 가지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356. 꿈에 감과 복숭아를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357. 꿈에 자기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 성공한다.
358. 꿈에 대추를 따먹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359. 꿈에 물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
360. 꿈에 옷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
361. 꿈에 우물을 파면 재수가 있다.
362. 꿈에 죽은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

363. 꿈에 집위에다 집을 지으면 큰 벼슬을 한다.
364. 꿈에 집을 고치면 재수가 있다.
365. 꿈에 팔죽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366. 꿈에 흰옷을 입으면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367. 꿈에 거북이가 집이나 우물안에 들어오면 재운이 있다.
368. 꿈에 공작을 보면 대길하다.
369. 꿈에 과일을 따서 치마폭에 감추면 큰 아들을 낳는다.
370. 꿈에 나무를 태우면 부자가 된다.
371. 꿈에 난초의 꽃이피면 미인을 낳는다.
372. 꿈에 황소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373. 꿈에 단풍을 보면 가정이 화목하다.
374. 꿈에 당나귀를 타면 재물을 얻는다.
375. 꿈에 돼지를 보면 재수가 있다.
376. 꿈에 돼지새끼를 낳은것을 보면 운수 대길한다.
377. 꿈에 말을 타고 달리면 기쁜일이 있다.
378. 꿈에 뱀을 보면 돈이 생긴다.
379. 꿈에 뱀이 사람을 물면 재물이 생긴다.
380. 꿈에 부인이 비둘기를 보면 기쁜일이 생긴다.
381. 꿈에 붉은 고추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382. 꿈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대길한다.
383. 꿈에 소나무를 보면 벼슬을 할 징조이다.
384. 꿈에 수닭을 보면 성공한다.
385. 꿈에 숲속에서 나무가 올라오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386. 꿈에 오곡이 쌓이면 재물이 생긴다.
387. 꿈에 용을 타고 물에 들어가면 운수대통한다.
388. 꿈에 용을타고 하늘을 오르면 귀한 벼슬을 한다.
389. 꿈에 임신한 사람이 용을 보면 큰 인물을 낳는다.
390. 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벼슬을 한다.
391. 꿈에 제비를 보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
392. 꿈에 큰 나무가 썩어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
393. 꿈에 땅을 갈면 부자가 된다.
394. 꿈에 무덤위에서 꽃이피면 좋은 일이 생긴다.
395. 꿈에 무덤을 보면 술이 생긴다.
396. 꿈에 무지개를 보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397. 꿈에 옷을 태우면 재수가 없다.
398. 꿈에 우물속에 빠지면 병이난다.

- 399. 꿈에 지붕위에 올라가면 불길하다.
- 400. 꿈에 개에게 물리면 재수가 없다.
- 401. 꿈에 개를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 402. 꿈에 거북이를 죽이면 초상난다.
- 403. 꿈에 소에 밝히면 불길하다.
- 404. 꿈에 소나무가 마르면 근심이 생긴다.
- 405. 꿈에 쥐에게 물리면 불길하다.
- 406. 꿈에 비가오면 흉한 일이 생긴다.
- 407. 꿈에 해와달이 떨어지면 부모에게 근심이 생긴다.

11. 기타(其他)

- 408. 꿩이 몹시 울면 지진이 일어난다.
- 409. 나비를 잡고 눈을 비비면 장님이 된다.
- 410. 남의 집에서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 411. 남의 귀를 파주면 재수가 없다.
- 412. 가래뿔은 굴뚝에다 대고 “가래뿔 구워 먹는다”하면 낡는다.
- 413. 머리의 가리마가 길면 명이 길고 멀리 시집장가 간다.
- 414. 가마끈이 줄어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415. 가름에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 416. 가름에 개미들이 열을 지어가면 비가온다.
- 417. 가름에 제비가 땅을 활으면 비가 온다.
- 418. 가물때 처녀가 술뚜껑을이고 동서남북에 절하면 비가 온다.
- 419. 가물때 햇무리나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다.
- 420. 가슴에 손을 얹고자면 좋은 꿈을 꾸다.
- 421. 가운데 손가락이 길면 재주가 있다.
- 422. 하늘을 향하고 빈가위질을 하면 재수없다.
- 423. 가위질을 거꾸로하면 잘 산다.
- 424. 가래먹고 사탕 먹으면 해롭다.
- 425. 가축이 새끼를 낳은뒤에 상제가 출입하면 부정탄다.
- 426. 간장독을 깨트리면 집안이 망한다.
- 427. 간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 428. 갓난아이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 429. 갓난 아이의 입을 맞추면 병이 생긴다.
- 430. 갓을 비트리지게 쓰면 상처한다.
- 431. 이사와서 팔죽 쑤어 먹으면 부자된다.
- 432. 갓난아이를 예쁘다고 하면 해롭다.

433. 개가 땅을파면 바깥주인이 해롭다.
434. 개가 마루밑을 파면 흉년이 든다.
435. 개가 지붕위에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
436. 개가 나가버리면 재수가 없다.
437. 개가 풀을 뜯어먹으면 비가 온다.
438. 사람이 개잡자면 부자 된다.
439. 개구리가 처마밑에 들어오면 장마진다.
440. 개미들이 개미집문을 막으면 장마진다.
441. 거꾸로 자면 재수없다.
442. 거미가 천정에서 낮에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
443. 거미가 밤에 내려오면 도둑이 든다.
444. 밤에 거울보면 재수없다.
445. 겨울에 도배하면 복 달아난다.
446. 겨울이 춥지 않으면 그해는 병이 많다.
447. 겨울날씨가 추우면 여름에 질병이 없다.
448.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가 풍년 든다.
449.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450. 여자가 말띠에 나면 팔자가 사납다.
451. 혼인날 그릇을 깨면 불길하다.
452. 혼인날 신부가 들어가는 방의 처마끝에 서 있는 사람을 해롭다.
453. 혼인날 신랑이 타고간 말이 신부택에 도착하여 큰 소리를 치면 첫 아들을 낳는다.
454. 혼인날을 받아놓고 임신한 사람을 보면 불운하다.
455. 신을 꺼꾸로 신으면 해롭다.
456. 신을 도둑맞으면 재수가 없다.
457.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개고기를 먹고가면 해롭다.
458. 고양이와 관을 넘어가면 죽은 사람이 일어선다.
459. 고양이가 시체가 있는 방의 용마루를 넘으면 시체가 일어선다.
460.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비가 온다.
461. 고양이가 초상때 방밑의 고래에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선다.
462. 고양이를 죽이면 다른 고양이가 해를 부린다.
463. 고양이를 죽이면 집안에 액운이 든다.
464. 곡식을 가지고 장난하면 곰보색시 곰보신랑을 얻는다.
465. 공것을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466.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팔자가 세다.
467. 광주리를 머리에 이면 귀신이 찾아온다.
468. 9월에 문을 달면 해롭다.

469. 국수를 잘먹는 사람은 오래산다.
470. 굴뚝이 무너지면 재수가 없다.
471. 궁합이 맞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이혼한다.
472. 귀가 내려붙은 사람은 운수가 사납다.
473. 귀가 작은 사람은 단명하다.
474. 귀가 칼귀이면 팔자가 사납다.
475. 귀문이 넓은 사람은 복이 달아난다.
476. 귀뿌리를 만지고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다.
477. 귀가 긴 사람은 장수한다.
478. 귀가 아래로 수그러진 사람은 오래산다.
479. 귀가 크고 귓밥이 늘어진 사람은 오래산다.
480. 귀구멍이 큰 사람은 돈을 많이 쓴다.
481. 귀문이 좁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482. 그물을 머리에 쓰면 그날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483. 그릇이 깨뜨리면 집안이 근심이 생긴다.
484. 그릇을 상위에 포개 놓으면 복이 나간다.
485. 그릇을 포개서 가지고 다니면 빚을 많이 진다.
486. 그믐날 머리를 감으면 좋다.
487. 찻눈을 먹으면 좋다.
488. 입으로 기름병을 핥으면 죽을때 유언을 못한다.
489. 기둥에 낫으로 자국을 내면 가난해진다.
490.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벼슬을 한다.
491. 기침할때 등을 두들겨 주면 수월하게 한다.
492. 길에서 담뱃대를 주으면 재수가 없다.
493. 길에서 칼을 주으면 불길하다.
494.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495. 길을 가다가 까마귀가 가로질러 날아가면 재수가 없다.
496. 길가다가 상제를 보면 재수 있다.
497. 길가다가 돈을 주으면 부자가 된다.
498. 길가다가 허리끈이 풀어지면 좋은일이 있다.
499. 길가다가 꿩이나 노루가 앞을 지나가면 되돌아 가야한다.
500.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501. 까마귀가 많이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502. 까치가 높은 나무에 집을 지으면 큰 바람에 불지 않는다.
503. 까치가 물을치면 날씨가 개인다.
504.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

505. 까치가 자기집 남쪽의 나무에 집을 지으면 큰 인물이 나온다.
506. 까치가 정월 열 나흘날 울면 그해는 수수가 풍년 돈다.
507. 까치집이 있는 나무의 씨를 받아서 심으면 벼슬할 사람이 나온다.
508. 까치집을 변소에 태우면 병이 없어진다.
509. 까치집이 있는 나무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510. 깨진 거울을 보면 재수가 없어진다.
511.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몸에 해롭다.
512. 남의 말을 엿들이면 재수 없다.
513. 남의 자식 홍보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닮는다.
514. 남의 대사 음식을 어린이에게 먼저 먹이면 해롭다.
515. 남자가 여자에게 놀리어 살면 집안이 망한다.
516.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재수가 없다.
517. 남에게 먹을 갈아주면 글씨를 못쓴다.
518. 남에게 빗자루를 주면 복 달아난다.
519. 남자가 바가지에 밥을 먹으면 가난해진다.
520.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보면 재수가 없다.
521. 남자가 바가지로 물을 마시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
522. 낮에 옛날 이야기하면 가난해진다.
523. 낮에 천정에서 쥐가 부스럭거리면 재수없다.
524. 낮에 별을 보면 흉한 일이 생긴다.
525. 낮에 지네가 천정에서 내려오던 반가운 손님이 온다.
526. 냇가의 여울소리가 크게 들리면 비가 온다.
527. 널떨때 널 가운데 앉으면 어머니가 가슴앓는다.
528. 노인의 빠졌던 이가 다시나면 장수하고 자손에게 좋다.
529. 노인이 늘 울면 집안이 망한다.
530. 눈에 거머리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된다.
531. 누어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 해롭다.
532. 누룽지를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
533. 눈 깜짝이를 흉내내면 따라서 깜짝이 된다.
534. 눈의 다래끼는 문고리에 비비면 낳는다.
535. 눈이 아프면 형집을 나무에 달아두면 낳는다.
536. 눈의 다래끼는 뜨거운 빗살로 지지면 낳는다.
537. 눈에 다래끼 났을때 고기를 먹으면 다달이 난다.
538. 눈 두덩이가 부른사람은 심술이 많고 인정이 없다.
539. 눈밑에 점이 있으면 ¹올어야 할 일이 많다.
540. 눈아래 점이 있으면 팔자가 세다.

541. 눈이 찢어진 사람은 성미가 사납다.
542. 눈이 크면 단명하다.
543. 눈이 크면 겁이 많다.
544. 눈을 자주 흘기면 뺨새 눈이 된다.
545. 눈섭속에 검은점이 있으면 대성한다.
546. 눈섭이 길면 오래산다.
547. 눈섭이 많고 검은면 형제가 많다.
548. 눈섭이 위로 올라 붙은 사람은 성격이 용맹스럽다.
549. 다리미 불을 켜면 죽을 때 발가벗고 죽는다.
551. 발을 떨면 복이 달아난다.
552. 다리를 꼬고자면 집안일이 꼬인다.
553. 다리미질을 옷고름부터 하면 빌어먹는다.
554. 개가 달을 보고 짖으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555. 달이 몹시 붉으면 가뭄이 든다.
556. 달밤에 고양이가 지붕위에서 울면 도둑이 들지 않는다.
557. 여자가 새고기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558. 여자가 닭머리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559. 닭발을 먹으면 성미가 급해진다.
560. 닭발을 먹으면 손에 땀이 나지 않는다.
561. 닭발을 먹으면 돈을 헤프게 쓴다.
562. 닭이 지붕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지 않는다.
563. 닭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울면 비가 오지 않는다.
564. 닭뺨을 아무곳이나 버리면 지네가 쾜다.
565. 닭이 초저녁에 울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566. 닭의 목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
567.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
568. 닭이 쌍알을 낳으면 집안이 흥한다.
569. 대나무르 사람을 때리면 몸이 마른다.
570.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
571.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살 내린다.
572. 대나무로 빗물을 받아내면 가난해진다.
573. 대보름날밤에 불피우면서 콩을 구어 먹으면 부스럼이 안난다.
574. 대보름날밤에 망월을 처음 본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575. 대문을 함부로 내면 집안에 불길하다.
576. 대문쪽으로 하수구를 내면 불행해진다.
577. 털마른 옷을 입으면 뜻밖의 누명을 쓰게 된다.

578. 도마위에 바가지를 올려 놓으면 가난해진다.
579. 뚝대 떡을 해주지 않으면 잘 넘어진다.
580. 뚝떡을 얻어 먹으면 무엇이든 값아 주어야 아이의 명이 길다.
581. 뚝상에서 어린이가 쌀을 집으면 복이 많다.
582. 어린이가 뚝상에서 연필을 집으면 공부를 잘한다.
583. 어린이가 뚝상에서 책을 집으면 대학자가 된다.
584. 어린이가 뚝상에서 활을 집으면 장군이 된다.
585. 어린이가 뚝상에서 실을 집으면 명이 길다.
586. 마을 초상때 머리를 감으면 해롭다.
587. 동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자면 해롭다.
588.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집안이 좋지 않다.
589. 마을 초상때 바느질하면 해롭다.
590. 동짓날 팔죽을 먹어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
591.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592. 된장맛이 좋으면 집안에 복이 있다.
593. 돼지꼬리를 먹으면 글씨를 잘 쓴다.
594. 두사람이 한 대야에서 씻으면 싸우게 된다.
595. 두손을 목에 베고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596. 두꺼비를 잡으면 죄 받는다.
597. 두꺼비가 나오면 장마가 든다.
598. 엄지 발가락보다 둘째발가락이 길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599. 뒤통수가 나온사람은 재주가 있다.
600. 등에 점이 일곱개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징후다.
601. 딸꾹질할 때 물그릇위에 젓가락을 십자로 놓고 물을 마시면 딸꾹질이 멈춘다.
602. 딸이 아버지를 닮으면 잘 산다.
603. 딸꾹질을 하면 떡 먹을 일이 생긴다.
604. 딸이 진청에 빗자루를 주면 해롭다.
605. 생감 먹고 기름 먹으면 해롭다.
606. 떡 고물을 밥에 쥘 먹으면 해롭다.
607. 떡 시루변을 먹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
608. 또아리를 방에 들여놓고 자면 딸만 낳는다.
609. 싸리비로 뜰을 쓰면 사나운 며느리를 얻는다.
610. 마른때를 벗기면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611. 마른때를 벗기면 어머니에게 해를 끼친다.
612. 마당비로 부엌을 쓸면 복이 나간다.
613. 마루끝에 앉아서 식사하면 가난해진다.

614. 마늘 껍질을 불에 태우면 부스럼이 난다.
615. 마른 번개가 잦으면 감음이 든다.
616. 말띠에 난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617. 매월 초 닷새날 여자가 출입하면 가족이 앓된다.
618. 맷돌위에 올라서면 곰보색시 또는 곰보신랑을 얻는다.
619. 머리에 가마가 돌이면 장가 두번 간다.
620. 머리에 가마가 돌이면 쌍가마 타고 간다.
621. 머리말에 칼이나 가위를 놓고 자면 해롭다.
622. 머리에 책을 이면 공부를 못한다.
623. 머리에 이가 많으면 궁하다.
624. 새가 버린 머리카락을 물어가면 평생 가난하다.
625. 머리 색깔이 노란 사람은 영리하다.
626. 머리가 큰 사람은 힘이 세다.
627. 머리에 세치가 많은 사람은 재주가 있다.
628. 머리결이 거센 사람은 힘이 세다.
629. 곱슬머리는 성질이 날카롭다.
630. 머리를 북쪽으로 두르고 자면 병이 잦다.
631.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632. 머리결이 억센 사람은 마음도 억세다.
633. 먼길을 손있는 날 가면 해롭다.
634. 명석을 세워두면 복이 나간다.
635. 매주를 짝수로 만들면 불길하다.
636. 매주를 예쁘게 만들면 예쁜딸을 낳는다.
637. 머느리가 등잔불 뒤에 앉으면 소박 맞는다.
638. 머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다.
639. 명절날 바늘 만지면 생손 앓는다.
640. 명절날 일하면 어린 자식 두고 죽는다.
641. 모자를 잃어버리면 재수가 없다.
642. 목침을 깔고 앉으면 치질걸린다.
643. 못하나에 기름병 두개를 걸면 쌍둥이 낳는다.
644. 몽당비를 발에 버리면 도깨비 된다.
645. 묘지의 좌청룡 우백호가 좋으면 자손이 출세한다.
646. 묘자리 파놓은 곳을 어린이가 보면 일찍 죽는다.
647. 무우를 보약과 함께 먹으면 머리가 빨리 회어진다.
648. 무지개를 보고 손가락질 하면 생손 앓는다.
649.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방안 사람이 해롭다.

650. 문지방을 걸터 앉으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651.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652. 미친 사람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로 두들기면 낫는다.
653. 미인은 팔자가 세다.
654. 바느질 실을 길게 꿰면 먼곳으로 시집간다.
655. 바느질의 실끝을 다른 사람이 뺏어주면 죽어서도 풀지 못한다.
656.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흉년이 든다.
657.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부스럼난다.
658.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키가 크지 않는다.
659. 바가지를 상위에 올려 놓으면 가정 싸움이 일어난다.
660. 바가지를 태우면 집이 가난해진다.
661. 바가지에 돌이 박히면 헛 바늘이 선다.
662. 바가지로 물을 먹으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
663. 바구니를 머리에 쓰면 장가갈때 호랑이가 따라온다.
664.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남편이 앓는다.
665. 반지를 둘째 손가락에 끼면 어머니가 해롭다.
666. 발가락끼리 맞대면 복이 나간다.
667. 어린이가 밤에 자주 울면 불길하다.
668. 밤에 마을 뒤에서 여우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669. 밤에 옛날이야기 할때는 세가지를 하여야 한다.
670. 밤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우환이 생긴다.
671. 밤에 거울을 보면 쉬 늙는다.
672. 밤에 돈이나 쌀을 주면 복이 나간다.
673. 밤에 땃들을 돌리면 불길하다.
674. 밤에 방을 쓸면 가난해진다.
675. 밤에 베개를 세워 놓으면 도둑든다.
676.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복 달아난다.
677. 밤에 장을 퍼내면 가난해진다.
678. 밤에 피리불면 뱀이 나온다.
679. 밤에 까치나 까마귀가 울면 국상 당한다.
680. 밤에 까치나 까마귀가 울면 난리가 난다.
681. 밤에 참새가 울면 초상이 난다.
682. 밤에 손톱을 깎으면 재수없다.
683. 밤에 주막에 가면 도깨비 만난다.
684. 밤에 부엉이가 울면 풍년든다.
685. 밤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면 무서움이 든다.

686. 밤에 거울보면 미움 받는다.
687. 자면서 이를 갈면 팔자가 사납다.
688. 밥그릇을 얹어 놓으면 재앙이 온다.
689. 개도 밥 먹을때에는 안 때린다.
690. 시험볼때 배내저고리를 품고 보면 합격한다.
691. 뱀에게 물렸을때 뱀보다 먼저 흙을 먹으면 독이 오르지 않는다.
692. 뱀에게 물렸을때 콩잎을 붙이면 쉽게 낫는다.
693. 뱀을 죽이다 말면 살아서 원수 갚으러 온다.
694. 뱀이 길가는 사람의 앞을 가로질러 가면 재수 없다.
695. 뱀이 집에서 나오면 초상이 난다.
696. 버선을 다리미질하면 소박 맞는다.
697. 버선을 뒤집어 신으면 재수 없다.
698. 버선을 베고자면 귀머리거리 된다.
699. 베개를 낮게 베고자면 오래 산다.
700. 벽에 손그림자 비추면 도둑든다.
701. 변소에서 넘어지면 죽는다.
702. 보름날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 먹지 않는다.
703. 보름날 처음 만난 처녀 총각은 부부가 되기 쉽다.
704. 보름날 밤에 자면 눈섭이 희어진다.
705. 보이지 않는 곳의 사마귀는 복 사마귀이다.
706.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707. 복숭아 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미친다.
708. 봄에 노랑나비와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709. 봄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는다.
710. 봄에 재비를 일찍 본 사람은 부지런해 진다.
711. 봄에 벌을 일찍보면 부지런하다.
712. 부엌 바닥에 흙이 높게 채여 올라가면 부자가 된다.
713.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 치면 난리난다.
714. 비올때 마루에 걸터앉으면 벼락 맞는다.
715. 비둘기 고기 먹으면 자녀를 남매 밖에 낳지 못한다.
716.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해롭다.
717. 빗자루로 얻어 맞으면 삼년 재수 없다.
718. 빠진 이를 아무데나 버리면 새이가 나지 않는다.
719. 빠진 이를 지붕위에 던져야 새이가 빨리난다.
720. 뺨마디가 쭈시면 비가 온다.
721. 잠자면서 얇은 소리를 하면 고생이 많다.

722. 사주팔자가 센 여자는 후처로 가야 잘 산다.
723. 밤사이에 눈이 많이 쌓이면 풍년이 든다.
724. 산모에게 처녀가 밥을 주면 해롭다.
725. 산후에 창구멍을 막으면 해롭다.
726. 산속에서 호랑이 이야기하면 호랑이가 나온다.
727. 산속에서 까마귀 울음소리 들으면 재수 없다.
728.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오래산다.
729. 상여의 앞길을 건너가면 불길하다.
730. 상여를 메고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다.
731. 상제는 남의 경사에 가지 않는다.
732. 새벽 방아를 쪼으면 재수가 없다.
733. 새끼 손가락이 길면 아들덕 본다.
734. 이사가면 거꾸로 자야 부자가 된다.
735. 새벽에 낳은 아이는 머리가 좋다.
736. 생일날 매 맞으면 항상 매 맞는다.
737. 생일에 죽썰어 먹으면 가난해진다.
738. 생일에 국수 먹으면 명이길다.
739. 생일에 잠곡밥 먹으면 자손이 많아진다.
740. 서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자면 명이 짧다.
741.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장마진다.
742. 석류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집안이 불길하다.
743. 선달 그믐날 늦게 자면 길하다.
744. 설날은 떡국을 먹어야 오래 산다.
745. 설날에 돈을 빌려주면 복이 나간다.
746. 설날에 일하면 죽을때 헛손질한다.
747. 설날 아침에 남자손님이 먼저 오면 길하다.
748. 설날에 널을 뛰면 발이 건강해 진다.
749. 성황당 고개에는 돌이나 나무가지를 던지고 가야 좋다.
750. 소가 새끼 낳을때 여자가 보면 해롭다.
751. 소쩍새가 울면 풍년 든다.
752. 속눈썹이 길면 양친중 한분이 일찍 돌아가신다.
753. 손바닥에 잔금이 많으면 고생 한다.
754. 손장난이 심하면 해롭다.
755. 손가락이 긴 사람은 예능에 소질이 있다.
756.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부지런하다.
757.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다.

758. 손이 두툼하면 잘 산다.
759. 손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다.
760. 손톱에 흰 점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761. 손톱에 윤이 나면 재수가 있다.
762. 소가 새끼 낳을때 밖으로 곡식을 내가면 해롭다.
763. 시체를 보고 냄새 난다고 하면 더난다.
764. 수저를 던지면 밥벌어 먹는다.
765. 술먹고 안주를 먹지 않으면 손자를 늦게 본다.
766. 시험볼때 개란 먹으면 낙방한다.
767. 시험보는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768. 시집갈때 바느질 상자를 가지고 가면 잘 살지 못한다.
769. 시루떡을 구어 먹으면 가난해진다.
770. 시체를 보고서 장독을 열면 장맛이 변한다.
771. 식전에 노래부르면 삼대를 빌어 먹는다.
772. 식전에 땀 맞으면 재수 없다.
773. 식전에 상제가 가게오면 재수가 좋다.
774. 식사후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산다.
775. 신발을 바깥쪽으로 벗어 놓고 드리가면 해롭다.
776. 실패에 실이 감겨있지 않으면 부모가 헐 벗는다.
777. 싸리나무로 매를 맞으면 마른다.
778. 쌀자루를 베고자면 귀머거리가 된다.
779. 쌀바가지를 햇빛보이면 복 달아난다.
780. 아침에 원숭이 말을하면 재수가 없다.
781. 어린이의 손을 때리면 손재주가 없다.
782. 아침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크게 나면 재수가 없다.
783. 아침에 어깨 짚으면 재수 없다.
784. 아침에 발을 밟히면 재수 없다.
785. 아침새 가게에서 외상주면 재수 없다.
786. 아침밥상에 젓가락의 짝이 안 맞으면 재수 없다.
787. 아래옷을 윗옷으로 고쳐 입으면 재수 없다.
788. 아침에 신을 얹어 놓으면 재수 없다.
789. 아침에 여자가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면 재수 없다.
790. 아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닮으면 좋다.
791. 아래턱에 살이 많으면 복이 많다.
792. 여자가 아침 일찍 남자를 만나면 재수가 있다.
793. 아침에 상제를 만나면 재수가 있다.

794. 아침에 상여를 보면 먹을것이 생긴다.
795. 아침에 거미를 보면 그날 돈이 생긴다.
796.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많다.
797.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798. 암사슴을 죽이면 죄 받는다.
799. 앞머리의 수가 많으면 효자 된다.
800. 어린애 낳고 3일간 동냥을 주지 않는다.
801. 어린이들이 키를 맞대어 보면 키 않큰다.
802. 어린애 낳을때 대문에 못 박으면 재수 없다.
803.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서 딸에게 주면 딸이 못 산다.
804. 어린애 낳고 빨래를 삶으면 어린애 얼굴에 흠이 생긴다.
805. 어린애 낳고 상가에 가면 해롭다.
806. 어린애 귀저귀를 방망이로 두들겨 빨면 어린애가 보챈다.
807. 어린애 낳을 때 닭 잡으면 그 아이가 부정탄다.
808. 어린애가 코를 많이 흘리면 커서 힘이 세다.
809. 어린애가 엄지손가락을 빨면 남동생 본다.
810. 어린애가 머리에 이는 버릇이 있으면 여동생 본다.
811. 어린애가 창문을 잘 찢으면 동생을 일찍 본다.
812. 어린애가 목에다 끈을 걸면 동생을 일찍 본다.
813. 얼굴에 죽은 깨가 많으면 팔자가 세다.
814. 광대뼈가 나온 여자는 내 주장한다.
815. 광대뼈가 나온 여자는 고집이 세다.
816.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오른쪽 귀가 가렵다.
817. 엎드려 자면 복이 나간다.
818. 여자가 손 발이 크면 팔자가 사납다.
819. 여자가 밤에 머리 풀면 집안 망하다.
820. 여자가 대머리이면 늦게 결혼해야 잘 산다.
821.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과부되기 쉽다.
822. 여자가 비오는날 머리 빗으면 시부모 장사날에 비가 온다.
823. 여자가 한숨쉬면 될일도 안된다.
824. 여자가 셋이 모이면 종지가 흔들린다.
825.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동네처녀 바람난다.
826. 여자의 입술이 푸르거나 검붉으면 초년에 과부된다.
827. 여자가 잔소리하면 집안 일이 잘 안된다.
828. 여자가 초하룻날 남의집에 가면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829. 여자가 칼을 갈면 해롭다.

830. 여우가 조상의 묘를 파면 자손이 해를 입는다.
831. 여자가 발이 크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832. 치마끈이 저절로 풀어지면 좋은일이 생긴다.
833. 여자는 코가 작아야 부자로 산다.
834. 연장을 씻으면 비가 온다.
835. 열두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밥 굶는다.
836.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837. 오월 단오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838. 오월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불운하다.
839. 오월 단오날 청포물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840. 옷을 입고 꿰매면 옷 얻어 입을 복이 없어진다.
841. 옷고름을 자르면 재수가 없다.
842. 옷을 뒤집어 입으면 미움 받는다.
843. 옷을 입고 단추를 달면 도둑 누명 쓴다.
844. 옷장문 열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
845. 옷투정하면 가난하게 산다.
846. 우물속의 고기를 잡아 먹으면 봉사 아이를 낳는다.
847. 우물안에 고기가 생기면 부자가 된다.
848.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849. 유월 초하루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아프다.
850. 유월에 고추장과 간장을 담으면 안 좋다.
851. 유월에 문을 바르면 도둑 맞는다.
852. 유월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불운하다.
853. 윤달에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면 좋다.
854. 은하수가 부엌문 앞에 오면 햇쌀밥 먹는다.
855.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몸에 털이 많이 난다.
856. 음식을 흠쳐 먹으면 딸꾹질 한다.
857. 이가 앞으로 뺨어나면 팔자가 세다.
858. 이마가 넓은 사람은 남의 덕을 많이 본다.
859.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너그럽다.
860. 이불깃으로 딸의 치마를 만들어 주면 오래 산다.
861. 이사가는날 시루떡 해먹어야 운수대통 한다.
862. 이사갈때 문을 찢고 가야 좋다.
863. 정월에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
864. 입술이 크면 먹을 복이 많다.
865. 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을 그리면 해롭다.

866. 자는 사람의 허리를 넘으면 해롭다.
867. 잔치집에 독수리가 지나가면 불화가 온다.
868. 잠을 곱게 자야 귀인이 된다.
869. 장독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해롭다.
870. 장독에 쥐가 빠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871. 하루에 장님을 셋 만나면 그날 재수가 좋다.
872. 절에 갈때 남의 집을 들러서가면 해롭다.
873. 절에 갈때 고기 먹고가면 해롭다.
874. 절에 갈때 짐승잡는 것을 보고가면 해롭다.
875. 절에 빈대 기둥이 생기면 망한다.
876. 정월 보름날은 밖에 나가서 지내야 좋다.
877. 정초에 물고기 꿈을 꾸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
878. 정월에 상가에 가는 것은 불길하다.
879. 정월 초하룻날은 비로 방을 쓸지 않는다.
880. 정초에 화로를 엮지르면 재수 없다.
881. 정월에 난 개를 잡아 먹으면 재수 없다.
882. 정초에 복조리를 사두어야 복이 들어온다.
883. 여자의 젖꼭지가 작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884. 젖은 옷을 입으면 누명 쓴다.
885. 젖을 짜서 굴뚝에 놓으면 젖이 많아진다.
886. 젖과 젖의 사이가 넓으면 남편의 덕을 본다.
887. 제비를 잡으면 학질에 걸린다.
888. 제비고기 먹고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난다.
889. 제사날 빨래를 다리면 곰보자식 낳는다.
890. 제비 새끼가 집에서 떨어지면 장마진다.
891. 제비집을 옮기면 복이 나간다.
892. 제사지낸 밥을 먹으면 집이 없어진다.
893. 제사지낸 밥을 먹으면 마른 버짐이 없어진다.
894. 제사지낸 송늬를 먹으면 무서움이 없어진다.
895. 제사지내고 대추를 먹어야 늙지 않는다.
896. 제사지내고 음복을 해야 자손이 잘 된다.
897. 제사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좋다.
898. 제삿날 묘를 깨끗이 단장하면 복을 받는다.
899. 제삿날 빨래줄을 매면 영혼이 오다가 돌아간다.
900. 제삿날 바느질하면 영혼이 오지 않는다.
901. 제사지내기 전에 닭이 울면 영혼이 오지 못한다.

902. 집안에 족제비가 살면 부자가 된다.
903. 죽은 사람의 신을 신으면 재수 없다.
904. 쥐가 이불을 물어 뜯으면 상복 입는다.
905. 쥐가 무성하면 세상이 시끄럽다.
906. 지게를 방문앞에 세워 놓으면 사람이 죽는다.
907. 지게를 불태우면 육손을 낳는다.
908. 여우가 오래살면 둔갑한다.
909. 짐승을 좋아하면 자식이 귀하다.
910. 집안의 구렁이를 죽이면 불운하다.
911. 집안에 쥐가 한마리도 없으면 가난하다.
912.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주인의 눈에 띈다면 집안이 망한다.
913. 성주하고 상가에 가면 해를 본다.
914. 집안쪽을 보고 키질을 하면 복 달아난다.
915. 집안에 벌레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
916. 집안에 쥐가 많으면 우화가 생긴다.
917. 집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길하다.
918. 집안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살면 흥한다.
919.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외가 곤다.
920. 참나무로 매를 맞으면 마른다.
921. 창문으로 음식을 받아 먹으면 해롭다.
922. 창문을 삼월에 고치면 복 달아난다.
923. 처마물로 손을 씻으면 사마귀 난다.
924. 처마의 고드름을 털면 농사가 앞된다.
925. 처마에 고드름이 많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
926. 처서에 비가 오면 흉년 든다.
927. 천둥 번개칠때 화로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하여 벼락을 막는다.
928. 청개구리가 나무위에 올라가서 울면 비가 온다.
929. 초저녁에 닭이 울면 재앙이 온다.
930. 초저녁에 닭이 울면 불이 난다.
931. 초복에 비 오면 삼복에 비가 온다.
932. 치마를 뒤집어 쓰면 해롭다.
933. 칼로 문지방을 찍으면 복이 나간다.
934. 칼을 빌려주면 정이 떨어진다.
935. 칼을 사람에게 겨루면 살이 내린다.
936. 어두운 밤길을 많이 걸으면 수명을 단축한다.
937. 코웃음을 잘치는 사람은 가난하다.

938. 코가 뾰족한 사람은 입이 가뻐다.
939. 코가 긴 사람은 참을성이 많다.
940. 코가 큰사람은 입이 가뻐다.
941. 코가 매무리코로 생긴 사람은 부자가 된다.
942. 코가 뾰족한 사람은 재주가 있다.
943. 콩을 볶아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가난해진다.
944. 큰 뱀이 집안에 나오면 불을 피워서 쫓아낸다.
945.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은 걱정이 생긴다.
946.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쉬 죽는다.
947. 키가 큰 사람은 싱거울다.
948. 키가 크면 오래 산다.
949. 탕자나무 울타리가 있으면 귀신이 못들어간다.
950. 태양 주위에 별이 나타나면 나라에 변이 생긴다.
951. 탕자나무를 때면 머느리가 억세다.
952. 턱을 괴고 앉으면 미움 받는다.
953. 턱이 뾰족하면 부자로 산다.
954. 턱이 주걱턱이면 평생 밥 걱정을 하지 않는다.
955. 토끼 새끼 낳을 때 들여다보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956. 낮을 넘어가면 손을 뻗다.
957. 하루에 새마리의 뱀을 보면 고기 먹을 일이 생긴다.
958. 한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
959. 밤중에 울음소리가 나면 불길하다.
960. 한사람의 머리를 들어서 벗기면 해롭다.
961.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다.
962. 산고든 집부근에서 짐승을 죽이면 해롭다.
963. 산모는 9일동안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한다.
964. 여자가 해진뒤에 세수하면 남편은 침을 얻는다.
965. 해진뒤에 방이나 부엌을 쓸면 복이 나간다.
966. 길을 가다가 쉬면 공부를 못한다.
967. 산모가 개란 먹으면 해롭다.
968. 허리띠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면 해롭다.
969. 허리띠를 베고 자면 해롭다.
970. 호박이 많이 열면 딸을 많이 낳는다.
971. 박이 많이 열리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
972. 첫 호박은 남자가 따야 계속 많이 연다.
973. 혼인말 바람이 많이불면 풍파가 많다.

974. 결혼할 사람은 남의 결혼식에 아니간다.
975. 홍두깨를 세워두면 도둑이 든다.
976. 홍역할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977. 환갑잔치는 앞당겨서 하면 좋다.
978. 황새가 마을뒤나 옆에 살면 그 마을은 부자가 된다.
979. 흰 뱀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980. 집안의 큰 나무를 함부로 베면 화를 입는다.
981. 어른에게 드릴물을 먼저 마시면 입술이 붓는다.
982. 나무를 많이 태우면 신령으로부터 미움을 산다.
983. 뜨거운 것을 잘먹는 사람은 처가의 덕을 본다.
984. 덧문을 닫고 자면 밤이 길다.
985. 미인은 눈섭이 길다.
986. 약수건을 빨래줄에 널면 병이 떠나지 않는다.
987. 머리털이 억센 사람은 마음도 억세다.
988. 발등을 밟히면 재수없다.
989. 결혼식에 손수건 선물하면 울면서 산다.
990.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보면 재수 없다.
991. 담 넘어다니면 해롭다.
992.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 망한다.
993. 돛자리를 덮고자면 일찍 죽는다.
994. 약을 두사람이 함께 먹으면 효력이 없다.
995. 남의 개가 들어와서 살면 액운이 온다.
996. 고목이 쓰러지면 흉사가 생긴다.
997. 꽃을 불속에 넣으면 해롭다.
998. 상치쌈 많이 먹으면 잠이 잘온다.
999. 여자가 배추뿌리 먹으면 소박 맞는다.
1000. 이마가 넓으면 너그럽다.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개념

우리나라 민속놀이와 민속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도 시대적·지리적 배경이 두드러지고, 정신 세계의 내면을 승화시켜 표현된 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임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 민속놀이는 특정한 지역이나 전문인에 의해서만 연회되고 일반 대중은 그저 구경만하는 것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또는 소멸되어갔다.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적 뿌리를 민속놀이에서 찾으려는 문화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 방방곡곡에서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전력하고 있음은 실로 민족적인 자아 발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각 지방에서 행해지는 지방 문화 행사를 비롯 연례적인 전국 민속 경연 대회등이 베풀어져 민속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그 지방 민속놀이도 그 지방 학교까지 민속악, 민속무용, 민속놀이가 편성되어 있어 이의 보편화에 크게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문화 행사는 단지 그 지방의 행사에 불과하고 무용이나 놀이도 특별히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연출될 뿐, 구름처럼 모여드는 관광객이나 대다수의 그 지방 사람들까지도 그저 축제 기분에 젖고 관광의 즐거움을 맛볼 뿐, 축제에 뛰어들어 함께 놀고 민속놀이나 춤추는 일체성은 역시 고려되었음도 사실이다.

이에 전통적인 여러 민속놀이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시대요청에 부응하여 민속놀이의 일단을 우선 엮어서 우리지방 민속놀이의 편모를 정리 해보았다.

(1) 등바루 놀이

놀이의 구분									
남 여 별	남	여	공통	계 절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
집 단 별	개인	소집단	대집단	전승지역	보령군(오천면 장고도리 섬)				

1. 개 관

가. 놀이의 개요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나 4월 8일을 전후하여 해당화 만발하는 계절이 되면 장고도 섬마을의 초경을 지낸 규수(閼秀)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명장섬(장고도에 접해 있는데 만조가 되면 섬이 되고 간조가 되면 장고도와 연해지는 섬)에 모여서 등불을 밝히고 굴을 부르며 굴바위에 굴밥을 주고 흥겹게 놀며 굴 캐기 경연을 벌여 이긴편과 진편을 가리고 또한 이긴편에서 여왕을 뽑아 놀이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강령과 섬 마을의 무사함고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다.

나. 놀이의 유래

“등바루”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등불을 밝힌다”는 말과 “등불을 켜 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이 병행된 준말 이라고한다.

약 200여년 전부터 보령군 오천면 도서지방에서만 전승되던 규수제(閼秀祭) 놀이로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장고도리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 놀이의 특징

규수들만이 행하는 놀이로서 두 팀으로 나누어 흥겹게 노는 놀이다.

2. 교육적 가치

가. 마을의 규수들이 모여서 노는 놀이지만 시합에만 규수들이 참석하게 되고 준비와 어울림은 어머니와 언니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 외딴 섬에 모여 사는 섬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의 놀이적 가치가 있고

나. 굴 캐기 작업을 통하여 소득 증대와 근로 정신을 기르고 협동 단결의 정신을 함양하게 되며

다. 부모님의 강령함을 기원하는 면을 통해 효도 정신을 길러

라. 조상들이 즐겨 놀던 그 얼을 놀이를 통해 전승 발전의 계기가 된다.

3. 기구 및 시설

가. 품 명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흑 색 한 복	74			
흰 색 한 복 (농 악 부)	6			
속 바 지	80			
버 선	80			
짚 신	80			
쌈 는 돌 (돌 방)	300			
흰 수 건	80			
꼬 깔 모 자	80			
굴 바 위	10			
명 장 십 모 형	1			
여 왕 모 자	1			
등 불 (초 룡 불)	40			
조 세	74			
대 바 구 니	74			
해 당 화 꽃 (인 조 화)	300			
색 동 한 복	80			
댕 기	80			
검 정 신 (짚 신)	80			
계				

○양 팀의 합계 보유수를 74명으로 하고 농악치는 사람을 (6명) 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부를 구하면 좋겠으나 흑색한복, 흰색한복, 속바지, 버선, 흰수건, 꼬깔모자, 색동한복, 검정실, 등불, 왕관, 조세, 대바구니, 댕기, 해당화꽃 등은 출연자 각자가 구할수도 있고 또한 빌릴수도 있는 물건으로 보고 구한다든지 빌리기에 힘쓰는 물건만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 제작방법

○쌈는돌:크기는 밥사발 정도의 크기로 하되 비니루 주머니에 형짚을 넣고 묶어 매직 잉크로 돌 모양으로 채색한다.

○굴 바위:크기는 쌀가마니 3개 정도의 크기로 하고 대형 대바구니를 여러개 엮어서 바위 모양을 만들어 종이를 바르고 굴바위 모양처럼 페인트로 채색한다.

○명장섬 모형:실제의 명장섬은 직경이 10m정도의 원형산이다. 크기는 가로 5m정도, 세로 1m정도, 높이는 초고봉이 2m정도의 산모양으로 하되 베니어판으로 만들어 종이를 바르고 산처럼 페인트로 채색한다.

4. 놀이의 지도

가. 지도 목표

- 팀끼리의 화합과 협동 정신을 기른다.
- 조상들의 일을 이어 받아 효도 정신을 기른다.
-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 정신과 소득증대 정신을 기른다.

나. 인원의 편성

기구 및 시설면에서는 1팀의 인원수를 35명으로 하고 농악치는 사람수를 6명으로 했는데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인원수가 적으면 경쟁 의식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다. 놀이방법 및 지도요령

1) 굴 부르기

모든 준비를 갖추고 행사 전날 밤 등불을 밝히며 명장섬 바닷가로 나가 굴 바위에 굴밥을 주고 굴 부르기 노래와 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때를 지어 논다.

● 굴부리기 노래 ●

굴아-아 동해는 백석굴
남해는 청석굴 북에는 북석굴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 마을로 돌아 와라

● 동 요 ●

이영이 영하 할영
이영 소리가 하할영
이영 이영 하할영
영철이가 하할영

또한 등바루 노래를 부르면 줄을 지어 서서 돌을 날아 돌방을 만든다. 돌방의 크기나 규모는 일정하지 않으나 바다를 향하여 약 1m폭의 출입구를 남기고 10m-15m정도의 돌레에 바닥 돌은 평평히 고른다.

● 등바루 노래 ●

(선창) 우리네 명장섬 경치도 좋구요
 비파도 진여 조개도 많고요
 대머리 어장 고기도 많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서 있는 여는
 어업 하는 장고도에 상징 이란다.
 용난 바위 명장섬에 경사가 났네
 장고 초연에 풍악이 울리네
 해마다 풍악이룬 소슬였지만
 삼십육관 동그라미 박통을 지어
 생활금 굴러굴러 걸이지 않네
 다섯 바위 나란히 널리 있는 곳
 파란물 바람소리 차례로 울려
 저에 물힌 옛노래 구슬프고나
 등바루는 우리 마을 명절 이라네
 (후렴) 어헤야 에투야 좋아

2) 굴캐기 경연

다음날 먼동이 트기 직전에 굴캐기 도구인 조세, 바구니와 의상을 가지고 돌방으로 모인다.

의상은 돌방에 놓고 두팀으로 균히 갈라 조세와 바구니를 가지고 굴캐기 노래를 부르며 굴캐기 시합이 전개되는데 소요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하고 전체 통솔은 큰 아씨(고령자)가 하게 된다.

● 굴캐기 노래 ●

(천창) 잘도 한다—
 조개잡이 잘도 한다
 어제도 여에 살고
 내일도 여에 사네
 바삭— 잘도 까네
 여왕 탄생 누구 일까
 해당화 만발하고
 오늘도 등바루 날
 용난 바위 경사 났네
 얼시구 종을시고
 (후렴) 에야루 야노야—

3) 여왕 뽑기 및 아침식사

굴캐기 겨름으로 많이 캐고 큰것을 켜 편을 승퍼느로 하고 그중 최고 많이, 최고 큰것을 켜 규수를 여왕으로 선발하는데 이때 주관은 역시 큰 아씨가 하게된다.

이긴편과 진편이 판가름되고 영왕 선발까지 끝나면 동네 어머니와 언니들이 손수 날라온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때, 여왕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해야 다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돌방으로 들어가 의상으로 갈아입고 여왕은 왕관까지 쓰게 된다.

4) 여흥

여왕이 “오늘은 우리 섬마을 장고도 으뜸가는 명절날이다” “오늘은 우리 섬마을 장고도 으뜸가는 명절날이다” “우리 한번 흥겹게 놀아나 보세”하며 까그매, 줄방넌기, 해당화꽃 뺏기 등의 동요를 부르며 꽃춤, 무등 놀이의 시합도 하고 개인기 까지도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놀이가 고조되면 풍악이 울리게 되어 섬마을 어머니, 언니들이 같이 어울려 춤도 추며 흥겹게 논다.

● 까 그 매 ●

까그매- 까옥 까옥-
어디를 가나- 강남 가네
무얼하러 가나 알나아러 가네
알 하나 주소-알 못 주겠네
왜 못 주겠나-아들 딸 기르려고
그만두게 -까옥-

● 줄 방 넌 기 ●

웨리 둥둥 갈매기 둥둥
넌어라 넌자 줌방울 넌자
어여라 넌자 줌방울 넌자

● 해당화 꽃 뺏기 ●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어-
꽃 따라 왔단다-
무슨 꽃을 따겠나-
해당화 꽃을 따겠다-
이겨서 꽃 방울 하나 얻었다
저서 분하다 말도 말아라

5) 귀로

무등 놀이가 시작되면 마을에서 어머니, 언니들이 등불을 밝히고 마중나와 같이 춤을

추고 등바루 노래를 부른다.

아씨를 무등 태우고 명장섬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까지 합세하여 이들을 환영하며 갖가지 춤을 추다 헤어진다.

라. 지도상의 유의점

- 양편이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부상조의 정신이 엿보이게 하고
- 질서상 절도있는 면보다 소박한 감정이 풍기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5. 참고자료

- 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 장고도리(발상지 섬마을)
- 주 관:대 천 문 화 원
- 출 연: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도 지정)
- 자료작성:대천문화원장(윤 원석)



(2) 外煙島 풍어당놀이

전승지:보령군 오천면 외연도리

시 기:90. 2. 9-2. 10(매년 음력대보름에 실시)

유 래:약 3백년전 조선중엽부터 이마을 뒷산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속에 사당을 짓고 섬의 수호신을 모셔 매년 풍어와 섬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협동과 화합을 도모코자 온 섬주민의 정성을 모아 풍어당놀이를 하고 있음

민속의 내용

- 당 제
- 산 신 제
- 풍 어 제
- 용 왕 제
- 농악놀이

특기사항:황소 1마리를 잡아 재물로 쓰며 술 10석을 비롯한 떡, 해산물 등 음식을 다량 준비하여 온 섬 주민이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즐김.

■ 풍어당 놀이 내용

- 대동 총회를 개최하여 기금을 거출하고 제관 6명을 선정함.
(1명은 제주, 5명은 화장이라고 하며 이들이 제물 준비 책임)
- 마을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봉합
(주민들 식수는 2일분을 길어다가 저장함)
- 선박1척을 지정하여 제관들만 승선하고 제물을 구입코자 육지에 나가는데 제물 구입시 불필요한 언행을 금지함.
- 귀향후 제물을 준비함에 있어 봉하였던 우물을 열고 그 물을 사용함
- 전일밤 제관들은 당산에 올라가 사당에 여자옷 1벌을 올리고 절함
- 산 정상 바위에 제단을 차리고 산신제를 지냄
- 당 제 - 자정이 지나면 제관들이 산에서 찬물로 목욕 제개하고 당제를 지냄
 - 당제가 끝나면 징을 울려 이를 알리고 한마당 농악놀이를 함.
 - 하산 하면서 세곳에서 제사를 지냄
- 마을 중앙 돌무지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냄
 - 제사가 끝날때마다 징을 울려 알림
- 한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각자 뱃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 있다가 제관들이 하산 할때 따라 내려와 어선이 군집해 있는 어선단 중앙의 풍어제 제단에 뱃기를 모아 놓음.
- 풍어제:당제를 끝낸 제관들은 풍어제 제단으로 모여 섬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풍어제를

지내고 되며 풍어제 도중에 뱃기와 길지를 한개씩을 선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뱃기를 받은 선주들은 길지를 매달아 각자 자기 배로 달려가 배의 가장 높은곳
 에 게양하며 오색기도 함께 달게됨. 이때 가장 먼저 도착한 선수가 당년에 고기
 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다하여 서로 다투어 달려감

- 용왕제:띠베를 만들어 음식을 실어 띄워 바다 멀리로 보내며 용왕제를 지냄
- 잔 치:용왕제후 전 주민이 노래와 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즐김

■ 풍 어 노 래

- | | | | |
|-----------|--------|----------|--------|
| 1. 어기어 디어 | 어기 여차 | 2. 어야 디야 | 어기어 디야 |
| 어기어 디어 | 어기여차 | 어야 디야 | 어기야 디야 |
| 칠산 앞바다 | 숭어 잡이 | 칠산 바다의 | 농어 떼는 |
| 연평도에 | 조기잡이 | 나랏 님의 | 진상 이고 |
| 배떠나 가세 | 어야 디야 | 연평도의 | 조기 떼는 |
| 배떠나 간다 | 어야 디야 | 부모님의 | 봉양일쎌 |
| 하늬바람 | 높새 바람 | 홍어떼 | 광어떼는 |
| 돛 달고 | 돛 올려라 | 마누라의 | 치마잡이지 |
| 어야 디야 | 디야 디야 | 어야 디야 | 어야 디야 |
| 어야 디야 | 어어야 디야 | 어야 디야 | 어어야 디야 |
-
- | | |
|----------|--------|
| 3. 부모 님의 | 피를 받고 |
| 신령 님의 | 명을 받아 |
| 우리 모두 | 어부 되어 |
| 일년 삼백 | 육십 일에 |
| 하루 같이 | 편안 함도 |
| 용왕 님의 | 은덕 일세 |
| 네배 내배 | 잡은 고기 |
| 모두 모두 | 가득 하네 |
| 어야 디야 | 어야 디야 |
| 어야 디야 | 어어야 디야 |

(3) 고누 놀이

1. 유 래

고누 놀이가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로 평민층의 놀이로 방법이 단순하여 쉽사리 익혀 잠시 쉬는 동안 논두렁이나 그늘진 곳, 마당 구석, 종이같은 것에 말판을 그려 놓고 서로 시합하는 민중 오락의 하나이다.

돌맹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말을 삼아 약속된 놀이 규약에 따라 두어가며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다 잡거나 상대방의 집을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고누란 말의 어원은 알 수 없고 지방에 따라서 꼬누, 고니, 끈, 편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 바, 대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물고누·줄고누(또는 발고누-네줄고누, 다섯줄고누, 여섯줄고누, 아홉줄고누)·곤질고누·패랭이고누·호박고누·자동차고누 등이다. 고누 종류의 이름은 말발의 모양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이밖에 이름이 없는것도 많다.

2. 교육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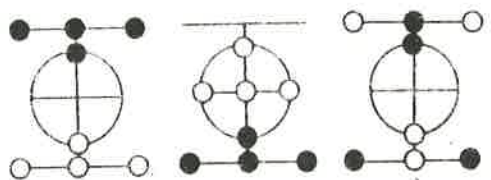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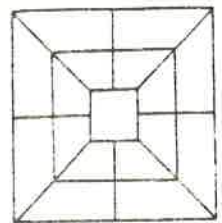


- 고누 놀이는 국민학생에게 알맞은 놀이로 저학년은 우물고누·중학년은 줄고누, 고학년은 곤질고누가 적합하다.
- 고누 놀이는 학생의 지능(추리력 및 해결력)을 개발해 주는 오락이므로 고누 놀이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놀이 방법을 창안하도록 할 수 있다.
- 특별한 준비없이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건전한(신선한) 승부게임 오락으로 재치성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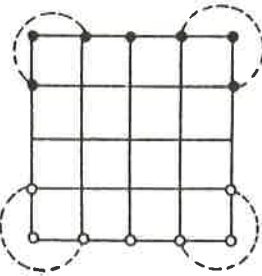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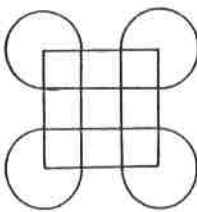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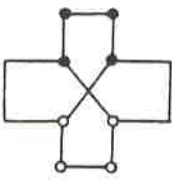
3. 준비물

- 바둑알 및 사기 조각 흑백 2종
- 납작한 작은 돌 2종(바둑알이 없을 경우)
- 쌍방 각각 왕1, 옆3, 뒤3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우물고누</p> <div data-bbox="290 346 755 598"> </div> <p>고누놀이 중 가장 단순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말발에 우물(샘 또는 강이라고 함)을 정하고 각기 말 2개를 놓고 둔다. 다른 말로 강고누, 샘고누라고도 한다.</p> <p><놀이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 편의 말은 우물(ㄴ, ㄹ사이)을 건너지 못한다. ② 처음 시작할 때는 ㄱ, ㄷ의 말부터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ㄴ, ㄹ의 말을 ㅁ에 먼저 두면 길이 막혀 한 편의 말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③ 말을 번갈아 두어가다가 어느 편이든지 먼저 말길을 막아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 <p>(2) 사발고누(호박고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알로 할때 <p>그림과 같이 배열하면 1눈금씩 번갈아 이동하여 상대를 포위하면 승리한다.</p> <p>※단, 1번 옮긴(전진)알은 다시 후퇴할 수 없다.</p> <div data-bbox="406 1465 691 1638"> </div>	<p>○ 처음 움직여야 할 말 암시</p> <p>○ 한편이 2알 가지고 한다.</p> <p>○ 한편이 3알, 4알 가지고 할 수 있다.</p> <p>○ 한번 옮긴 알은 후퇴할 수 없다.</p>

방법 및 지도 내용	유의점
<p>② 4알로 할 때</p> <div data-bbox="349 357 836 619">  <p>〈흰 말이 이긴 모양〉 〈비긴 모양〉</p> </div>	<p>○전반전에서 탈환한 자리 기억케 한다. (표시) ※소요시간(4~5분) ○또 3목이 되도록 먼저 놓은 편이 승리 하도록 하는 놀이이기도 한다.</p>
<p>(3) 곤잘고누</p> <div data-bbox="267 861 487 1081">  </div> <p>바둑두는 것과 같이 한점씩 번갈아 놓다가 3목(•-•-•)이 되면 상대의 위험성(3목 위험성)이 있는 점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두편중 어느편의 알도 놓지 못한다.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을 시는 합의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 가면서 3목이 되면 다시 상대의 한점을 잡는다.</p> <p>승부는 매진한 곳에 패한다. 혹은 지겠다고 인정될 때 항복하면 패한다.</p>	
<p>(4) 줄고누</p> <p>넉줄고누(4끈)</p> <div data-bbox="259 1564 446 1753">  </div> <div data-bbox="649 1365 933 1459">  </div> <p>자기편 돌을 한점 건너 상대방의 점을 탈환한다. 나중에는 한 눈금씩 옮겨 가면서 이동한다. 사격내에 들면 다시 상대방 알을 탈환한다. 승부는 전부 매진한 곳이 패함.</p>	<p>소요시간(3~4분) ○한점 건너 탈환한다. ○말이 있으면 한점을 넘어 탈환도 하지만 한점을 넘어 탈환할 말이 없으면 그대로 이동만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다섯줄고누</p> <p>①한 사람이 7개를 말을 가지고 각자 자기 위치에 앉는다.</p> <p>②상대방의 말을 잡기 위해서는 꼭 회전해야 한다.(점선표시)</p>  <p>※다른말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나갈 수 없다.</p> <p>③회전하지 않은 말은 1칸이상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단, 1칸만 갈 수 있다)</p> <p>④승부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전부 잡는 편이 이긴다.</p> <p>(5) 자동차(자전거고누)</p> <p><놀이방법></p> <p>①말발 네 귀의 바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잡는다.</p> <p>②말을 따내는 법은 줄고누와 같다.</p> <p>③상대편의 말을 잡으려면 반드시 바퀴를 돌아야 한다.</p>  <p>④바퀴를 둘 때는 바퀴 출구에 말이 없어야 하고 바퀴를 돈 말은 여러 칸을 건너 갈 수 있다.</p> <p>⑤말발 줄고누처럼 네 줄에 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늘일 수 있다.</p>	<p>○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연구 한다.</p> <p>※소요시간(3~5분)</p>
<p>(6) 동, 서, 남, 북고누(가나다라폰)</p>  <p>그림과 같이 배열 동, 서, 남, 북 번호를 붙이며 상대의 점을 서로 하나씩 탈환한다.</p> <p>승부는 전부 매진한 곳이 패함</p>	<p>○행선지 암시</p> <p>※소요시간(약2분)</p> <p>○동서남북 4번째 가서 탈환한다.</p> <p>○한편이 4알을 가지고 놀이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 data-bbox="201 270 350 302">(7) 옆뒤고누</p> <div data-bbox="240 338 399 499"> </div> <div data-bbox="548 310 678 432"> <p>⊕ - 왕</p> <p>△ - (뒤)</p> <p>● - (옆)</p> </div> <p data-bbox="204 575 902 659">한 눈금씩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앞에 있는 상대를 따 버린다.</p> <p data-bbox="461 669 651 701">(보기에 의하여)</p> <p data-bbox="204 716 396 747">(왕)-옆을 잡고</p> <p data-bbox="204 762 396 793">(뒤)-왕을 잡고</p> <p data-bbox="204 808 428 840">(옆)-뒤를 잡는다.</p>	<p data-bbox="954 260 1201 336">○어려워서 보급에 힘들다.</p> <p data-bbox="954 348 1201 424">○잡는 자격을 혼돈치 말게 한다.</p> <p data-bbox="954 436 1198 468">※소요시간(7~10분)</p>

(4) 고싸움 놀이

1. 유 래

고싸움은 전라남도 광산군 대촌면 칠석리 웃돌 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놀이이다. 풍수설에 의하면 웃돌 마을은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형상이라 그 터가 무척 거세다고 하여 이 거센 기운을 누르기 위해 소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구유모양의 연못을 파 놓았고, 또 황소가 일어서면 마을에 많은 해가 끼친다고 하여, 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의 고삐를 할머니당인 은행 나무에 묶어 놓았고 꼬리는 일곱 개의 돌로 눌러 놓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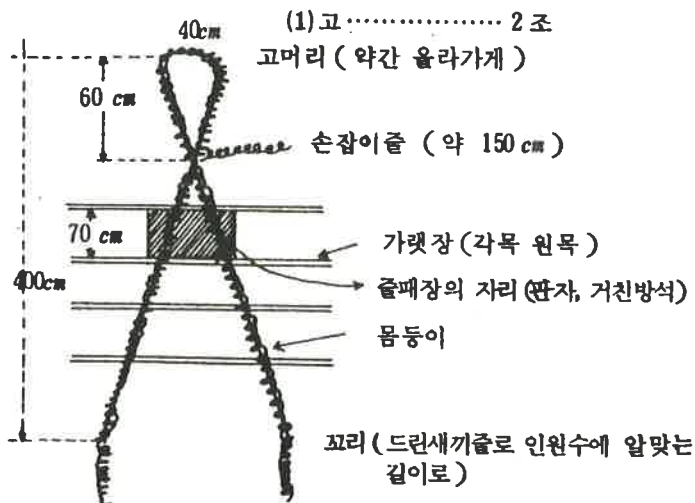
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하여 「고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고싸움」이라는 말은 「고」라는 낱말과 「싸움」이라는 낱말이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로서 두 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한다는 뜻이다. 「고」라는 말은 웃고름이나 노끈을 가지고 매듭지어 뭉개 한 가닥을 길게 빼내어 둥그런 모양을 만들어 맺는 것을 뜻한다.

본 「고싸움」놀이는 놀이의 형태에 있어서 창녕군의 「나무쇠싸움」이나 안동의 「차전놀이」와 유사성 지닌 점은 있으나 근래의 민속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고」의 형상, 제조 과정이 너무나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 구성이 다르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전남지방의 「줄다리기」에서 전형 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교육적 효과

- 학생들에게 패기와 투지, 강한 의지력과 단결력,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관을 불어 넣어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놀이를 지도한다.
- 될 수 있는 한 전교 학생이 모두 놀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 편성을 하고 「고」를 비롯한 놀이 도구는 학생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 「고」의 크기 및 놀잇군의 수, 시험 시간등은 학생 수와 각 학년의 체력을 감안하여 행한다.

3. 준비물



(1) 고머리나 고의 몸등이는 나무나 대를 여러개 합쳐서 짚으로 싸고 그 둘레를 새끼줄로
동여매어 지름이 15~20cm 되게 만든다.

※ 원형을 변형 축소하였음.

(2) 깃발, 각팀 1개씩(서부, 동부)

※ 색깔은 두 팀이 다르게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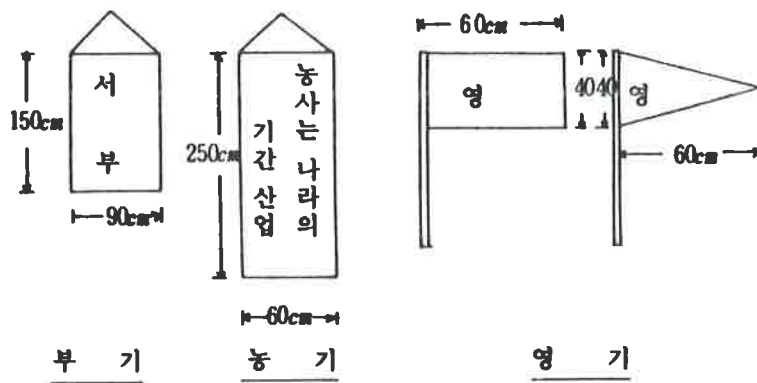
(3) 복장:줄패장-이조 시대의 장군복

멜꾼-운동복에 청백 머리띠(서부, 동부)

기수-인조로 만든 긴 조끼(청, 황색 등)

(4) 농악:준비하기 어려우며 징, 북, 심벌즈, 찰찰이 등(또는 녹음한 음악)

<깃발의 종류 및 크기>



4. 놀이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팀의 구성</p> <p>①청, 백팀(동, 서부) 각 120명 정도(고의 크기에 따라 조정)</p> <p>②줄패장-「고」위에 올라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삼각형 '영기'를 들고 자기편으로 지휘 통솔한다.</p> <p>③멜꾼-체격이 좋은 아동 약 40명으로 가렛장을 어깨에 멘다. 키가 크고 험센 아동을 앞줄에 배치한다.</p> <p>④꼬리잡이-나머지 아이들로서 꼬리부분을 잡게 한다.</p> <p>⑤기수-농기, 부기, 영기, 각 1명씩 맨앞에서 입 퇴장 한다.</p> <p>(2) 놀이방법</p> <p>①입장-출전 신호에 따라 용원가 군가등을 부르며 행군하다가 출전문에 도달하면 모두 「으이샤」고함을 치며 3회 정도 「고」를 머리 위에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고 양팀이 약 50m거리(본부석 좌우측)을 두고 멈춘다. 농악대는 본부석 앞에서 농악을 올린다.</p> <p>②접 전</p> <p>○지휘자가 전투 신호를 하면 양팀 기수는 기를 좌우로 3회정도 흔들고 「줄패장」은 영기를 높이 들어 「동(서)부야!」하고 고함을 지르면 멜꾼 꼬리줄잡이는 일제히 「으이샤!」하고 함성을 지르고 「고」를 3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서서히 탐색전을 벌이면서 「줄패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다.</p> <p>○기수는 즉시 꼬리줄잡이 뒤로 물러나고 꼬리잡이의 일부는 「고」몸뚱이의 좌우를 둘러싸며 상대방의 「고」를 정면에서 공격하기도 하나 공격보다는 수비를 하게 된다.</p>	<p>○저학년은 놀이불가(5, 6학년 남자에 한함)</p> <p>○접전전에 전진, 후퇴, 우회등 사전 연습을 충분히 실시한다.</p> <p>○접전시에는 교사들이 시종 옆에 서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p> <p>○전진, 후퇴시에는 절대로 달려서는(뛰어) 안 된다.</p> <p>○후방, 측방 공격은 불가</p> <p>○손으로 사람을 잡지 말아야 한다.</p> <p>○줄패장의 수신호에 따른 동작의 연습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p> <p>○학교에 따라 적당하게 규칙을 정하여도 된다.</p> <p>○줄패장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p> <p>○멜꾼, 줄잡이들은 항상 줄패장의 신호를 주시 행동하여야 한다.</p> <p>○「고머리」가 부딪쳤을 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교사들이 지도한다.</p> <p>○기수는 전투에 가담하지 않으며 항상 「기」를 반듯이 들도록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언제나 정면 공격만 취하게 한다. 「고머리」가 맞부딪쳐 서로 밀다가 「고머리」가 내려 앉거나, 땅에 닿거나 또는 수세에 몰렸다가 판단하면 패자로 판정한다.(상황에 따라 3전 2승으로)</p> <p>○이 때 이긴 팀은 「동(서)부야!」의 합성을 지르고 「고」를 2회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한다.</p> <p>③퇴 장</p> <p>○입장한 코스로 돌아간다.</p> <p>○기수는 빨리 서두에 선다.</p> <p>○승자는 승전가를 부르고 패자는 줄폐장을 태우지 않고 퇴장한다.</p>	<p>○교내 체육대회나 군민의 날 행사에 출전토록 한다.</p>

(5) 널뛰기 놀이

1. 유 래

널뛰기는 그네뛰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인 놀이로 유력 정초를 비롯하여 5월 단오, 8월 추석 등의 큰 명절에 성행되어 왔다. 널뛰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 놀이 성격을 미루어 보아 고려 이전의 옛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관하여 <최남선·조선상식문답, 널뛰기조>에, 「남자의 옷놀이에 대하여 여자의 세수에 있는 대표적 유희는 널뛰기라 할 것인데 활발용약으로 표현을 삼는 이 유희는 유교적 유한정정을 강요하던 후세에 산출한 바 아니요, 대개 기마격구라도 자유로 하던 우리 여성 고쇄기 이전의 고유한 민속임은 살피기 어렵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널뛰기는 말타기나 격구(말을 타고 공치는 놀이) 같은 활발한 놀이를 하였던 고려 이전의 여성들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널뛰기는 이웃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널뛰기와 그네뛰기는 이름 그대로 <뛰기> 즉,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옛 시절의 여성들은 이같은 놀이를 통하여 몸을 단련하고 씩씩한 기상을 길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 시대의 유한적 여성 윤리는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몸놀림을 억제해 왔지만 그네뛰기와 널뛰기의 전통은 서민 사회에 깊숙히 뿌리를 내려 꾸준히 그 명맥을 오늘에 잇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적 효과

○다리운동, 도약운동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준다.

○높이 뛰어 오르려는 숙련과 오래 버티려는 지구력을 길러 준다.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풍선 같은 것을 달아 놓아 따서 내리도록 하는 것도 흥미있겠다.</p> <p>○넙뎡지를 가운데에 4개쯤 놓고 4개조를 편성하여 달려가 뛰기를 하다가 높은 곳에 달아둔 풍선을 한 쪽이 먼저 따면 끝나고 양쪽이 다 들어간다. 다음 짝이 나와 다시 계속한다. 이렇게 하여 풍선을 많이 따온편이 승리하게 된다.</p> <p>○기능이 뛰어난 어린이를 선발하여 운동장 가운데에 여러개의 넙뎡지를 준비해 놓고 자유로이 몸짓을 하여 뛰게하고 그 나머지 남은 사람은 손을 잡고 돈다든가 고전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등의 형태를 취하여 관중의 눈을 끌 수도 있겠다.</p> <p>○넙뎡지를 어린이 수효대로 만들어 놓고 구르기부터 시작하여 쉬운데서 차차 복잡한 동작으로 옮겨가며 넙뛰기와 춤을 겸하여 음악에 맞추어 놀이가 되게 재 구상해도 좋겠다.</p>	<p>○숙달된 어린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놀이다.</p> <p>○풍선 따기에만 정신이 쏠리지 않도록 사전지도가 충분히 있어야 하겠다.</p> <p>○지도자나 어린이가 모두 숙련되어야 지도가 가능하다.</p>

<민요>

널뛰기에 관한 민요는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한편을 소개한다.

묵은해는 지나가고
새해신원을 맞이했네
(후렴)

널뛰자 널뛰자.
새해맞이 널뛰자.

앞집의 솟개야 너왔느냐
뒷집의 순이야 너도왔니
(후렴)

만복무량 소원성취
금년신수가 좋을시구
(후렴)

서제도령 공치기가
널뛰기만 못하리라
(후렴)

규중생장 우리몸은
설노름이 널뛰기라.
(후렴)

널뛰기를 마친후에
떡국노래를 가자세라.
(후렴)

(6) 그네뛰기 놀이

1. 유 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그네뛰기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인 놀이로 음력 5월 5일 단옷날을 비롯하여 추석등의 명절에 성행되어 왔다. 그네뛰기의 연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전하는 옛 중국 문헌에 의하면 옛날 만리장성 밖에 거주했던 북방 유목민이 처음 이 놀이를 하여 가볍고 날랜 몸가짐을 익혔다고 한다. 그후 중국 여자들이 이를 배워 점차 보급되면서부터 청명날 전후 또는 한식날 등의 명절 놀이로 성행되었다고 한다. 한·당나라 이후에는 특히 궁중에서 호화롭게 그네뛰기 잔치가 베풀어 졌는데 당 현종왕은 궁녀들의 뛰는 그네의 모습을 보고 「반선지희」 즉, 반선녀의 놀음이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그네뛰기가 있어온 것으로 믿어지는 데, 이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최충헌전>에 처음 보인다.

그네뛰기는 대개 4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시작해서 5월 단옷날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하는데 단옷날에는 경연회를 여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네는 보통 마을 어귀나 마당에 있는 큰 느티나무나 버드나무가지에 매단다. 그리고 경연회 때는 백사장이나 넓은 마당에 긴 통나무 기둥을 세워 그네를 가설한다. 이를 일러 <땅그네>라 한다. 그네줄은 굵은 새끼줄, 또는 노끈이나 색실을 꼬아 만든 동아줄을 사용한다. 그네 경연대회가 성행하였던 지방은 평양을 위시하여 사리원, 개성, 서울, 수원, 전주, 남원 등의 도회지였으며 오늘날에는 서울의 단오 행사, 강릉 단오제, 밀양 아랑제, 남원 춘향제 등의 민속 잔치의 경연회를 벌이고 있다.

2. 교육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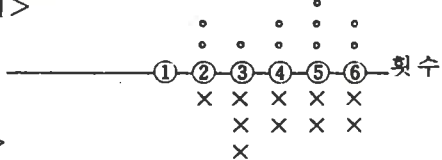

- 학생들에게 신체의 유연성, 근력과 지구력을 높여 주고 강인한 의지력과 활달한 성격을 길러 준다.
- 그네뛰기에 관한 노래말이나 응원가를 학생 스스로 작사, 작곡하여 부르게 한다.

3. 준비물

- 그네, 높이뛰기대, 호르루기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방법 1]</p> <p>(1) 전체의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눈다.</p> <p>(2) 그네 앞쪽 적당한 지점에 높이 뛰기대를 놓고 개개의 어린이가 몇회만에 넘어뜨리나를 센다.</p> <p>(3) 각 개인별 가측별로 아래 보기와 같이 앉는다.</p>	<p>○밀어 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뜬다.</p> <p>○횃수를 공동으로 센다.</p> <p>○저학년의 경우 겁이 많은</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토끼팀></p>  <p><곰팀></p> <p>(4) 팀의 승패는 3회내에 성공한 어린이 수를 세거나 5회 이하의 인원수를 세어 가려도 좋다.</p> <p>(5) 그네뛰기의 출발과 높이뛰기의 위치</p> <p><출발></p>  <p>[방법 2] 방울차기</p> <p>장대에 매단 여러 개의 방울 중 한 개를 정하여 누가 제일 많이 그 방울 소리를 내는가를 계산하여 승부를 가린다.</p>	<p>어린이에게는 무리한 요구는 금한다.</p> <p>○개인 경기로 그네뛰기 왕을 뽑아도 좋음</p> <p>○부진한 어린이에 대한 비방을 금한다.</p>

※ 그네에 대한 관한 민요

그네 뛰는 모습을 노래한 시가와 민요 등이 많이 전해 오는데, 그 중 민요 두 편을 소개한다.

5월 5일 단옷날에
 남의집 소년들은
 높고높게 그네매고
 한번굴러 앞이높고
 두번굴러 뒤이높아
 추천하며 노니는데
 우리님은 어데가고
 추천할줄 모르는고

<관동가에서, 「청구영언」 「속가집」>

오월이라 단옷날은
천중가절 아니나
수양청청 버들숲에
피꼬리는 노래하네.
(후렴) 후여닝충 버들가지
저가지를 툭툭차자.

후여닝충 버들가지
창실홍실 그네매고
임과 나와 올려뛰니
떨어질까 염려로다.

(후렴)

한번굴러 앞이솟고
두번굴러 뒷이솟아
허공중중 높이뜨니
청산녹수 일튼일튼

(후렴)

어찌보면 훨씬멀고
일튼보면 가까운듯
올라갔다 내려온양
신선선녀 하강일새

(후렴)

난초같은 고운머리
금박댕기 너울너울
외씨같은 두발길로
반공중에 노닌다.

(후렴)

요문감사 도홍치마
자락들어 꽃을매고
초록적삼 반호장에
자색고름도 너울너울

<단오가, 지명불명>

(7) 남대문 놀이

1. 유 래

어린이 놀이의 일종이다. 사람수는 10사람 정도로서 대개 10살 남짓한 여자아이들이 많이 한다. 10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 두 손을 마주잡고 쳐들고 섰으면 나머지 8사람은 줄을 지어서서 차례로 그 밑으로 지나가면 남대문을 만든 아이(손을 잡고 쳐든 아이)가 “좋지, 좋지”하면서 그 아이들을 툭툭 친다. 그중에 한 아이는 손을 마주잡은 속으로 들여 보내서 손 잡은 아이가 “너 뭐 먹고 살았니?”하고 물으면 “밥 먹고 살았지.”하면 안 보내고 “젓먹고 살았지.”하면 내어 보낸다. 이와 같이 계속하는 놀이다.

2. 교육적 효과

- (1)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들이 서로 정답게 놀이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2) 놀이하는 가운데 팀 조직을 계속 바꿈으로써 다같이 힘을 모아 즐겁게 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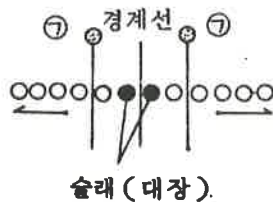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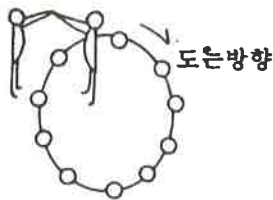
3. 준비물

○석회(줄긋기용)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놀이의 인원 10~15명 정도가 한 단위가 되데 인원수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p> <p>(2) 놀이의 방법</p> <p>①전원이 키대로 서서 맨 큰 쪽에서 두 사람이 나와 술래가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위로 치켜 올려 마주 보고 선다.</p> <p>②술래이외의 어린이들은 키대로 서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p> <p>③어깨에 손을 얹은 채 노래를 부르면서 술래가 손을 잡은 그 사이를 빠져 나간다.</p> <p>④노래가 끝날 때마다 두 술래가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중 한사람을 잡는다.</p> <p>⑤사전에 “술가락”과 “젓가락” 또는 “고양이”와 “바둑이”등 팀의 이름을 재미있는 것으로 약속해 두었</p>	<p>○엄격한 질서유지보다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p> <p>○노래를 즐겁게 부르면 잡담은 자연 없어진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다가잡힌 사람에게 술래가 “어느 편이 되지?”하고 묻는다. 그러면 “술가락편” 또는 “젓가락편”하고 하나를 택하여 대답하는대로 팀별로 1열로 앞힌다.(술래 두 사람도 처음에 술가락 또는 젓가락 팀인가를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정한다.)</p> <p>⑥다 잡히면 술래 두 사람이 각 팀의 맨앞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그 뒤에 각각 1열로 서서 허리를 잡고 당긴다.</p> <p>⑦대장이 상대편 쪽 일정한 거리 “○”선까지 당겨가면 지게 되고 진편은 이긴편을 업어 주거나 노래를 부른다.</p> <p>⑧진편의 대접이 끝나면 3, 4번이 술래가 되어 다시 시작한다.</p> <p>⑨나뉘어진 인원수가 팀별로 똑같게 안 되는것이 보통이나 이는 무방하다.</p> <p>⑩노래는 “남대문을 열어라”를 부르되 2박자 4박자 노래는 모두 무방하다.</p>	<p>○노래가 끝날 무렵이 되면 서로안잡히기 위해 동작을 취하게 되나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한다.</p> <p>○사전에 경계선과 결승선을 그어 놓는다.</p> <p>○두 편의 인원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에 오히려 흥미를 느낀다.</p>



(8) 답교(다리밟기)놀이

1. 유 래

이 놀이가 언제 어떻게 하여 비롯되었는지 그 기원과 유래를 밝혀 보기는 어려우나 옛 문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려 시대에 시작되어 조선 왕조 태종 이후에 크게 성행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답교놀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1년 간에 있을 모든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데 그 뜻이 있다. 즉, 사람의 다리와 그음이 같은 다리를 밟음으로써 다리의 병을 예방하고 그 밖의 잡병이나 재난 등을 일소하여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 놀이의 내용인 것이다.

답교놀이는 특히 서울 지방에서 성행했다고 한다. 현 청계천 입구에 있었던 광교와 수표교를 비롯하여, 살고지다리, 이 밖에 마포, 아현, 노량진, 장안리, 뚝섬 그리고 몽촌, 송파, 돌마리 등지는 예전에 답교 놀이가 성행했던 곳이라고 한다.

2. 교육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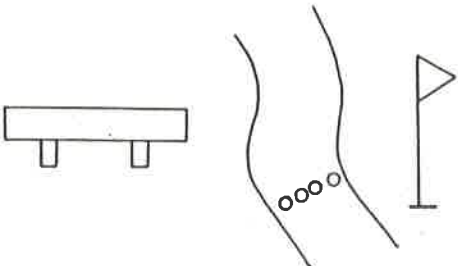
- 학생들의 체력과 단결력을 길러 준다.
- 전신의 조정력과 평형성 및 유연성을 길러 준다.

3. 준비물

- 평균대, 깃대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1) 원래 답교 놀이는 다리밟기 놀이라고도 하며 음력 정월 보름날밤 자기 나이 수만큼 다리를 건너 다니기 위하여 많은 다리를 찾아 다니는 민속놀이이다.	
(2) 학교에서의 평균대놀이, 개울 건너뛰기 등으로 변화 발전시켜 놀이를 하면 좋을 것이다. 동편과 서편 양쪽으로 나누어서 되돌이점에 기를 세워 놓고 중간에 평균대를 세로로 놓고 그 위에 달려가서 되돌아 오면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같은 요령으로 돌아오는 놀이를 한다. 평균대 위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건너야 하며 만일 실수하여 떨어지	○저학년 놀이에서는 평균대를 하나만 놓고 하거나 평균대 높이도 낮은 것으로 하여 위험성을 배제하고 안전한 놀이를 한다.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평균대의 대수나 높이를 조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 data-bbox="240 289 841 457">면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평균대 처음으로 되돌아 와서 시작하여야 한다. 평균대를 개울을 가상하여 징검다리를 밟아 뛰는 단계를 삼입하면 더욱 변화가 있어 좋을 것이다.</p> 	<p data-bbox="914 289 1222 363">절하여 운동내용을 다양하게 발전시킨다.</p>

(9) 백중놀이

1. 유 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력 7월 보름(15일)은 백중 또는 머슴날이라고 부르는 데 농민들의 명절날로서 머슴들과 농민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게 하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해마다 백중날이 되면 머슴들과 농민들은 씨름판, 농악 경연대회, 그네 대회 등을 여는 데 소위 '난장판'이 벌어져 갖가지 흥미있는 오락과 흥행이 있어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들이나 농민들이 마냥 즐길 수 있는 데 충청북도 괴산지방에서는 이 백중날에 특이한 '백중놀이'가 있었는데 이 「괴산의 백중놀이」는 오늘날 증산왕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증산과 근면을 권장하는 의도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상머슴에게 소원 성취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이 「괴산 백중놀이」를 약간 변형시켜 아동의 놀이로 구성한 것이 여기에 소개하는 「백중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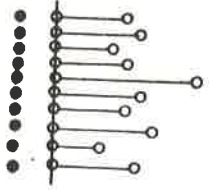

2. 교육적 효과

- 생산적인 놀이 활동을 통하여 증산과 근면 정신을 길러 준다.
- 우리 조상들의 협동정신과 화합된 모습을 알려 준다.



3. 준비물

- 짚이나 끈(비닐 테이프 등)
- 머리띠나 월계관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인원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휘자 - 1명 ○말 - 남녀 각 3명씩 ○경기자: 20~30명(1조 2인 10조 내외) <p>(2) 놀이 도해(○표 남자, ●표 여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p>  </div> </div>	<p>○임원을 조직할 때는 자기가 할 일을 사전에 알려 주고 '지정다지기 노래'는 종이에 적었다가 지휘자에게 주도록 한다.</p> <p>○놀이의 장소는 넓은 운동장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p> <p>○A선과 B선은 사전에 그려 놓고, 크기는 배정 인원수에 따라 조절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3) 놀이 방법</p> <p>○A선상에 짚이나 끈을 놓고 지휘자의 시작 호루루기 소리에 따라 새끼꼬기의 경기를 시작한다.</p> <p>○20분이 지나면 지휘자는 경기를 끝내는 호루루기를 불면 잡업을 끝내고 여자는 선상에서 뒤의 끈을 잡고 남자는 앞의 끈을 잡고 앞으로 나간다.</p> <p>○지휘자는 끈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길게 끈 팀을 선정하여 생산왕으로 뽑는다.</p> <p>○지휘자는 생산왕에게 관을 씌운다.</p> <p>○생산왕이 선정되면 남자 말은 남자 생산왕을, 여자 말은 여자 생산왕을 태우고 B의 원안으로 들어선다.</p> <p>○이때 다른 경기자는 끈을 이어서 원을 만들어 생산왕을 둘러싼다.</p> <p>○원이 완전히 만들어진 지휘자의 '지정 다지기 노래'의 선창에 따라, 원을 만든 경기자는 가사의 절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면서 후창을 한다.</p> <p>○이때 생산왕도 같이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돈다.</p> <p>○이 노래가 끝나면, 경기자는 줄을 놓고 남자는 남자 생산왕을 여자는 여자 생산왕을 행가래 질 치면서 지휘자가 "생산왕을 사시오."하고 외쳐 부르면 줄로 둘러싼 경기자가 "얼마요"하면 다시 지휘자가 "3000냥이요" 등의 대화를 잇는다.</p> <p>○행가래질이 끝나면 줄로 둘러싼 경기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지휘자에게 월계관이나 머리띠를 벗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놀이를 끝낸다.</p>	<p>○가능하면 조상들이 사용했던 짚이 좋겠으나 도시에서 구하기 힘들면 끈을 구해서 사용해도 좋다. 그럴 경우에는 넘직한 끈은 새끼를 풀수 없으므로 가늘게 풀거나 찢어서 사용하도록 한다.</p> <p>○새끼를 빨리 꼬기 위해서 그냥 비트는 정도로 하는 아동이 생기는데 사전에 새끼를 보여주고 꼬아야 할 정도를 알려 주어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원을 둘대에는 만든 새끼를 배의 부분에 대도록하고 남녀를 사이 사이에 넣어 간격을 조정하여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p> <p>○행가래질 칠 때 장난이 섞이면 땅에 떨어뜨려 다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서로 협동해서 주의해야 한다.</p> <p>○가능하면 왕관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으나 안되면 머리끈이나 기타 표시를 사용해도 괜찮다. 남녀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2가지 종류로 만드는 것이 좋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 style="text-align: center;">지정 다지기 노래</p> <p>○표 : 오른쪽으로 돈다. △표 : 왼쪽으로 돈다. ○에헤 드렷따 지저이야 △용천 상지 상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로다 △한번 달아서 천석이면 ○두번 달어 만석일세 △이뚝 다지가 뉘뚝인가 ○부모산아래 이호뚝일세 △만년 뚝을 달었으니 ○금년 해운도 풍년이로다. △조상님이 물린 터전 ○우리네 힘으로 지켜가세 △미호천 들에 풍년이 드니 ○부모산하에 태평건곤 △용신 제왕께 비를 빌고 ○일월 성신께 풍년을 빌세 ○부모산 방죽에 뭉친 힘을 △항우 장순들 당할 소냐</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20px;"> <div style="margin-right: 10px;">남자</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여자</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right;"> 색 을 달 리 한 다 </div> </div>

(10) 비석치기 놀이

1. 유 래

우리나라 곳 곳의 마을에 「장승 백이」 또는 「비석거리」라는 지명이 있다. 주로 농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의 장승이 서 있는 곳을 장승백이라 한다. 장승백이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문제, 즉 부락제나 기타 여러가지 일들을 의논하였던 곳이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마을공동의 문제를 민중들의 모여 토의하고 결정하던 곳이 바로 장승백이다. 이에 비해 비석거리란 말 뜻 그대로 비(碑)가 서있는 거리다. 비석거리는 장승백이와 달리 벼슬아치 등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또는 자기들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각종 기념물을 세웠는데, 이것중의 하나가 사람들의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세워논 이른바 송덕비라는 것이다. 송덕비란 바로 봉건적 관료체제의 정형적 소산물로 다수 민중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몇몇 관료층의 자기 자랑 및 자기과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눈에는 송덕비란 것이 곱게 보일 까닭이 없고 민중의 고혈위에 세워진 기념물들은 그것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뜻이 있을지 몰라도 봉건적 지배 질서에 묶여있던 대다수사람들에게는 아무 뜻도 없는 하나의 잘 다듬어진 돌덩이 또는 달갑지 않은 수탈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였을 것이다.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송덕비 앞에 지나갈 때 불끈 울화가 치솟으면 아니꼬운 비석에 대고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한 두번쯤 발길질로 비석을 차면서 평소 쌓여왔던 울분을 잠시나마 폭발시켰을 것이다.

비석치기란 바로 위와 같은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점차 놀이화되어 오늘에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로 자라잡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적 효과

- 놀이 방법을 익혀 즐거운 마음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 어린이 스스로 여러가지 놀이 방법을 창안하도록 유도하여 창조적 능력을 길러준다.

3. 준비물

- 직육면체 모양의 돌(가로 10cm, 세로 6cm정도)

4. 놀이 방법

자 료 내 용	유 의 점
1. 약 4~6cm의 거리를 두고 평행선을 그어 두 편으로 잘라서 각자 한 개씩 돌을 가지고 가위, 바위, 보에 진쪽은 자기돌을 선상에 세우고 이긴쪽은 돌을 던져 맞추어 넘긴다.	○저학년에게는 쉬운 것부터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지도한다.

자 료 내 용	유 의 점
<p>2.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를 적당히 선택하여 서로 협약해서 실시하며 최후까지 빨리 끝난팀이 이긴다.</p> <p>①제자리 <선상>에 서서 돌을 던져서 맞추어 넘기기</p> <p>②돌을 앞에 던져 놓고 한 발로 뛰어 발로 그 돌을 밟은 다음 그 자리에서 던져 맞춰 넘기기</p> <p>③발등에 돌을 얹어 놓고 3발 걸어가서 한계선에 놓인 상대의 세움돌을 넘기기</p> <p>④두 발사이 <무릎 사이, 오금사이>에 돌을 끼고 3발 뛰어 한계선에 놓인 상대의 세움돌을 넘기기</p> <p>⑤가슴의 <등위>에 돌을 얹어 놓고 걸어가 한계선에 놓인 세움돌을 맞춰 넘기기</p> <p>⑥겨드랑이에 돌을 끼고 3발 뛰어가서 팔을 벌리면서 한계선에 놓인 돌을 넘어 뜨리기</p> <p>⑦어깨에 <왼어깨, 오른어깨> 돌을 얹고 걸어가 한계선에 놓인 상대의 세움돌을 맞춰 넘기기</p> <p>⑧턱밑에 돌을 끼고 3발 뛰어 한계선에 놓인 세움돌을 맞춰 넘기기</p> <p>⑨이마에 돌을 얹고 걸어가서 한계선에 놓인 세움돌을 맞춰 넘기기</p> <p>⑩머리위에 돌을 얹고 걸어가서 한계선에 놓인 세움돌을 맞춰 넘기기</p>	

(11) 사방치기 놀이

1. 유 래

(1) 1930년 ~ 4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된 전래 놀이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며 근래에는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한다.

(2) 그밖에도 팔방치기, 16방치기 등이 있다.

2. 교육적 효과

- 재치있는 판단과 빠른 동작으로 순발력을 기른다.
- 즐겁고 유쾌한 활동으로 명랑한 기상을 기른다.
- 뒹뒹기와 몸의 평형성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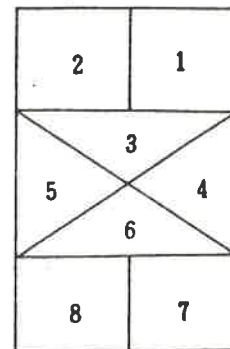
3. 준비물

- 납작한 돌(직경 8cm 가량) 각자 1개

4. 놀이 방법

[놀이 방법 1]

- ①말을 1칸에 던져 놓고 양감질로 2칸에 보낸다. 이때 말이 선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안된다.
- ②양감질로 2칸으로 건너가 돌을 3칸으로 보낸다.
- ③3칸에서는 4, 5, 6칸을 차례로 거쳐도 되고 직접 7칸으로 말을 보낼 수도 있다.
- ④4, 5, 6칸을 거칠 때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말을 보내면 된다.
- ⑤건너 뛰어 말을 7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다리를 벌려 4, 5칸을 딛고 양감질로 6, 7칸으로 건너 가서 말을 맨 끝칸인 8칸으로 보낸다. 이때 돌이나 발바닥이 선에 닿거나 선 밖으로 빠지면 안된다.
- ⑥3칸에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칸수를 거쳐 8칸에 이르는 어린이가 이기는 것이다.



[놀이방법 2]

- ①1칸에 말을 놓고 양감질로 말을 차서 2칸으로 보낸다.
- ②2칸 선 안에 말이 놓이면 1칸에서 2칸으로 건너 뛴다.
- ③다시 양감질로 3칸으로 건너 뛰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8칸까지 계속 말을 몬다.
- ④끝 칸 까지 말을 몰고 왔으면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 차례로 칸을 거쳐 1칸으로 말을 몰고 간다.

⑤돌과 발이 선에 닿는 등의 반칙을 범하지 않고 먼저 항복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놀이 방법 3]

두편으로 갈라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가는데 돌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센티 정도 세모꼴로써 한다. 먼저 일정한 거리를 재서 선을 그어 놓은 다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

①저쪽 선상에 세워 놓은 돌을 이쪽 선상에 서서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②돌을 던져 놓고 양감질로 한 발 뻗 다음 발로 차서 맞힌다.

③돌을 던져 놓은 다음 양감질로 세 발 뛰어가 발로 차서 맞힌다.

④돌을 오른 발등에 얹어 놓고 왼 발을 한 발자국 뻗 다음 발등의 돌을 던져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⑤돌을 오른속에 들고 가랑이 속으로 던져 맞힌다.

⑥돌을 배위에 얹어 놓고 걸어가서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⑦돌을 어깨위에 얹고 내려뜨려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⑧돌을 볼위에 얹은 다음 걸어가서 내려뜨려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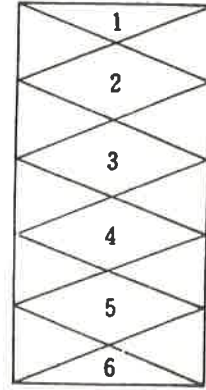
⑨돌을 이마위에 얹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걸어가서 내려뜨리면서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⑩돌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내려뜨리면서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이것을 <떡장수>라고 한다.

⑪돌을 가슴에 얹고 뒷걸음으로 걸어가 내려뜨려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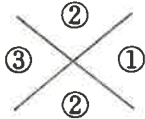
⑫돌을 허리에 얹고 뒷걸음으로 걸어가 내려뜨려 세워 놓은 돌을 맞히어 넘어지게 한다.

대략 이상과 같은 순서로 행하는데 어느 때고 세워 놓은 돌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면 실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놀이 방법 4]

(1) 놀이 형태 설명하기



※ 표 설명

△집(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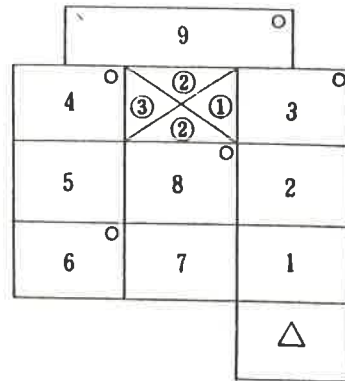
○쉬는 곳

①-한 발

②-동시 두 발

③-한 발

9-하늘(차고간 돌을 받는 곳)



(2) 팀 구성하기

○1조 20명(각 팀 10명씩) 4조로 나눈다.

(3) 놀이하기	유의점
<p>① 직경 8cm가량의 납작한 돌을 1번칸에 던지고 2번으로 한 다음 한다리를 들고 2번 칸으로 뛰어 간다.</p> <p>② 3번 칸에서는 두 발로 선다.</p> <p>③ 3번 칸에서는 ×표를 지나 4번칸까지 갈 수 있도록 돌을 찬 다음 ①번은 한 다리로 ②번은 두 다리로 벌려 섰다가 다시 ③번은 한 다리로 선 다음 4번칸에 두발로 선다.</p> <p>④ 5, 6, 7, 8순으로 ○표 있는 곳은 두 발로 서고, ○표가 없는 곳은 한 발로 돌을 차고 가서 ×표를 건너 9번까지 간다.</p> <p>⑤ 9번에서 돌을 발등에 올려 놓고 돌을 위로 차올려 한 손으로 받아서 8, 7, 6, 5순으로 되돌아 온다. 9번까지 먼저 끝나는 편이 이긴다.</p> <p>⑥ 다음에 2번칸에 돌을 던져 놓고 위와 같은 식으로 돌아 나온다.</p>	<p>○돌을 던질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맞지 않게 주의 시킨다.</p> <p>○돌이나 발이 금에 닿으면 아웃이 되고 다음 아동이 하게 된다.</p> <p>○한편이 모두 아웃이 되면 다른 편이 하게 된다.</p>

(12) 씨름 놀이

1. 유 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자 운동경기의 하나로 한문으로 각회, 각력, 각저라고 부른다.

넓은 마당에서 허리와 다리에 띠나 삼바를 두른 두 장정이 마주 꿇어 앉아 각기 한 손으로는 상대방 허리 띠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리의 띠를 잡은 다음 심판관의 호령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 먼저 상대방을 넘어 뜨림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이다.

씨름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원씨름,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주로 하는 오른 씨름, 충청도에서 주로하는 띠씨름이 있으며 그 방법에는 배지기 등치기 등이 있다.

만주 통구에 있는 각서총현실 좌우의 벽에 씨름경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고려사에 의하면 충혜왕은 씨름을 즐겨 동왕 5년(1344) 2월과 7월에 이를 관람한 기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도 성행하였 듯 하다.

이후 경향 각지에서 남자들의 놀음놀이로 단오, 백중날, 한가위, 농한기 등에 행해졌으며 특히 단오절에는 여자들의 그네 뛰기와 함께 연중행사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와 같이 범 민중놀이로 성장해온 씨름은 1910년 대에 이르러 씨름 단체나 기관의 주관 아래 씨름 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1927년에 <조선 씨름 협회>가 조직되어 1941년에 까지 6회의 씨름 대회를 열었다. 광복 이후에는 <대한 씨름협회>가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도록 각종 씨름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2. 교육적 효과

○씨름을 통하여 신체의 발달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자 운동경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하며 굳센 힘과 슬기로운 재치성을 기른다.

○신체의 근력과 빠른 판단력을 기른다.

3. 준비물

(1) 경기장






- ① 실외 경기장은 모래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장의 높이는 50cm이상으로 하고 넓이는 직경 7m의 원형으로 한다.
- ② 실내 경기장은 원칙적으로 매트로 시설한다. 넓이의 직경은 7m의 원형으로 하고 위험선은 위와 동일하다.
- ③ 경기장 시설시는 경기장 밖 좌우편에 출입구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용구

국민학생 삼바는 광목 한 폭에 길이 2m 60cm이내로 하고 둘레의 크기는 허벅다리 크기

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만든다.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씨름의 종류</p> <p>① 앉은 씨름</p> <p>② 외다리 씨름</p> <p>③ 당기기와 밀기</p> <p>④ 한손 씨름(평균넘어뜨리기)</p> <p>⑤ 줄 씨름</p> <p>⑥ 팔 씨름</p> <p>⑦ 등 씨름</p> <p>⑧ 씨름(통씨름)</p> <p>(2) 종류별 경기 방법</p> <p>① 앉은 씨름</p> <p>○일정한 크기의 원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앉아서 힘을 내서 서로 원밖으로 밀어내게 하든지 또는 공동방아를 찢게 한다.</p> <p>○청백이나 분단 대항으로 일제히 실시해 본다.</p> <p>② 외다리 씨름</p> <p>○일정한 크기의 원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외다리(양감질)로 서서 서로 힘을 내어 몸과 몸을 부딪쳐서 상대방을 원 밖으로 밀어내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한다.</p> <p>③ 당기기와 밀기<1></p> <p>○두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서 선을 그어 놓고 오른손을 서로 잡고 끌어 당겨서 상대방을 자기편으로 끌어온다든지 또는 서로 두 손을 마주잡고 일정한 지점까지 밀어내기 경쟁도 한다.</p>	<p>반칙행위</p> <p>① 목을 조르거나 비틀어 쥐는 행위</p> <p>② 팔을 비틀거나 쥐는 행위</p> <p>③ 머리로 받는 행위</p> <p>④ 발로 차는 행위</p> <p>⑤ 왼쪽 주먹으로 치는 행위</p> <p>⑥ 경고를 받고도 재차 반칙을 되풀이하는 경우</p> <p>○모래밭, 잔디밭, 매트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장소를 선택한다.</p> <p>○얼굴을 밀지 못하게 하고 의복을 잡지 말고 손톱을 짧게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기게 된다.</p> <p>⑧ 씨름(통씨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박뉘거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뉘거리</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배지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두등배지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무릎</p> </div> </div> <p>○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허리에 맨 띠를 맞잡고 여러 가지 방법(안뉘거리, 박뉘거리, 배지기, 두루배지기, 안무릎)을 써서 상대방의 어린이를 넘어뜨리면 이긴다.</p> <p>○청·백이나 분단으로 대항시켜서 흥미있게 지도해 본다.</p>	<p>○씨름장의 모래를 잘 정리하여 위험방지에 노력한다.</p> <p>○씨름 기술면에 있어서는 주로 다리와 팔동작의 기초기술을 지도하기도 한다.</p>

(13) 연날리기 놀이

1. 유 래

연을 기연, 풍쟁, 풍연이라고도 한다.

삼국지에 의하면 신라 진덕왕 1년(647년) 김유신이 비담염종의 반란을 토벌할 때 연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확실히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삼국시대 전장에서 자기네 진지끼리 통신연락을 하는데에도 연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려말에 내려 와서는 최영이 몽고인들의 반란을 평정할 때에 적에게 공격수단으로 연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에는 영조가 백성들의 연날리기를 구경하고 장려하여 그때부터 연날리기는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궁중의 양귀비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연을 만들어 편지를 띄웠다는 유래가 있다.

일본에서는 10세기 경인 헤이안조시대에 편찬된 책에 지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연은 일본이나 중국의 것이 어류, 조류, 인상류 등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대개 장방형 사각형이며 또 중앙에 구멍이 있어 강한 바람을 받아도 잘빠져 연체가 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연은 70여 종류가 있으나 기본형태는 모두 장방형이고 여기에 칠하는 색깔이나 붙이는 색종이의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데 크게 꼭지연, 반달연, 치마연, 둥이연, 초연, 발연, 박이연의 7가지와 기타 것으로 나눈다.

연날리기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날에 걸쳐 연을 띄워 보내는 놀이로서 액연 띄운다 하여 연 뒤에다 액이나 송액, 송액영복 등의 글자를 써서 높이 날리고 실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날리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하였으며 서로의 연줄을 닿게 하여 남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도 즐겼다. 따라서 연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연줄에 돌가루, 구리가루, 사기가루, 등을 발라 탄 연줄을 잘 끊도록 하는데 이것을 갬치 먹인다고 한다.

연바탕에 송액영복 등의 축원문과 연 날리는 사람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날려보내면 지난 해의 문혀온 모든 액과 앞으로 일년 동안 있을 나쁜 운수가 일소된다는 속신이 있는바, 이를 송연 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해를 좀더 복되게 맞이하려는 민중의 소박한 염원의 잔치로 화려하게 베풀어졌던 연날리기는 구한말의 격변기를 지나 일제의 식민통치에 접어들면서 부터 점차 빛을 잃게되었다.

그 후 일제가 패망하여 이 땅에서 물러 갔으나 광복 이후의 혼란기 그리고 6·25 사변등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연 날리기를 비롯한 동래 충무동지의 <연 날리기 보급회>가 중심되어 이의 전승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2. 교육적 효과

○연날리기를 통하여 높은 기상과 창의력을 기른다.

○민속놀이를 이해하고 생활을 명랑하게 하며 연의 모양 및 무늬를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준비물

(1) 재료

가. 종이

닥나무와 삼지닥나무 껍질로 만든 이쁜바 한지를 사용한다.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은 중간 두께의 종이가 좋다. 종이에 물칠을 하고 다듬이질을 한 다음 다라미로 구김살 없게 잘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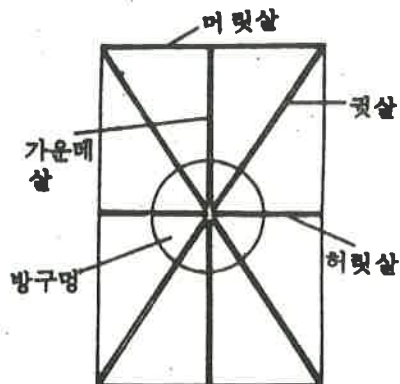
나. 대나무

물기가 완전히 빠진 대나무로 왕대 또는 참대, 백간죽 등이 연살로 쓰이는데, 구부러졌다가 탄력있게 펴지는 것이 좋다. 뗏가지를 잘 말리기 위해서는 1년동안 지붕 처마나 서까래 밑에 뗏가지를 꽂아 둘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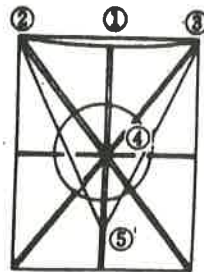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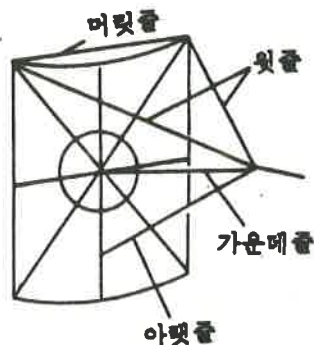
(2) 만들기(방패연)

방패연의 규격 비율은 태극기와 거의 같으나 각 지방의 풍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패연을 표준으로 한다.

(가로, 세로의 비 2:3)



〈방패연의 부분 명칭〉



(3) 연 만들 때의 주의 사항

첫째, 연 날리는 곳의 풍세를 참작하여 연의 크기를 정한다.

둘째, 방구멍 역시 바람의 셈, 여림에 따라 크게 또는 작게 낸다.

셋째, 목줄을 잘매야 한다. 목줄을 쓸데없이 많이 매거나 길게 매면 연이 잘 뜨지 않는다.

(4) 연실과 열레

① 연실

연실은 가볍고 질겨야 한다. 명주실과 무명실이 많이 사용되며 근래에는 나일론실을 쓰고 있기도 하다. 연실을 보다 질기고 역세게 하기 위해 연실에다 <개미>를 입힌다.

곱게 뿜는 유리나 사기 가루를 부레풀, 또는 아교풀 등에 섞어서 실에 입힌다. 햇볕에 잘 말린 다음 다시 한 번 더 입힌다.

실에다 <개미>를 먹일 때는 보통 3~4 사람이 일을 분담하는데 한 사람은 실을 풀고, 또 한 사람은 <개미>를 먹이고, 나머지 사람은 <개미>를 먹인 실을 열레에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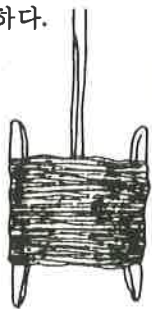
<개미>를 먹인 연실은 서늘이 생겨서 질겨질 뿐만 아니라 실이 유연해진다.

② 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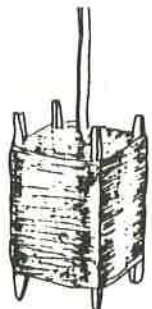
연실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연을 조종하는 열레(지방에 따라서 자새, 감새, 연실꾸리라고도 함)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 구조는 같다. 열레는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대개 잣나무, 참나무 등을 쓴다.

열레의 종류는 손자루(보통 대나무를 사용함) 둘레의 기둥 수에 따라 나누어 진다. 어린이들은 보통 기둥이 2개 달린 <이모열레, 납작열레>나 4개 달린 <사모열레>를 많이 사용하고, 경기용으로는 <육모열레> 또는 <팔모열레>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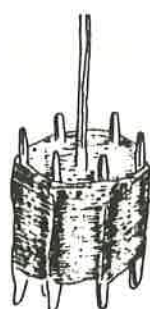
이모나 사모일 때보다 원형에 가까운 육모와 팔모 열레가 연실을 빨리감고 풀어주는 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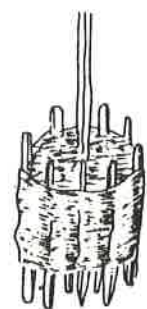
<이모열레>



<사모열레>



<육모열레>



<팔모열레>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① 높이 띄우기</p> <p>연을 약 500m이상 띄우면 연의 무늬가 보이지 않고, 약 1,000m가량 높이 띄우면 눈에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그 이상이 넘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p> <p>② 재주부리기</p> <p>연 날리는 이의 손놀림에 따라 연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급회전, 급강하, 급상승 등 다양한 공중곡예를 부린다. 이는 연날리는 솜씨에도 달려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만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이와 같은 기동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p> <p>③ 끊어먹기(연 싸움)</p> <p>대표적인 연 놀이로, 연줄이 교차하여 서로 연실을 비벼서 끊어먹기를 겨룬다. 끊어 먹기의 승부는 연실의 질감과 약함에도 달려 있지만 그보다도 연의 조정 기술에 좌우되는 것이다. 끊어 먹기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p> <p>㉠바람의 흐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p> <p>㉡연과 열레의 각도를 항상 4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p> <p>㉢상대편의 연이 바람을 타고 떠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상대편의 연에 접근하지 않는다.</p> <p>㉣상대편의 연이 접근하여 공격할 때는 바람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이편의 연을 재빨리 상대편의 연실에 거는 것이 유리하다.</p> <p>㉤이 때 상대편 연이 머리를 돌려서 물러갈 때 거는 것이 이 편이 불리하다.</p> <p>㉥연이 서로 얹혀서 약 500m 이상 풀어주었다고 생각되면 될 수 있는 한 연실이 땅에 닿지 않도록 풀어서 조종한다.</p>	<p>○연은 높이 멀리 올라갈수록 바람을 세차게 받기 때문에 연이 파손되거나 연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p> <p>○세계 각국의 연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연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④ 모양 보기</p> <p>여러가지 재미있는 형태의 <병형연> 또는 <창작연>을 공중에 띄워 놓고, 그 모양을 보는 것이다. 사람형상의 인물연, 새, 물고기, 짐승의 동물연 등 연의 형태는 연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p>	

(14) 윷 놀 이

1. 유 래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갖가지 민속놀이가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는 남녀의 성별이나 노소 또는 귀천의 구별없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놀이로 윷놀이를 들 수 있다.

정초 명절이 되면 이곳 저곳에서 흥겨운 윷놀이판이 벌어지는데 남자들은 동네 마당이나 집 안뜰에 멍석 또는 가마니를 펴 놓고 여자들은 안방이나 마루방에 방석을 깔아 놓고 윷가락을 내던져, 윷가락이 떨어지고 젖혀지는 데에 따라 웃음꽃이 만발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민속으로 알려진 윷놀이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유래나 기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이 없다. 다만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몇몇 분의 고구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윷놀이는 원래 중국의 저포란 놀이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포착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② 저포 또는 격양 등의 중국 놀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들 놀이보다는 몽고의 고속인 살한이라는 놀이가 윷놀이와 유사한 점이 더 많다고 한다.
- ③ 윷놀이판의 도·개·걸·윷·모 등의 부여의 관직 명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와 유사함을 들어 당시 부여의 관제를 본뜬 것이 윷놀이판이라 한다. 따라서 윷놀이의 기원도 고구려나 부여 당시의 오랜 옛날로 소급해 볼 수 있다고 한다.
- ④ 옛날에는 윷놀이를 하여 그 해의 농사를 점쳤다고 한다. 즉 세초에 농민들은 산농, 수향으로 편을 지어 윷놀이를 겨루었다. 이렇게 하여 그 해 농사가 고지대와 저지대 중 어느 곳에 풍년이 들것인가를 예측했던 것이다.
- ⑤ 윷놀이를 치는 점을 윷점이라 한다.
윷을 세 번 던져 각기 나온 결과를 그것에 맞는 점사를 보고 풀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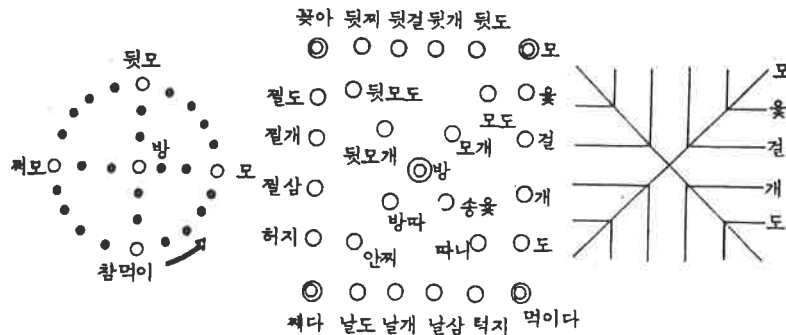
2. 교육적 효과

설과 추석을 전후한 한국 고유의 명절에 즐기는 놀이임을 알고, 놀이 방법과 윷을 던지고 진행 시키는 요령을 안다.

- 규칙을 지켜 즐겁게 놀이하는 동안에 전래 놀이의 좋은 점을 발전하여 전승해 나가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 우애와 화목을 도모하는 여가선용 활용으로 윷놀이를 응용한다.
- 윷가락의 형태 및 색채 등을 학생들의 미적 감각에 맞도록 연구하게 하여 학생 스스로 윷가락과 윷판을 만들게 한다.
- 놀이 방법 역시 재래의 방법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놀이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창안 하도록 지도한다.

3. 준비물

○장작웃이나 밤웃, 말-바둑알(모양과 색채를 달리하면 좋음), 웃판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말판을 펴 놓고 2명 또는 3명이(인원이 많으면 편을 갈라서) 행하는 데 먼저 웃을 던져 선후의 차례를 정한다.</p> <p>(2) 상대방과 교대로 웃을 던져서 나타난 것을 보아 첫발에서 부터 말을 써서 말 4개가 모두 날발을 먼저 나가는 편이 이기게 된다.</p> <p>(3) 말판의 발을 지나가는데는 돌아가는 길과 질러가는 길이 있어서 잘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쓰고 못 씴에 따라서도 승패가 좌우됨을 유념시킨다.</p> <p>(4) 웃을 던져 정해진 자리 안에서 떨어진 상태에 따라 득점을 확인한다.</p> <p>① 웃 1개가 져터지면 : 도(1점) ② 웃 2개가 져터지면 : 개(2점) ③ 웃 3개가 져터지면 : 절(3점) ④ 웃 4개가 져터지면 : 웃(4점) ⑤ 웃 5개가 져터지면 : 모(5점)</p>	<p>○전학년 남녀 공히 행할 수 있는 놀이임을 알린다.</p> <p>○방석, 담요, 돛자리, 명석 등에 금을 그어 밖으로 나가면 무효로 하면 더 흥미있다.</p> <p>○예지와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자기편의 리더가 되어 말을 쓰도록 함이 좋다.</p> <p>○웃이나 모가 나왔을 때는 계속해 웃을 다룬다.</p> <p>○득점의 위치에 상대방 말이 있을 때는 이를 잡아 실격시켜 치우고 자기 말을 그 자리에 놓고 또 웃을 다룬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5) 득점을 상호 확인하여 윗판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말을 진행시켜 놓는다.</p> <p>(6) 말의 진행 요령상 득점 여하에 따라 말 2개 이상을 겹쳐서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p> <p>(7) 윗놀이 승패의 판결은 인원수에 따라 한동나기(말 1개씩)로 부터 일곱동나기(7개씩)까지 할 수 있으나 보통 넉통판(말 4개씩나기)놀이를 한다.</p>	<p>○득점에 의하여 멈춰지는 자리가 모, 뒷모, 방, 찌모 일때는 참먹이 쪽으로 말을 진행시킨다.</p> <p>○승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양을 높인다.</p>

(15) 자치기 놀이

1. 유 래

자치기는 놀이 이름 그대로 자 즉,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놀이를 말한다.

땅바닥에 선을 긋거나 흙을 파서 집을 정하고 편을 갈라 한 편은 집에서 어미자(긴 막대기)로 새끼자(짧은 막대기)를 쳐서 날려보내면, 다른 한 편은 이것을 받거나 주워서 집으로 던지며 노는 것이다.

넓은 장소와 막대기 둘만 있으면 어느 때고 쉽사리 놀이를 벌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 사이에 성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다른 어린이 놀이처럼 자치기 역시 그 유래를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데 별다른 놀이도구가 없었던 옛 시절에 소년들의 상상력은 흔해빠진 막대기 같은 것을 훌륭한 놀이도구로 응용하여 자치기와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고안해 낸 것으로 믿어진다.

2. 교육 효과

- 자치기는 국민학교생과 중학교생에서 적합한 놀이로 온몸 운동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 여러사람이 같이 즐기기 때문에 준법 협동성을 기른다.
- 자로 거리를 재니까 실측 등 셈 연습이 된다.
- 근력, 지구력을 기르고 과감성과 합리적 태도를 기른다.

3. 준비물

<용구>

어미자 — 긴 막대기 약 50~60cm

새끼자 = 짧은 막대기 약 10~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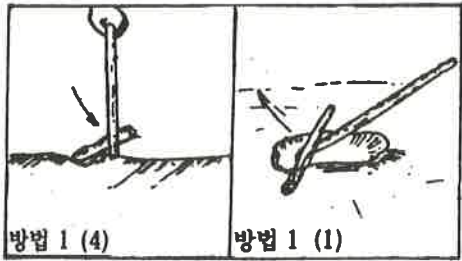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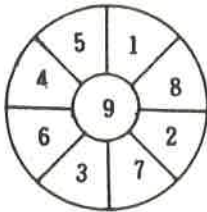
<시설>

땅바닥에 원을 긋거나 또는 구멍을 파서 집을 만든다.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방법 1</p> <p>(1) 우선 땅 바닥에 깊이 3cm, 길이 10~15cm가량의 흙을 파 놓고 그 흙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는 것이다.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별로 청·백 두 팀으로 나누고 이긴팀은 흙있는 곳을, 진팀은 바깥을 각각 차지한다. 자치기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p>	<p>○ 최근에는 땅 바닥에 흙을 파는 대신 간단하게 직경 1m정도의 원을 그리고 원가운데에 서서 새끼자를 어미자로 치거나 혹은 바른손 만으로 어미자와 새끼자를 같이 쥐고있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2) 제1단계는 파놓은 흙 앞에서 새끼자(작은 막대기)를 흙 위에 가로놓고 어미자(큰 막대기)로 청팀이 백팀을 향하여 튕긴다. 백팀은 전면에서 있다가 어미자로 튕겨낸 새끼자를 받으려고 한다. 만일 백팀의 아이가 손으로 받으면 무조건 50자를 따는 대신 청팀의 아이는 “아웃”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백팀이 아무도 새끼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땅에 떨어진 새끼자를 집어서 청팀의 흙에 가로 질러 놓은 어미자를 맞혀야 한다. 이때에 못맞히면 청팀은 제2단계로 넘어간다.</p> <p>(3) 제2단계는 새끼자의 한 끝을 왼쪽 손가락으로 눌러 어뜨려 잡고서 오른손의 어미자로 새끼자를 때려 앞쪽으로 멀리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제1단계와 마찬가지로 백팀이 새끼자를 받으면 50자를 얻고 못 받으면 흙있는 곳으로 새끼자를 던져 주어야 한다. 그때에 자를 치던 청팀 어린이는 던져온 새끼자를 어미자로 때려 멀리 보낸다. 만일에 헛 때리거나 때린 새끼자가 흙에서 한자 이내 떨어지면 청팀 어린이는 “아웃”이 된다. 또 청팀이 되 때린 새끼자를 백팀이 받아도 역시 “아웃”이 된다. 그러나 백팀이 되때린 새끼자를 받지 못하였으면 어미자로 재어서 몇자 더 얻은 것이 되어서 앞에 얻은 잣수에 보탠다.</p>	<p>가 새끼자를 공중에 날리고 어미자로 치거나 한다.</p> <p>○새끼자의 양끝을 뽕죽하게 깎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급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끝을 둥글게 만든 「플라스틱」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p> <p>○손에 흙이 많이 묻게 되므로 주위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p>
<p>(4) 제3단계는 흙 앞 끝에다 새끼자를 비스듬히 놓고 그 끝을 어미자로 툭 쳐서 공중에 떠오르게 한 다음 공중에 뜬 새끼자를 다시 어미자로 때려 멀리 내던지는 것이다. 만일에 내던진 새끼자를 백팀이 받으면 무조건 100자를 따게 되고 못 받으면 청팀이 새끼자가 흙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을 어미자로 계산하여 따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느 단계를 막론하고 새끼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흙보다 뒤로 떨어지면 그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웃”이 되는 것이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div data-bbox="318 283 776 541">  </div> <p data-bbox="224 569 305 600">방법 2</p> <p data-bbox="224 615 854 911">(1) 「가위 바위 보」로 선후를 정한 다음 이긴편의 한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새끼자(작은 막대기)를 수표(원형으로 된곳)쪽으로 던져 그 새끼자가 들어간 칸의 수대로 어미자로 새끼자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새끼자를 던졌을때 그것이 숫자칸에 들지 못하면 “아웃”이 되어서 제1차전이 끝날때까지 쉬어야 한다.</p> <div data-bbox="425 919 630 1129">  </div> <p data-bbox="224 1234 854 1583">(2) 숫자칸에 들은 만큼 어미자로 새끼자를 친 다음에는 새끼자가 날아간 장소에서 수표까지의 거리로 어미자로 기준해서 목측으로 친 사람이 계산한다. 그리하여 상대방 사람이 볼때 그수가 못될성 싶으면 실제로 어미자를 가지고 재어본다. 재어본 결과도 친 사람이 부른 수와 같으면 그사람이 득점이 되고 만일 부른수가 못될 경우에는 친 사람은 “아웃”이 되고 다음 사람으로 교체한다.</p> <p data-bbox="224 1640 854 1808">(3) 이와 같은 순서로 하며 사람들이 전원 “아웃”이 되면 교대하여 상대방 사람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다가 끝나게 될때 양편 득점수에 따라서 승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ata-bbox="902 216 1154 247">유 의 점</p> <p data-bbox="902 258 1227 380">○수표를 정도에 따라 적당하게 조절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p>

(16) 제기 차기

1. 유 래

음력 정초를 전후한 겨울철 놀이로 소년들 사이에 성해해 오는 제기차기는 그 기원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고안된 축국 놀이에서 제기차기가 연유 되었다고 한다.

오랜 연대를 거쳐온 축국은 후세에 이르러 점차 쇠퇴하여 없어지게 되고 그것을 본뜬 <제기차기>만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조선조 시대에는 축국을 우리 말 음으로 <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후 <적이>란 말은 <제기>로 바뀌게 되었고 그 놀이 방법도 공을 차올리는 것에서 오늘에 보이는 바와 같이 놀이 형태로 변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 놀이에 대한 유래는 확실히 문헌에 밝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음력 정월이 되면 많이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 지방에서 많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

2. 교육 효과

- 국민학생과 중학생에게 적합한 놀이로 정신 집중력을 길러주며 아울러 몸 운동에 효과적이다.
- 한 번이라도 더 차올려야 이기게 되므로 지구력과 인내력을 길러준다.
- 팔 다리와 상체 운동의 관계를 항상 유의하고 몸 전체의 유연성을 기른다.
- 승부를 거르면서도 재미있고 서로 사이 좋게 노는 태도를 기른다.
- 제기를 만드는 재료 및 그 형태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성을 유발하게 한다.

3. 준비물

(1) 놀이 용구

<제기>

구멍 뚫린 엽전이나 둥근 쇠붙이와 창호지, 또는 닭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만든다.

- ①창호지(길이 약 10cm)를 10여 가닥으로 오라기를 내고 한쪽 끝을 실로 동여매어 종이술을 만든다.
- ②닭털(길이 약 10cm) 10여개를 총채처럼 만들고 그 밑등을 실로 동여맨다.
- ③엽전(쇠붙이) 구멍에 형짚이나 실을 사용하여 앞서 만든 종이술이나 닭털을 꿰매어 제기>를 만든다.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놀이의 방법</p> <p>주로 남자 아이들이 많이하는 개인놀이의 일종으로서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p> <p>① 발 안 쪽으로 차기</p> <p>○제기를 찰 때마다 오른쪽(왼쪽)발을 땅에 대면서 발 안쪽으로 찬다(맨제기).</p> <p>○오른쪽(왼쪽) 발을 땅에 대지않고 계속해서 제기를 발 안쪽으로 찬다(개치구).</p> <p>○오른쪽 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발 안쪽으로 찬다.</p> <p>② 발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차기 (쌍발 제기)</p> <p>○제기를 찰때마다 오른쪽(왼쪽) 발을 땅에 대면서 발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찬다.</p> <p>○오른쪽(왼쪽)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계속해서 발 안쪽과 발 바깥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찬다.</p> <p>③ 승부 정하기와 규칙</p> <p>○찬 수를 세어서 승부를 정하되 편을 나누어 단체적으로 할 때는 찬수를 누계해서 승부를 결정한다.</p> <p>○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제기를 던져주고 이긴 사람은 이를 멀리 차버린다.</p> <p>○이긴 사람이 찬 제기를 진 사람이 받으면 놀이가 일단 끝나게 된다.</p> <p>○또 이긴 사람이 찬 제기를 진 사람이 발로 도로 받아차면 협약에 따라서 서로의 경우가 바뀌지기도 한다.</p> <p><종 들이기></p> <p>제기차기에서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이른바 종을 들인다. 즉, 이긴 사람 앞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진 사람이 제기를 이긴 사람에게 던져 준다. 헛발질을 하거나 차 낸 제기를 종 들이는 편이 받아내면 <종 들이기>가 끝난다.</p>	<p>○동작은 경쾌하고 흥겹게 실시되도록 한다.</p> <p>○동근원을 그려서 차는 자리에 정해서 실시해도 좋다.</p> <p>○편을 나누어 실시 할 때는 한편의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전체 활동량이 줄어든다.(많아도 10명이내 정도로)</p>

(17) 줄넘기 놀이

1. 유 래

줄넘기는 공기놀이와 더불어 주로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 성행되어 오는 놀이로 지역에 제한없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줄만 있으면 아무 때고 쉽사리 놀이를 벌일 수 있을뿐더러 놀이 장소 역시 몇몇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 어린이들이 즐겨오는 것 같다.

줄넘기는 민첩성을 길러주는 온 몸 운동으로 어린이의 신체 발육에 적합한 놀이이다.

줄넘기 역시 다른 어린이 놀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생활속에서 자연히 우리나라와 전승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2. 교육적 효과

○줄넘기 운동은 리드미칼한 도약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운동이다.

○특히 도약력과 각력을 기르며 운동량이 많아 겨울철 운동으로 알맞으며 타 운동의 준비 정리 운동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3.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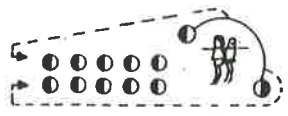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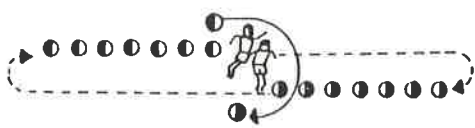
(1) 짧은줄(개인용):줄 양 끝을 손으로 잡고 끈의 중간을 발로 밟고 섰을때 양쪽 겨드랑이까지 올 수 있는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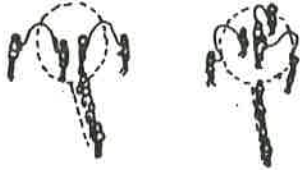
(2) 긴 줄(단체용):놀이 방법과 인원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줄.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줄넘기 방법</p> <p>①짧은 줄을 자기가 돌리면서 넘는 방법</p> <p>②긴 줄을 다른 사람이 돌리는 것을 넘는 방법</p> <p>③다른 사람이 돌리는 긴 줄에 짧은 줄을 자기가 돌리면서 넘는 방법 등이 있다.</p> <p>(2) 줄넘기의 기초</p>	<p>○저학년은 단체 넘기는 어렵고 혼자 넘기도 쉬운 것부터 차례로 지도한다.</p> <p>○대형은 교사들의 창의와 인원에 따라 자유로한다.</p> <p>○줄을 휘돌리는 아동은 줄 넘기를 잘하는 아동으로 한다.</p> <p>○한 팀에서 넘는 아동수는 5~6명으로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⑤몸 옆으로 굽히며 넘기-몸을 옆으로 번갈아 굽히며 넘는다.(그림7)</p> <p>⑥수평으로 휘돌리며 넘기-줄을 둘로 접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땅에 수평으로 줄을 휘돌리며 한발씩 넘는다.(그림8)</p> <p>(4) 단체 넘기</p> <p>① 들어가고 나오며 넘기</p> <p>○둘이서 휘둘러 주며 줄속에 들어가고 몇번 넘고 다시 줄밖으로 나온다.</p>  <p>②한줄 셋이 넘기</p> <p>○한 사람이 넘고 있는 줄속에 앞뒤로 들어가 셋이서 넘는다.</p>  <p>③ 셋이서 넘기</p> <p>○한 줄을 두 사람이 휘둘리고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세 사람이 같이 넘는다.</p>  <p>④ 두 줄 넘기</p> <p>○두개의 줄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그림과 같이 돌려 주면 그 속에 들어가 줄을 넘는다. 이때 줄이 순(順) 역(逆)으로 휘둘러지는 것을 넘어야 하므로 속도와 줄 돌리기의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p> 	<p>○들어가고 나오기를 구령에 따라 똑같이 해야 한다.</p> <p>○셋이 넘기를 할때 줄을 돌리는 사람은 키가 크고 줄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5) 줄넘기를 이용한 놀이</p> <p>① 줄넘기 릴레이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거리를 달리며 줄넘기 릴레이를 한다. 이때 배턴은 줄넘기 줄로 대신하게 한다.</p> <p>② 가위, 바위, 보 줄넘기 긴줄을 두 사람이 돌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리면서 노래에 맞춰 두사람이 줄을 넘으면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사람은 나오고 다음 경기자가 들어가서 되풀이 한다. 이때 줄에 걸리면 실격이 된다. 긴줄 사이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노래에 맞추거나 일정한 횟수를 공 튀기고 나온다. 이외에도 공을 이용하여 공을 주고 받으며 넘기·공 가지고 머리 위, 몸옆, 뒤쪽 등 지시한대로 동작 하면서 넘기 등이 있다.</p> <p>④ 정면으로 넘고 자리 바꾸기</p>  <p>⑤ 둘이서 넘고 제자리 돌아오기</p>  <p>⑥ 서로 엇갈려 넘기</p>  <p>○ 중앙에서 2사람이 줄을 돌리고 양쪽에서 뛰어와 동시에 넘는다.</p>	<p>○ 거리는 20~30m가 적당하다.</p> <p>○ 들어가고 나올때 리듬에 맞춰서 재치있게 하여야 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⑦ 8자 줄넘기</p>  <p>○그림과 같이 줄넘는 사람이 8자를 그리는 것 같이 순차적으로 넘는 줄넘기이다.</p> <p>⑧ 돌아오기 줄넘기</p> <p>○교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줄넘고 돌아와서 다시 줄을 넘는다.</p> <p>⑨ 네 사람이 엇갈려 같이 뛰기</p>  <p>○그림과 같이 4사람씩 긴 줄 넘기를 한다. 이때 손을 잡고 넘게도 한다.</p> <p>⑩ 줄 두(세)개 넘고 돌아오기</p>  <p>○그림과 같이 줄 넘기를 한다.</p>	<p>○네사람이 구령에 맞춰서 넘도록 한다.</p> <p>○고학년 아동들만 할수 있는 놀이이다.</p>

(18) 줄다리기 놀이

1. 유 래

명절날 부락 사람들이 그들 부락의 힘과 단결력을 겨루기 위하여 행해진 놀이로 본다.

<줄다리기>는 동남 아시아 일대의 해안과 평야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그 기원을 농경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생활권에 두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재에도 그렇지만 농어민의 생활양상은 자연 현상의 변화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폭풍우, 홍수, 가뭄 등은 애써 가꾸어 기른 농작물은 물론 농토마저 결단내기 일췌이고, 고기잡이 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자연 현상 아래 공동 운명체인 농어민들은 줄다리기와 같은 놀이를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보다 풍요한 생산을 기원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는 주로 중부 이남 지방에서 행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성행했던 곳은 경상도의 진주, 창녕, 안동, 경주 등지라고 하며, 멀리는 제주도에 분포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바와같이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농어민의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줄다리기를 할때, 줄을 당기는 두편을 각기 암줄, 숫줄로 정하여 암줄 즉 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을 용에 비유하여 용과 비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밀접한 상호 연관이 있다고 믿어, 가뭄때 기우제의 한 행사로 줄다리를 벌인 지방도 있었다고 한다.(울산, 진주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민의 일차적인 생활목표인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염원에 결하여 공동체적 연대감을 한층 더 결속, 다짐하는 뜻에서 줄다리기와 같은 놀이가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적 효과

○상호간의 협동에 이루어지는 놀이 이므로 협동 정신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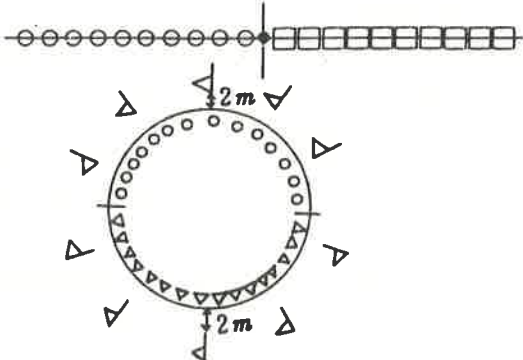
○놀이속에서 인내력과 지구력을 기른다.

3. 준비물

○줄다리기 줄

○기 10개 빨강, 파랑 굵은 밧줄 50m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방법 1> 놀이원형 밧줄을 굵게 꼬아 양쪽 부락의 대표자들이 각기 한줄씩(정 중간 위치에 천으로 끼워서 표시) 잡고 서로 당기어서 자기편으로 끌어오면 이긴다. 한 부락에서 힘센 청년 10여명씩 나와서 각자 최선을 다해 줄을 당긴다.</p>  <p>(1) 위 그림과 같이 밧줄의 양끝을 묶어 원을 만들어 땅에 놓은 후 각각 양쪽 끝 밧줄에서 2m떨어진 지점에 기를 꽂는다.</p> <p>(2) 학급전체 어린이를(저학년인 경우) 두팀으로 나눈다. 양팀의 어린이들은 밧줄 안으로 들어가 밧줄을 허리까지 올리고 정돈을 한다음 ‘시작’또는 호르루기 소리에 맞추어 있는 힘을 다하여 밧줄을 끌어깃대 있는 곳까지 간다.</p> <p>(3) 먼저 깃대 있는 곳에 이르는 팀이 이기게 된다.</p> <p>(4) 1회 또는 3회를 하여 승패를 겨룰 수 있다.</p>	<p>○시작 하기전에 조금씩 나가면 안된다.</p> <p>○손으로 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한쪽팀이 너무 세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p> <p>○줄 매듭 사이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한다.</p>

(19) 공기놀이

1. 유 래

공기놀이는 여자 어린이들, 특히 국민 학생들 사이에 크게 성행되고 있다. 지금 성인이 된 여자로서 어렸을 때 놀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놀이는 줄넘기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자 어린이 놀이로 손꼽을 수 있다. 아무 때, 아무곳이든 두 사람 이상의 어린이만 모이면 별다른 준비없이 공기돌만 있으면 쉽사리 놀이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어린이에게 환영받는 놀이로 널리 보급되어 온 것 같다.

공기놀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고, 추측컨대 돌맹이나 나뭇가지 등의 자연물을 응용하여 놀이 도구로 사용하였던 옛 시절의 어린이들이 고안해 낸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적 효과

- 공기놀이는 체력에 관계없이 여러 학생이 같이 놀 수 있어 협동심과 준법성을 길러준다.
- 판단력과 말초 신경의 감각 훈련에 도움이 되고 저학년에서는 수개념이 명료 지는데 도움을 준다.
- 공깃돌의 모양과 색채 그리고, 놀이 방법을 어린이들 스스로 창안하도록 놀이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

3. 준비물

- 공깃돌 「다섯알 공기」-손등에 모두 얹을 수 있는 조그맣고 둥그런 모양의 공깃돌 5개
「많은 공기」-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공깃돌

4. 놀이 방법

공기놀이는 두 사람 이상의 어린이가 모여서 편을 짜고 노는데, 그 놀이 종류를 편의상 「다섯알 공기」와 「많은 공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다섯알 공기></p> <p>① 손에 잡은 공깃돌 5개를 바닥에 흘뜨린다.</p> <p>② 한알집기-다섯알 중 한알을 손가락으로 집어내 위로 던지고 이것이 떨어지는 동안 바닥에 있는 공깃돌 중 한알을 집은 후 떨어지는 공깃돌을 손바닥에 받는다.</p> <p>③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알 집기, 세알 집기를 한다.</p>	<p>○ 공깃돌을 집을 때 집은 공깃돌이 다른 공깃돌을 건드리면 실격이 된다.</p> <p>○ 바닥에 있는 공깃돌을 쓸어잡고 위로 던져 밑으로 떨어지는 공깃돌을 받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④네알집기-손바닥에 공깃돌을 모두 쥐고 한 알을 위로 던지고 나머지 돌을 바닥에 놓은 다음, 바닥의 공깃돌을 쓸어쥐고 떨어지는 돌을 받는다.</p> <p>⑤한알 집기에서 네알 집기까지 끝내면 손바닥에 공깃돌을 모두 얹어 놓고 위로 던진 다음, 재빨리 떨어지는 공깃돌을 손등으로 받는다.</p> <p>⑥손등에 얹힌 공깃돌을 그대로 위로 던져 올리고 손을 뒤집어 다시 손바닥으로 이것을 잡는다.</p> <p>⑦손바닥에 잡힌 공깃돌의 수에 따라 연을 계산한다. (1년, 1년~5년,</p>	<p>○손등에 얹혀 있는 공깃돌을 던져 잡을 때 실수하여 모두 잡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p>

(20) 장치기 놀이

1. 유 래

장치기 놀이는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놀아져 왔지만 이제는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 놀이는 오늘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것으로 여러사람이 같은 수로 편을 갈라 나무토막 등을 긴 막대기로쳐서 상대방의 문 안에 들여넣는 놀이다.

돌을 던져가며 서로 싸우는 편 싸움과 같이 장치기 역시 그 인원을 농경시대 이전으로 소급해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하여 사용하던 돌이나 몽둥이가 점차 놀이의 도구로 쓰이게 되고 이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놀이가 격식을 갖추어 점차 민중놀이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산악지대 특히 지리산 줄기인 영·호남 지방에서 옛부터 성행한 놀이로 나뭇꾼들이 떼지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지계를 내려놓고 작대기로 술방울을 굴러가며 편을 짜 놀던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옛 풍습과 놀이를 기록한 형초세시기에 보면 장치기는 격구 시구지회의 변형으로 신라시대 중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말과 이조 중엽에 성행했다고 한다. 이조 중엽에는 장치기가 무과 시험의 한 과목이기도 했다.

2. 교육적 효과

○건전한 놀이에 대한 흥미를 갖게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왕성한 신체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각 학년에 맞는 놀이 방법 및 규칙등을 제정하여 통일을 기한다.

3. 준비물

(1) 땅매:길이 80~100cm 지름 3cm정도의 막대 또는 대나무(끝이 약간 구부러진 것이 좋음) 선수 수대로

(2) 공(짱공):지름 6~10cm의 고무공 또는 이와 유사한 것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1) 놀이순서 ①한팀의 인원은 10~15명이 적당하나 가감할 수 있다. ②30m×60m정도의 넓이의 양쪽에 골문을 정한다(인원이 많으면 운동장 전체 이용)	○경기장이 너무 협소하면 다치기 쉬우니 넉넉하게 할 것 ○저학년은 특히 안전에 주의할 것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③심판이 경기장의 중앙지점(센터 씨클, 지름 약 2m의 원)에서 공을 높이 던져서 게임을 시작한다.</p> <p>④현대의 「필드하키」와 흡수하며 공을 땅매로 쳐서 자기편에 패스하고 상대방의 골에 넣는다.</p> <p>⑤풀인된 득점수(일정시간)로 승부를 정한다.</p> <p>(2) 규 칙</p> <p>①땅매로 사람을 치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반칙으로 퇴장 시킨다. (공은 상대방에)</p> <p>②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면 「나간다」고 소리를 지른다.</p> <p>③공을 발이나 손으로 치면 반칙(문지기는 공을 손 발로 막고 던질 수 있다.)</p>	<p>○학년에 따라 놀이시간을 조절할 것.</p> <p>○땅매의 끝부분을 새끼나 봉대로 감는 것이 안전함.</p> <p>○시작할 때 공이 던져지면 합성을 지른다.</p> <p>※참고사항</p> <p>○선수의 수는 임의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경기장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적당한 물건으로 고을문의 양쪽을 표시해 둔다.</p> <p>○페널티 에어리어는 두지 않는다.</p>

(21) 차전놀이(동채싸움)

1. 유 래

차전 놀이의 유래에 대한 확실한 문헌은 없고 구전되어 오는 두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후백제왕 견훤은 원래 지령이었으나 사람으로 변모되어 경북 안동 땅에 왔다. 안동사람들이 지령이를 몰아내기 위하여 소금배를 낙동강에 풀어 물을 짜게 만들어 읍민들이 모두 나와 팔짱을 끼고 어깨로 지령이를 밀어 강물에 떨어뜨려 죽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안동사람들은 지령이를 떠밀 때처럼 떼지어 동채싸움(차전놀이)을 하게 되었다. 동채 싸움은 손을 전연 쓰지 않고 오직 어깨로 상대방을 밀어낸다고 한다.

또 하나의 전설도 견훤과 관계 있는 것으로, 고려 태조 왕건은 견훤과 안동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 때 안동 사람 김선평, 권행, 장길 세 사람이 가담하여 견훤을 패하게 하였으니 이 세 장군을 삼태사라 칭하고 이들의충성심을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차전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차전놀이 흔히 '차전' '차전놀이' 등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본래 '동채싸움' '동태싸움'등의 명칭이 있었다.

안동 지방의 축제로 그 명맥을 즐기차게 뻗어 오던 동채 싸움은 1922년경 일제의 탄압 정책으로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 근 반세기동안 빛을 보지 못하였다가 1966년에 이르러 안동 중고교생 500여명에 의하여 재현되었다. 1966년에는 사단법인 안동차전놀이 보급회가 설립되어 이놀이의 전승 및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1966년에는 중요무형문화제 제24호로 지정되었다.

2. 교육적 효과

○단합된 마음으로 용감한 기상과 협동정신 태도를 기른다.

○승부에만 그치지 않고 힘의 통일을 통한 전체미를 감득할 수 있고 현실에 맞게 적절히 구성할 수 있다.

3. 복 장

대 장:옛 장군의 투구 또는 모자를 쓰고 긴이 전투복장을 한다.

기 수:운동복과 운동모

머릿군:운동복, 머리 띠 또는 운동모

동채군:운동복, 머리 띠 또는 운동모

4. 놀이 방법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p>(1) 놀이 대원의 편성 대 장:각군별 1명 기 수:각군별 1명이상 동책군:각군별 20~30명정도 (동채 크기에 따라) 머릿군:남은 인원 전원</p> <p>(2) 놀이의 요령</p> <p>①지휘자가 중앙에 서서 신호로 개전선언, 양편 기수는 선언과 동시에 기를 좌우로 3번 흔든다. 이때 대장은 오른팔을 위로 올리며 “동부야!(서부야!)”하고 합성을 지른다. 이에 따라 동책군과 머릿군은 일제히 위(또는 야)-하며 동책군은 동채를 3번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p> <p>②대장의 신호에 따라 “얼사덜사(또는 영차영차)”를 연호하면서 전진한다.</p> <p>③동채머리가 가까와지면 머릿군과 기수는 옆으로 물러서고 서로 기회를 노려 동채머리를 엇갈이 누르려 한다. 이 때 약세일 경우는 후퇴 혹은 회전하여 진용을 가다듬고 다시 전진하여 싸운다.</p> <p>④동채가 땅에 닿으면 패자가 되는데 닿는 즉시 승패의 신호를 한다.</p> <p>⑤승패가 결정되면 원위치에 되돌아 가고 패자는 동채를 땅에 내린다. “만세!”를 부를 때 이긴쪽은 “만세!”와 함께 동채를 위로 올리고 머릿군은 팔을 올린다.</p>	<p>○양편군의 거리는 약 30m</p> <p>○지휘자는 항상 동채머리 부근에서 승부와 위협도를 살핀다.</p> <p>위험을 느꼈을시는 즉시 호투루기를 붙여 전원이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p> <p>그리고 나서 서서히 후퇴를 시켜서 다시 접전토록 한다.</p> <p>(연습시에 이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사고방지)</p>

방 법 및 지 도 내 용	유 의 점
<div data-bbox="289 296 722 69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75 749 409 791" data-label="Section-Header"> <p>⑥대장의 행동신호</p> </div> <div data-bbox="203 795 821 879" data-label="Text"> <p>모든 행동은 대장의 고삐를 안 잡은 “손바닥”을 보 고 행한다.</p> </div>	

22) 등불써기

오천면 장고도에서 400여년 전부터
1960년대까지 전해내려오던 청소년들의
풍어기원 놀이로 제 5 회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놀이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등불을 켜고”



뒷동산에 올라 제를 지내면



서해의 고기떼가 모여든다.(홍어, 도미, 조기 등)

우리고장의 세시풍속

우리고장 세시풍속의 개념

이 책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풍속을 월별로 대표적인 것만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녀 오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쌓아 올린 국가 중의 하나다.

그러나, 대륙인 중국과 문화적인 교류로 인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 민속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 반면, 우리의 것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이런 우리의 민속을 모아 총정리한 책이 바로 조선 말엽에 홍석모(洪錫謨)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김대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등이다.

이들이 기록해 놓은 명절 민속 중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것은 약 절반 정도이다. 설·한식·단오·유두·칠석·추석·중양절·상달·동지·제석 등 중요한 민속은 아직까지도 거의 그대로, 또는 일부 변한 상태로 전해 내려온다. 그런, 자질구레한 민속일수록 쇠퇴해 없어져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는 과학의 발달로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은 급속도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날이나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로 남아 있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좋은 민속은 후손된 도리로서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것을 진부한 옛것이었다라고 하여 배척함은 주체 의식을 잃는 행동이다.

나를 먼저 알고 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문화면일수록 내 나라, 내 민족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내 것을 알아야겠다. 내 주체의 한 부분인 우리 민속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일수록 외국 것에 몰들기 전에 내 것을 한번 훑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우리민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보자들을 위하여 우리 조상들의 민속을 쉽게 소개해 본 것이다.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고루 널리 자료를 모아 보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서술하던 방식에 따라 날짜별로 민속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연원이나 변천 과정에는 깊이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민속의 대체를 알아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맛과 여유, 인정과 의기, 충효 사상 등을 체득함으로써 전통을 살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데에 이 책 기술의 주안점이 있다 하겠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일독하고서 우리 민속의 장점을 알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좀 더 이 방면에 흥미를 느끼는 분은 다음 단계의 문헌을 찾아 공부하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우리 고장의 세시풍속

1. 正月의 풍속

(1) 설날 차례

설날은 일년의 첫날이라 세수(歲首) 또는 연수(年首)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설 또는 원일(元日)이라고 한다.

설날을 맞기 전인 설달 그믐 저녁 때는 설달 음식은 물론이려니와 우선 집안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모든 때물은 나쁜 것을 쓸어 없애 버리고 새해를 맞으려는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찌기 각 가정에서는 넓직한 대청이나 안방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세찬)을 정성스럽게 차려 놓은 다음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차례를 지내는데 신주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4대조의 신주를 모셔 두며 차례 때에는 차례대로 제사하고 보통 제사때에는 해당분에게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은 각 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과일, 나물류, 포(胞), 식혜, 어탕, 육탕, 소탕, 적(炙), 기름에 튀긴 전(煎)을 어류(魚類), 육류(肉類), 밥, 국을 진설하는 데 노른집과 소른집간 진설법이 다르다.

각 가통에 따라 잔을 올리고 오른쪽에는 떡을 왼쪽에 시저를 향함, 향로, 모사그릇과 퇴주그릇도 술병에 술을 올리고 제사한다.

서울풍속으로 이날 사랑에 제사 올리는 것을 차례(茶禮)라 한다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전한다. 이러한 차례는 옛날부터의 오랜 관습에 의하여 고향에 돌아와서 지내며 설날의 중심행사라 할 수 있다.

설날에는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몸과 마음의 근신을 하였던 것으로 설날을 신일(愼日)이라 하는 것도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에서이다.

(2) 세 배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가족 모두 설빔(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자리를 정리해 앉는다.

이 때 조부모, 부모님께 절하고 백숙부모, 형님, 누님 등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차례로 절하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을 일컬어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할 때는 웃어른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차례로 세배를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등의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 때 세배를 받는 사람도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기를 바라네” 하는 식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

(3) 설 빔

설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찍 일어나 깨끗이 세수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정갈한 새옷을 입는데 이 새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설빔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가을부터 옷감을 마련하는데 정도에 따라 어른들은 있는 옷을 잘 빨아 다시 만들고, 아이들은 새 옷감을 사다 새옷으로 마련하는데 아이들은 설날 입을 새옷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서로 자랑하기 마련이다.

옛날에는 어른은 두루마기 또는 도포까지 입었다. 바지 저고리에는 두툼한 솜을 넣어 엄동설한에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예쁜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한다. 이 설빔은 대체로 대보름날까지 입는다.

(4) 설음식

설날에 마련한 음식을 일컬어 설음식(歲饌)이라 하고, 설날술을 세주(歲酒)라고 한다.

설음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떡국이다. 꾸미로는 보통 쇠고기, 꿩고기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해물 굴로 꾸미하여 끓이기도 한다.

떡국 한 그릇에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을 서로 인사하며 실감나게 하였다.

(5) 덕 담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새해 인사를 교환하는데 이것을 덕담(德談)이라고 한다.

웃어른께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연소한 사람에게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게”, “새해 복 많이 받게” 하는 등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일로 서로 축하한다.

(6) 성 묘

설날에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서 성묘를 한다. 생존한 어른께 세배를 드리듯이 사별한 조상에게도 세배를 드리는 것이 상통하는 이치이다.

(7) 복조리

설날 그믐날 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전해져 온다. 이 조리가 복을 가져 온다고 하여 『복조리』라 한다.

또한 이 지방에서는 정월 보름까지 장날에 복조리 장사가 “복조리 사시요”하며 다니는데 대개 1년 동안 쓸 만큼 사다 방 대청 귀퉁이에 걸어 놓으면 1년 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8) 삼재 면하는 법

삼재(三災)란 액운의 해, 즉 불교에서 말하는 세가지 재난으로써 큰 범위의 삼재에는 수

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가 있고, 작은 의미의 삼재에는 인간의 수명이 열살이 될 때까지 생기는 도병재(刀兵災), 질병재(疾疫災), 기근재(饑饉災)가 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운과 불행을 겪기 마련인데, 이러한 불행이 든 해를 삼재년 또는 액년이라 한다.

삼재는 십이지(十二支)로 따져서 사(巳), 유(酉), 축(丑)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亥), 자(子), 축(丑)해에 삼재가 들고, 해(亥), 묘(卯), 미(未)에 태어난 사람은 사(巳), 오(午), 미(未)해에 인(寅), 오(午), 술(戌)해에 난 사람은 신(申), 유(酉), 술(戌)해에 삼재가 든다고 한다.

이러한 삼재는 모두 같이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라도 삼재의 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삼재를 맞이한 사람은 액을 쫓고 삼재를 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닥쳐 온다고 한다.

이렇듯 삼재는 십이지에 따라 9년마다 들게 되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설날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문설주에 붙여야 한다. 그리고 삼재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슨 일이라도 조심을 한다.

(9) 토정비결

정초에는 새해의 운수를 알기 위하여 여러가지 점을 많이 보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토정비결』이라 하겠다.

먼저 나이에 당년택세(當年太歲)를 찾아서 수치표에서 그해 태세의 수치를 찾아 그 숫자를 나이에 합한 후 8로 나누어 남는 숫자가 상괘(上卦)가 된다. 다음 그해 난 달의 대소를 큰달은 30일 작은달은 29일로 놓고, 그달의 월건(달의 지수)을 찾아 수치표의 월건 수치의 숫자와 합산하고 6으로 나누어, 남은 수로 중괘(中卦)를 만든다.

그 다음 그해 생일의 일건의 수치를 수치표에서 찾아내어 그 숫자를 생일수와 합하여 3으로 나누어서 남는 숫자를 하괘(下卦)로 삼는다. 이것으로 각각 작괘(作卦)하여 합한 것이 당년 운괘인 것이다.

사람들은 토정비결을 꼭 믿어서가 아니라 거의 습관적으로 아니면 재미로 연초에는 대개 한 번 정도 보기마련이며 가장 일반화된 점복이라 하겠다.

(10) 윷놀이

윷놀이는 대체로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대보름날까지 행해지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놀이로서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 한다.

윷놀이는 남녀노소 혹은 빈부귀천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놀이이며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 즐길수 있는 오락이다.

대개 윷판(말판쓰기) 윷놀이로 두사람부터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편끼리 소리내고 응원하면서 상대를 익살주고 하는 재미로운 놀이이다. 편끼리 단결력도 주고 상대편과 여러가지 내기도 하여 승부도 겹하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놀이이다.

또한 정경도(승경도) 놀이는 어른들이 즐겨서 했으며 그해 희망을 주는 즐거움도 있다.

(11) 널뛰기

정초에 여성들이 하는 놀이로 대표적인 것이 널뛰기이다. 이것은 길다란 널판을 이용하는데 널판 가운데에 짚단, 가마니 뭉치로 괴어 놓고 양끝에 한사람씩 마주 올라서서 발을 굴러 높이 솟아 뛰는 것이다. 높이 솟을 때에는 몇자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는 상대방이 뛰었다가 내려 디디는 반동으로 높이 떨어 수 있는 것이다.

정초에는 새로 장만한 울긋불긋한 고운 빗살의 설빔을 입었으니 바람에 치마자락을 나부끼며 공중에 솟아오르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하다.

주로 널뛰기를 하는 여인들은 다리힘과 운동신경이 좋은 소녀와 젊은 부인들이었다.

(12) 안택제

안택제(安宅祭)는 정월 보름 전날부터 그믐까지 행해진다.

준비한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안택경(安宅經)을 읽게 하는데 이것이 안택제이다.

이것을 지내는 것은 한 해 동안 재앙을 막고 복을 빌고저 하는 이유에서이다. 안택은 무당이 터주신을 비롯하여 조상신, 동신등을 제사하며 재앙, 질병, 화액을 쫓고 가내의 평안이 목적이다.

대개 안택제를 못하는 집에서는 정성껏 간단한 음식준비를 하여 저녁에 거리제를 짚을 깔아놓고 지낸다.

(13) 귀밝이술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술을 한잔씩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남녀노소 모두다 마시는데 이 술을(耳明酒)라 한다.

이렇게 부럼을 깨물면서 (1년내내)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나지 말라) 기원한다.

(14) 부럼깨기

정월 대보름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날밤, 호도, 잣, 은행 등 딱딱한 껍질의 과일을 깨무는데 이를 『부럼깨다』고 한다.

이렇게 부럼을 깨물면서 (1년내내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나지 말라) 기원한다.

(15) 오곡밥

정월 대보름날에는 다섯가지 이상의 곡식으로 섞어 지은 밥을 먹는데, 이것이 오곡밥이다.

보통때에는 한 두가지 곡식을 섞어 짓는 것이 고작이지만 대보름날에는 한꺼번에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밥을 지어 먹어야만 한다. 또 이날엔 세집 이상의 다른 성(姓)을 가진 집의 밥을 얻어 먹어야 그해의 운이 좋다는 속설이 있어 여러집에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이날은 아홉번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틈틈이 먹는다고 한다.

(16) 더위팔기

정월 대보름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이웃에 사는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 더위를 판다. 이웃을 찾아가 아무게하고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하고 말하면 더위를 판 것이 되어서 더위를 판 사람은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지만 멋모르고 더위를 사간 사람은 두사람 몫의 더위를 먹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보름날 더위를 팔려고 이름을 불렀을 경우 대답대신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응수하면 도리어 더위를 팔려했던 사람이 더위를 먹게 된다.

이러한 더위팔기 풍습은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가축들의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개에게는 해가 뜨기 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개목에 등글게 하여 걸어주고 소나 돼지의 목에는 원새끼를 꼬아서 목에 걸어 준다. 이렇듯 원새끼를 목에 걸어주는 귀신을 묶었다는 고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며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가지는 악귀를 쫓는 민족적 주술로 쓰이는 일이 많아 더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데서 유래했을 것이다.

옛날에는 입춘일 아침에 더위팔기를 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날에 한다.

(17) 모깃불

정초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문 밖으로 내가는 것을 금기로 하기 때문에 방은 물론 마당을 쓴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14일 밤에 불을 놓아 태운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모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모깃불』이라고 한다.

(18) 매귀(埋鬼)

매귀는 악귀를 쫓아내는 민속적 행사로서 정초와 대보름 사이에 농악을 앞세우고 머리에 고깔을 쓴 후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춤추고 덕담이 담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집집을 방문하여 모은 기금은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이 한해동안 태평하고 가문이 번성한다고 한다.

매귀는 우리 충청도 지방에서 행하는 데 경상도의 지신밟기와 비슷한 풍속이다.

(19) 연날리기

정초에는 남성들의 놀이에 연날리기가 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어른들은 그리 흔히 하지는 않는다.

연을 날리는 시기는 설날에서 대보름 사이에 가장 많이 하며 이르게는 설달 중순께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겨울 동안 날리던 연은 대보름이 지나면 날리지 않는다. 정월 대보름에 연에다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이니 하는 식의 여러가지 액(厄)을 뜻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날려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해의 재액을 멀리 날려 보낸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액연 띄운다』 혹은 『액연 날린다』고 한다.

* 절 기 *

일년 중 절기(節氣)는 24절기가 있다.

특히 우리지방에 가장 알맞는 절기가 아닌가 한다. 대략 음력으로 매월 두번씩 들게 되는 절기는 윤년에 드는 윤달에도 그 달 두달 중에 치중되어 들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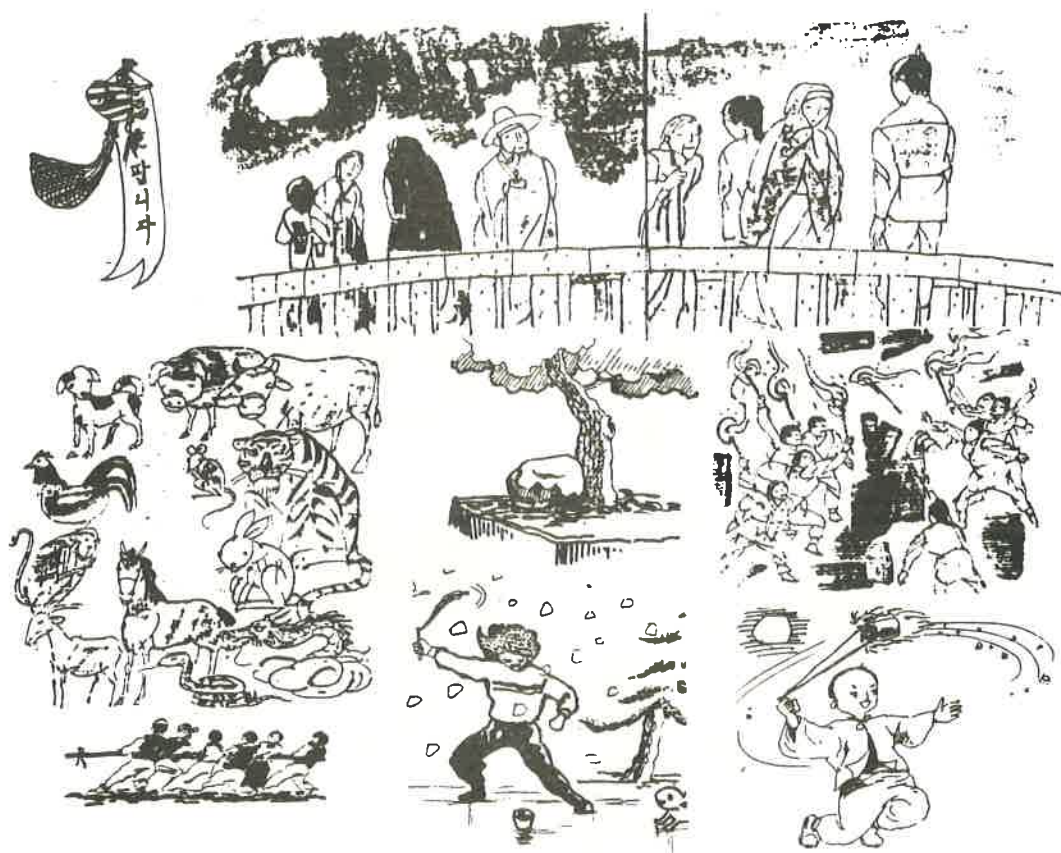
그리고 그 절기마다 지나는 시간이 꼭 있어 정확성이 있음을 민력(民曆)에서 나타내 줌으로 특히 농경(農耕)에 지표(地標)가 되고 세상 만물(萬物)에 변화와 생장촉진 순환을 주는 이치(理致)라고 보겠다.

(20) 입춘(立春), 춘축(春祝)

입춘일에는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각 가정에서 난간, 대들보, 기둥, 천정, 대문 등에 좋은 뜻을 가진 글귀를 써서 시간을 찾아 붙이는 데 이를 춘축이라 한다.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만 써붙이지 않으나 다른 가정에서는 손수 입춘축을 쓰며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해서 써 붙이기도 한다.





2. 2월의 풍속

(1) 콩볶기

각 가정에서는 2월 초하룻날 콩을 볶는다.

술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후 주걱으로 타지 않게 저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 하고 축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쥐와 새가 없어져 곡식을 축내지 않는다고 한다.

또 콩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콩을 볶을 때 보리를 약간 섞어 한 되가 되게 하여 볶은 다음 다시 담아 한 되가 넘으면 풍년이 들고 모자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지금도 콩을 볶아 먹는 집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콩엿을 사서 먹기도 한다.

(2) 머슴날

농가에서는 2월 초하룻날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2월이 되면 한해의 농사준비를 시작해야 하므로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오랫동안 쉬던 머슴들이 하루를 즐겁게 쉴수 있도록 한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한턱 내고 머슴들은 농악을 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보낸다.

(3) 춘계문묘석전

2월에 들어 첫 정일(丁日)에는 해마다 전국의 문묘에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이것을 춘계문묘석전(春季文廟釋奠) 혹은 춘계석전이라 한다.

문묘는 일명 향고라고도 한다. 공자(孔子) 및 유현(儒賢)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한 곳으로서 대개 각 군에서는 하나씩 있으며, 이 문묘석전은 봄, 가을 두차례 행하는 데 가을에는 8월 상정일에 지낸다.

춘계문묘석전은 유생들에 의해 진행되는 전형적인 유교행사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것은 신라 31대 신문왕 2년에 당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의 석전이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이다.

(4) 경칩(驚蟄)

우수 경칩 절기가 오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한다.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는 뜻이다. 겨울동안 잠자고 있던 개구리가 동면(冬眠)에서 깨어나서 양지 바른 산골짜기로 어느새 나와 논물가에 알을 까 놓는다. 이 알몽텅이가 우무처럼 엉켜 있는 것이 경칩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떠다 마시게 되면 허리 아픈 것이 좋아지고, 남자들의 낭습중에 특효라 하여 경칩을 전후하여 즐겨 먹는다.

(5) 춘분(春分)

절기로 긴 겨울이 가고 봄의 계절로 바뀐다는 춘분이다. 세상만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눈을 뜨게 되고 농가에서는 한해의 농사준비가 시작된다.



3. 3월의 풍속

(1) 삼짇날

3월3일을 보통『삼짇날』이라고 하며 한자로는『상사(上巳)』,『원사(元巳)』 또는『상제(上除)』라고도 한다.

3월 삼짇날에는 강남갔던 제비도 옛집을 찾아온다고 하며 각 가지의 나비들도 피어난 갖가지 꽃을 찾아 선을 보인다. 사람들은 나비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라고 하며 흰나비를 보면 그 해에 상복을 입게 되는 흉조이다.

삼짇날을 다른 말로『답청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들판에 나가 꽃들을 보며 풍류를 즐기고 새 풀을 밟아 봄을 즐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청명절(淸明節)

이 날은 대개 낮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묘지의 풀을 깎는데 이를『벌초(伐草)』라고 하며 묘주위에 식물을 하며 산소에 새 잔디를 입히기도 한다. 이를 사초라고 한다.

(3) 한식(寒食)

한식은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청명절과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청명절 후일이 되기도 하며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이 날은 술, 과일, 나물, 포, 탕, 적 등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산소에 가서 묘제를 행하니 이것을 성묘, 절사라고 하는데 한식에는 산에 남녀가 연이어 오고가고 하며 지낸다.

(4) 곡우(穀雨)

완연한 봄날이 되니 촉촉히 봄비가 내려 산천초목을 소생시키고 농가에서는 논물을 대고 농사 준비에 바쁘게 된다.





4. 4월의 풍속

(1) 초파일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고 전해지며 속불일(俗佛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초파일은 절에 찾아가 제를 올리고 연등하는 풍속이 있으며 저녁에는 신자들이 줄을 지어 거리를 도는데 이를 제등행렬(提燈行列)이라 한다.

절에 가족 각자의 이름을 써서 현등하고는 “만등불사하니 소원성취해 주소서” 라고 빈다.

(2) 입하(立夏)

절기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들어서는 날이다.

(3) 소만(小滿)

이 지방은 서해안 바다에 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대천어항에 집하되는 어패류가 급격히 많아졌다.

특히 소만사리때가 되면 생선의 산란기가 되어 그 맛이 대단한 가운데 그 중에도 칠산 바다 갈치, 연평바다 조기하면 맛이 일품이다.



5. 5월의 풍속

(1) 단오(端午)

5월5일은 단오, 수리, 중오절, 천중절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순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 한다.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이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말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또 수리란 高, 上, 神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어로 5월5일은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이 날엔 머슴들에게 옷도 한벌씩 해주며 흥을 돋워주는 등 많은 놀이도 성행하였다.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와 얼굴을 씻고 그네뛰기도 하고 남자들은 씨름 등의 놀이를 하였다.

그래서 이 날을 단오를 차리기 위한 소중오라 하였다.

(2) 망종(芒種)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가리도 하게 된다. 망종을 넘기면 비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다.

망종날에 천둥치면 연사가 시원하지 않고 불길하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꺼려 한다.

(3) 하지(夏至)

구슬땀이 흐르는 여름으로 접어들어 농작물의 생장축진이 되어 무성해지는 때이다.

(4) 두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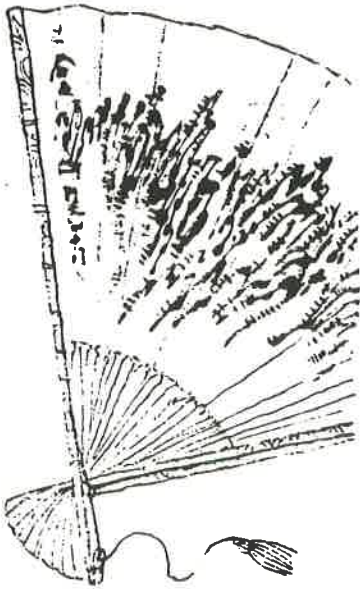
농사가 풍년이 드는 해마다 동네마다 논매기에 바빠 품앗이로 두레가 나게 된다.

차례로 먼저 매야 하는 논 주인집에서부터 술, 밥을 지어내어 진탕하게 때깃을 먹이게 된다.

두레가 났다 하면 농악패가 앞서는데 동남동녀 색동옷을 치마, 저고리 입혀 이를 꽃붕이라 하고 어깨위에 올려 세워 춤추게 하고 다같이 농요를 부르며 일꾼들은 호미로 논바닥 흙을 타 넘기어 풀을 못나게 하는 작업을 신나게 농요를 따라하는데 힘드는 줄 모르게 이 논에서 저 논으로 넘어간다.

이 동네에서 두레가 났다 하면 다투어 이웃동네에서도 나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이웃동네에 논이 있어 두레끼리 맞부딪게 되면 두레싸움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 해 농사가 끝날때까지 이웃 동네가 힘겨루기를 한다.

좋은 예로 셋터패와 오랏패와의 다툼은 끈질겼다고 전한다.



6. 6월의 풍속

(1) 유두(流頭)

음력 6월15일을 유두날이라고 한다. 이 유두란 말은 『東流頭沐浴』이란 말의 약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신라 시대의 옛말의 뜻을 취한 이두(吏讀)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즉 유두(유頭)를 수두(水頭)라고 표기하며 이는 수두, 곧 『물마리』로 그 뜻은 머리에 물을 맞는 것이므로 『물마리』가 후대에 『물맞이』로 전음되었다.

(2) 소서(小暑)

(3) 대서(大暑)

(4) 삼복(三伏)

하지부터 세째 경일(庚日)을 초복, 네째 경일을 중복, 입추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삼복이라 한다.

소서, 대서, 삼복 더위란 여름 동안에 최고 더위의 한 대목이다. 복중에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에 찾는 욕객(浴客)이 하루 10만 인파가 모인다.



7. 7월의 풍속

(1) 칠석(七夕)

7월7일을 칠석이라 한다.

이는 직녀와 견우에 대한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선녀인 직녀와 목동인 견우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각자 직녀성과 견우성에 유배되어 1년에 한번씩만 만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은하수가 가로 놓여 만날 수가 없게 되자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놓아준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밟고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칠석날 저녁에 비가 오면 직녀와 견우가 재회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고,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오면 슬픈 눈물이라고 전하여 진다.

또 7일엔 옷과 책을 별에 말리는 풍습이 있다. 여름 장마철 내내 장롱에 넣어둔 옷들이 습기가 차서 썩이 슬거나 썩기 쉬우므로 햇볕에 말리는 것이다.

(2) 백종날(百種日)

7월15일은 백종날이라고 한다.

이 날 승려들은 절에서 제(齋)를 올리는 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배척됨에 따라 제만 올리게 되었다.

『우란분경(우란분경)』에 목련비구(석가모니 생존시 남자 제자)가 오미(五味) 시고, 찌고, 맵고, 쓴맛의 다섯 음식과 백종(온갖 과일)의 과일을 갖추어 모든 부처에게 공양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백종일』이란 백과(百果)를 가리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보인다.

(3) 호미 씻기

농촌에서는 백종날 호미씻기라 하여 각 부락의 농민들이 주식(酒食)을 내어 농부의 휴일인 만큼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술을 권하며 샷갓을 씻우고 소 위에 태운 후 온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머슴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한턱 낸다. 그래서 머슴날이라고 한다. 이것을 호미씻기라 하니, 그것은 백종날 무렵이 되면 논, 밭일은 다 끝나고 호미는 사용치 않게 되어 이를 씻어두고 즐기며 노는 것을 말한다.

(4) 입추(立秋)

벌써 가을의 문턱으로 다다랐다는 절기이다.

(5) 처서(處暑)

삼복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와 닿는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을 하는 것이 한창이다.

(6) 벌초(伐草)

추석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란 잡초를 베어주는 것을 벌초라 한다.

봄 한식때 묘를 손질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여름 내내 자란 풀들을 깎아 벌초를 하는 것이다. 특히 벌초하는 날은 그 달 중에서 손과 재앙이 없는 좋은 날로 택하기 때문에 추석 보름전이 될 수 있고 일주일 전이기도 한다. 대개 7월 그믐께를 택한다.



8. 8월의 풍속

(1) 추석(秋夕)

음력 8월15일은 추석, 가배일(嘉俳日), 중추절(仲秋節), 가위, 한가위 등으로 불리워진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정월 초하루 설날과 같이 큰 명절로 치는 날 중의 하나이다.

추석은 가장 달이 밝고 기후가 서늘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1년중 가장 좋은 때이다.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새옷으로 갈아 입고 햇곡으로 빻은 송편과 술,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나면 묘를 찾아 성묘를 하였다. 저녁이 되면 먼 곳에서 온 친척들과 모여 앉아서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기원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이 때가 농촌에서는 즐거운 때로서 『5월 농부, 8월 신선』이란 말이 있는가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갈아라』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2) 추기문묘석전

8월에 들어 첫정일(丁日)에는 문묘(향교)에서는 공자 및 기타 유현에게 드리는 『춘제석전』이 있다.

(3) 백로(白露)

계절적으로 이 때가 되면 대개 가뭄이 온다. 그래서 밤에는 이슬이 내려 농작물의 해갈을 면케 된다고 한다.

또한 이 때가 되면 마을길마다 사람이 다니는데 이슬이 채이게 되어 길땀이를 한다. 농촌에서는 하루를 정하여 한 가구 한 사람씩 나와 부역을 한다.

(4) 추분(秋分)

별써 가을의 분계선이 넘어간다는 추분이다.

(5)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놀이는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의 부녀자들의 특유한 놀이다. 추석날 밤에 새옷으로 단장한 마을의 부녀자들이 수십명 씩 한곳에 모여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노는 민족 전래의 놀이이다.

목청 좋은 사람이 맨 앞이나 원의 한복판에 들어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수월래’ 하고 후렴을 부르면서 춤을 추듯 돈다.

처음에는 진양조로 느리게 추다가 차츰 빨라져서 중머리-중중머리-자진머리로 변하

고, 선도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추다가 힘이 다하면 끝난다.

추석을 전후해서 전라남도의 해남 진도 무안 지방에 가면 어느 마을에사는 넓은 마당에 부녀자들이 모여 신나게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뛰노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강강수월래의 유래에 대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즉,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임진왜란 때 일이다.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게 우리쪽 군사의 수가 많음을 알리기 위해 마을의 부녀자를 동원하여 남자의 옷을 입혀 우수영 근처에 있는 옥매산을 빙빙 돌며 춤을 추게 하였다. 적군은 이순신의 군대가 많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던 뒤로 마을 사람들은 강강수월래 놀이를 했다. 강강수월래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해 낸 것이라고 한다.

강강수월래 노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창창 두창 밖에 강강수월래
건너초당 내다보니 강강수월래
범나비는 앞았길래 강강수월래
그 나비를 쳐다보니 강강수월래
일천 자 배운 글을 강강수월래
적수 만장 다 잊었네 강강수월래
서당 안의 학도들아 강강수월래
서당 밖의 학도들아 강강수월래
선생 앓은 눈을 보라 강강수월래
뽕 찰라는 매 눈이다 강강수월래
우리 부모 오시거든 강강수월래
매에 갹게 갔다 말고 강강수월래
글에 반에 갔다 하소 강강수월래
안새 안들 사랑 앞에 강강수월래
얀얀하다 봉사리꽃 강강수월래
철철마다 피려무나 강강수월래
우리같은 동자들은 강강수월래
어느 일에 또 만나게 강강수월래
갹배갹배 내 꼬물은 강강수월래
눈물삼아 살아보세 강강수월래
이화창창 밝은 달은 강강수월래
애울 삼아 살아보세 강강수월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강강수월래
너 뵈하러 나왔느나 강강수월래
술있 땃있 푸르길래 강강수월래
하절인 줄 알았더니 강강수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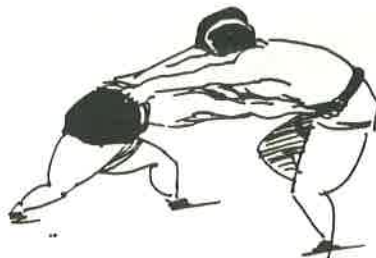
춘하추동 날세기서 강강수월래
 달 떠온다 달 떠온다 강강수월래
 하늘에서 달 떠온다 강강수월래
 달 위에는 별도 총총 강강수월래
 구름속에 숨은달은 강강수월래
 해만 빼쪽 물었구나 강강수월래
 꽃도 단포 화다치마 강강수월래
 땀시종게 갈아입고 강강수월래
 마당 좋고 동무 졸때 강강수월래
 신면털이나 하고 가세 강강수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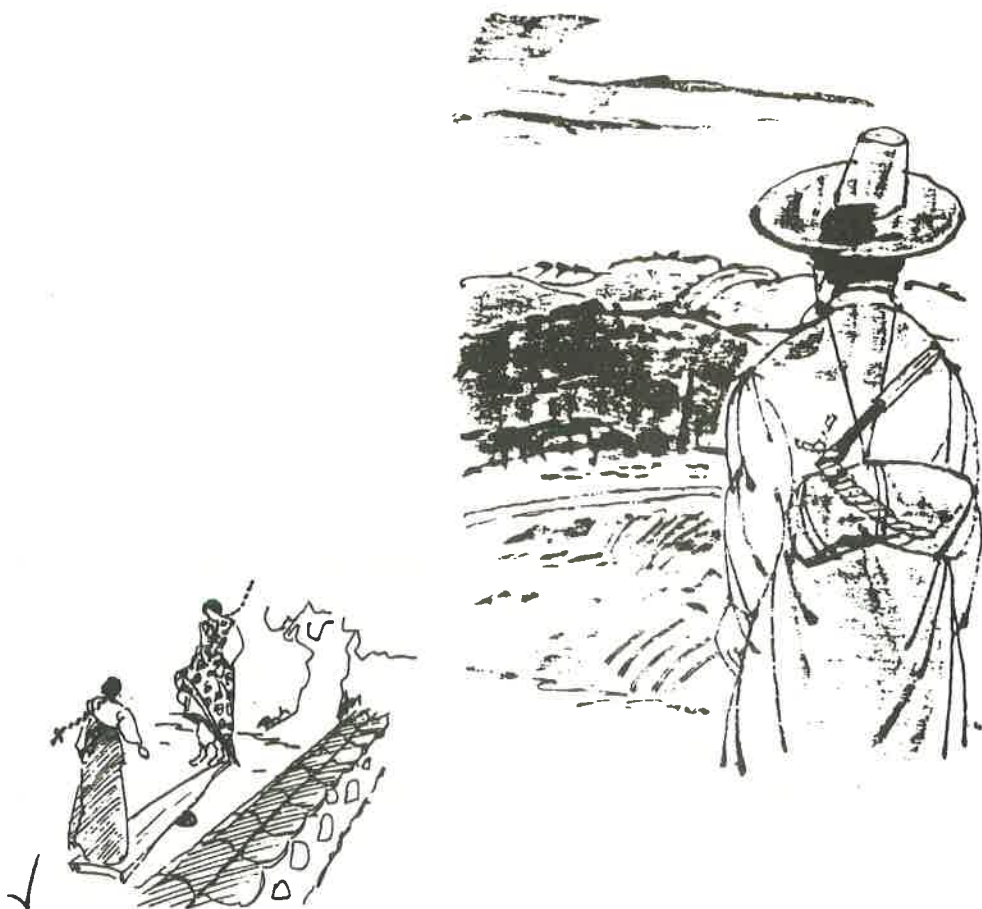
(6) 소놀이

추석 무렵이 되면 경기도 지방의 농부들은 소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긴다. 두 사람이 서로 궁둥이를 맞대고 엮드린 다음, 그 위에 명석을 씌운다.

앞사람은 명석 밑에서 잘 깎은 막대기 두 개를 내밀어 마치 쇠뿔처럼 보이게 하고, 뒷사람은 동아줄을 한 가닥 늘어뜨려 마치 쇠꼬리처럼 보이게 한다. 이때, 농부 한 사람이 앞에서 소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간다.

소 뒤에는 농악대가 따르고 그 뒤에 농부들이 따른다. 소를 앞세운 일행은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쇠고삐를 잡은 사람이 “소가 배가 고파 왔습니다. 여물과 뜨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치면, 주인은 일행을 맞이하여 술과 떡과 과실을 대접한다. 이 때, 소는 여러가지 흥내를 내고 논다. 그럴 때면 술도 주고 떡도 주며 웃고 즐긴다.





9. 9월의 풍속

(1) 중량일(重陽일)

음력 9월9일을 중량일 또는 중구일(重九日)이라고 한다. 『중령』이라 함은 양수(陽數)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는 것이며 『중구』라 함은 구(九)가 겹쳤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중량일이라고 많이 한다.

중량일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고 전해지며, 오곡백과를 추수하여 조상신에게 제사도 지내게 되는데 이를 구일차례라 한다.

(2) 한로(寒露)

이슬이 찬 이슬로 변하여 내린다.

(3) 상강(霜降)

모든 곡물은 추수를 끝내고 여름동안 무성하던 초목도 서리를 맞으면 잎파리가 죽고 떨어진다.



10. 10월의 풍속

(1) 개천절(開天節)

옛날부터 상달 초사 날(10월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모두 이 날을 기념한다. 개천절이란 전국신화에 의해 우리나라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 신화의 내용은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에 뜻을 두어 세상에 내려가길 원하자 아버지가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다스리게 하여 환웅이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 신단수(神壇樹) 나무 아래로 내려오니 이 곳을 신시(神市)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환웅이 신시에서 인간의 일들을 다스렸을 때 한 꿈과 한 범이 인간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므로 쑥 한 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였다.

꿈과 범은 이것을 얻어 먹고 기(忌)한지 37일만에 꿈은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였으나 범은 기(忌)를 잘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꿈은 자신과 혼인할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태기(胎氣) 있기를 빌었더니 환웅이 거짓 화하여 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호(號)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2) 시제(時祭)

4대 조상까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5대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가을, 즉 10월 15일을 전후하여 한 번에 제사를 지내므로 이를 시제, 또는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 한다.

시제 때에는 후손들이 모두 묘 앞에 모여 제를 지내며 많은 자손들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며 묘자리가 명당일수록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전한다.

(3) 김장

겨울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김치가 없어서는 안될 가장 일반적인 것이므로 김장이 매우 중요하다.

김장은 입동을 전후해서 그 해 날씨에 따라 담그나 무우, 배추가 얼기 전에 하고 각종 첫갈류를 넣어 만들고 김장의 종류에는 통김치, 쌈김치, 깍두기, 석박지, 동치미, 채김치 등 다양하며 담근 김치는 독에 담아 땅속에 묻어서 저장한다.

(4) 입동(入冬)

늦가을 추수가 끝나고 싸늘한 겨울에 들어서는 절기이다.

(5) 소설(小雪)

입동이 지나 서설이 내리다가 본격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한 소설 절기이다.



11. 11월 풍속

(1) 동지(冬至)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하며 동짓날은 양력 12월22일 무렵이 되는데 이 날을 민간에서는 『작은 설』이라고 하여 마치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니 이는 고대에 동지로써 정월을 삼은 유풍인 것이다.

이 때부터 몹시 추워지기 시작하며 여러가지 풍습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팔죽을 쑤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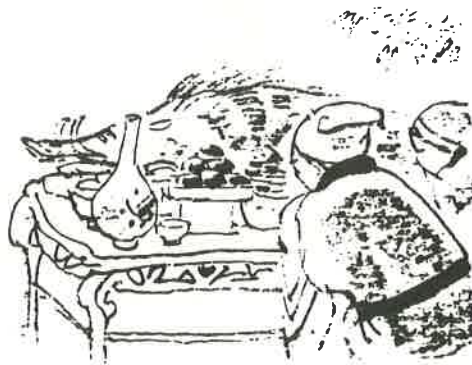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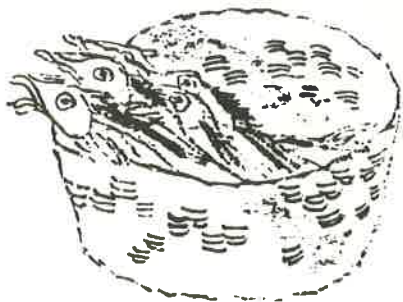
동짓날 절기의 시간에 따라 자정부터 정오까지가 애동지라 하고 오후 자정까지를 노동지라고 하여 찹쌀로 단자를 새알만큼씩 빚어서 넣는데 이것을 새알심이라고 한다.

팥은 곡물중에서 유독히 붉어서 밝다는 것에서 온 말이며 악귀를 예방하거나 쫓을 때는 주술로써 붉은 팥죽을 사람이 먹고 대문 사방 집 둘레에 뿌리는 것이다.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악귀를 쫓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새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2) 대설(大雪)

염동설한의 계절에 접어 들어 눈도 많이 내린다는 대설의 절기이다.

설한풍의 엄동이다.



12. 12월의 풍속

(1) 소한(小寒)

소한 추위를 말하는데 다음 대한 추위가 소한 추위에 왔다가 대한보다 더한 추위에 놀래고 간다고 한다.

(2) 대한(大寒)

대한 추위는 그 해의 추위가 극에 달한다는 절기이다.

(3) 묵은 세배

섣달 그믐날 저녁에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어른에게 세배하는 것을 묵은 세배라고 한다.

1년의 마지막 날인 섣달 그믐을 除夕, 혹은 除夜라고 부르기도 한다.



13. 윤달의 풍속

(1) 윤달(閏月)

보통 1년은 열 두 달이다. 그러나 음력에는 1년이 열 세 달이 되는 때가 있으니, 그런 해를 윤년(閏年)이라고 한다.

윤년에는 열 두 달 외에 윤달이라는 한 달이 더 끼여있다.

윤년은 2년 또는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러한 해에는 어느 한 달이 연달아 두 번 있게 된다. 이 때 두번이나 오는 달이 윤달이다.

만약 4월이 윤달이 되면, 원래의 4월이 지난 뒤에 곧 이어 또 4월이 오게 되는데, 이 때의 4월에는 ‘윤(閏)’자를 붙여 ‘윤사월(閏四月)’이라고 불러, 그 달이 윤달임을 표시한다.

윤달은 열 두 달 중에 속하지 않고, 그 밖으로 있는 달이라,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생기지 않는다 하여, 꺼림칙한 일은 이 달에 다 한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달을 택하여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가는 집이 많다.

또한 이 달에는 혼인을 하거나, 수의(壽衣: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만들어 두면 좋다 하여, 대개 윤달에 이런 일들을 한다.

옛날 서울 장안의 여자들은 윤달이 되면 다투어 봉은사에 모여 불공을 드리고, 탑 위에 돈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 세계로 간다 하여, 특히 할머니들이 분주히 달려와 이 일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윤달이 다 가도록 사람들이 줄을 이어, 끊일 줄 몰랐다 한다.

서울 외에 지방의 여러 절에서도 이런 행사를 벌인다.

윤달이 행하는 특이한 풍습에 성돌기라는 것이 있다. 성돌기는 성밧기라고도 한다.

윤달이 되면, 옛 성터가 있는 근처의 마을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 성터에 올라가서 성줄기를 따라 열을 지어 성돌기를 한다.

개성에는 천마산성(天磨山城)이란 성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안돌이’ 혹은 ‘치돌이’라고 불리는 매우 험한 곳이 있다.

그런데 이 험한 곳을 통과하면 극락 세계에 간다는 말이 있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줄을 이어 이 곳을 통과한다. 이것은 불교 신앙에서 유래된 풍습인데, 열성적인 불교의 여신도들은 이 풍습을 열심히 실행한다.

이 여인들이 성돌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미리 장만해 온 음식과 술을 벌여 놓고, 함께 먹고 즐긴다.

전라도 고창 지방에도 옛 성터가 있다. 윤달이 되면 사람들이 이 성터를 세 번 도는데, 머리에 돌을 이고 도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떨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광 지방에도 성돌기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성돌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새 옷을 갈아

입고 먹을 것을 준비하여 성을 돌면서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

이러한 윤달의 성돌기 풍습은 다른 풍습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에는 윤년은 있어도, 윤달은 없기 때문이다.

양력에서의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2월달이 28일에서 29일로 늘어난 해로 다른 해보다 하루가 많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윤년의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4년만에 한 번씩 돌아와 곤란을 겪게 되니, 이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기도 한다.

우리고장의 장승, 동제 관련지명조서(調書)

대천 보령지역의 장승·동제 조서(調書)

보령지역의 장승유적 중 현존하는 것은 관광장승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1) 보령군 웅천면 구룡리 성황당고개에 89년 5월 15일에 세운 높이 3m, 폭 30cm, 둘레 60cm의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이 있고, 김두하 님의 [백수와 장승](1990. 集文堂)에 10여 개소의 장승유적 지명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2) 보령군 주산면 동오리에 선돌장승이 1기 있다. 크기는 높이 240cm, 폭 65cm, 둘레 21cm의 자연석으로 옛날에 여장부가 고갈바위를 쓰고, 마당바위를 치마에 싸안고, 지팡이 바위를 짚고 가다가 치매폭이 터져서 마당바위와 넘어지는 바람에 세 바위가 함께 우뚝 서 있게 되어 선돌이라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진다.

3) 성주면 성주리에는 높이 150cm, 폭 250cm, 둘레 700cm의 자연석을 쌓은 돌무지가 있는데 돌무덤 또는 성황당이라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13년 백운사 창건 당시부터 스님 및 신도들이 사찰을 오가며 자신의 행운과 아들낳기를 기원하며 돌을 탑형 식으로 쌓아 올렸으나, 현재는 무너져 있다. 지금도 사찰의 신도들이 돌을 던져서 행운을 빈다고 한다.

4) 오천면 장고도리에서는 진대서낭제를 마을 당산에서 정월 열나 날에 모시며,

5) 주산면과 웅포면 국도의 미륵 모퉁이에는 높이 206cm, 폭 62cm, 두께 55cm의 미륵 석불이 서 있다. 주민들은 이것에 소원과 치병을 빌고 미륵의 눈을 후벼서 약을 마셔 눈을 뗐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6) 보령지역에 대한 김두하 님의 연구 ([백수와 장승], 집문당, 1990)에 나타난 장승관련 현재의 지명 <表 1> 및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전국 부락제당 질문지> 자료 <表 2>는 다음과 같다.

<표 1> 보령 장승 관련지명

소 재	옛지명	명 칭	출 전	참고문헌	추정사유	기 능		비 고
보령군 남포면 소송리	藍浦縣 北內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	藍浦城門~北·西로 향 하는 관로	路標 후에 部落守護	大 川	城門 밖 장승 인 듯
보령군 남포면 읍내리	藍浦縣 邑內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道路考》	藍浦城門~北·西로 향 하는 관로	路標후에 五 方神장승	大 川	路標時에는 前項과 동일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藍浦縣 北外面	장승거리	《지명총람》			部落守護	大 川	근래 部落守 護장승에 의 해 생긴 지명 인 듯
보령군 미산면 남심리	藍浦縣 深田面	장 생 이	《지명총람》	《輿地圖書》	鴻山~大寺隔~南深 里~藍浦間 관로	路 標	舒 川	

소 계	옛지명	명 칭	출 전	참고문헌	추정사유	기 능		비 고
보령군 주산면 야용리	藍浦縣 習衣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道路考》	藍浦~野龍里~庇仁 間 관로	路 標	舒 川	
보령군 주포면 관산리	保寧縣 周浦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東覽》 《輿地圖書》	保寧~靑淵驛~藍浦 間 관로(大川大路)	路 標	大 川	
보령군 주포면 보령리	保寧縣 周浦面 (舊新城里)	장승배기	《지명총람》		官門 장승인 듯	路 標	大 川	
보령군 주포면 신대리	保寧縣 周浦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東覽》 《輿地圖書》	保寧~靑淵驛~新垵 里~庇仁間 관로	路 標	大 川	
보령군 주포면 장현리	保寧縣 吾三田 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輿地圖書》	保寧~長峴里~餘峙 ~靑陽間 관로	路 標	大 川	현대에 部落 守護 장승을 세웠음
보령군 청소면 죽림리	保寧縣 靑所面	장승배기	《지명총람》	"	保寧~竹林里~廣川 ~世川驛~洪城邑治 間 관로	路 標	大 川	

<표 2> 보령 마을 제당

忠淸南道 保寧郡 藍浦面 帝釋 元帝마을리

	項	目	1
1	堂	이 름	上堂
2	堂	位 置	部落 後山 北쪽
3	堂 形 態	堂 집 外 形	초가 건평 일간 내외
		堂 집 內 部	신라경순대왕 단편, 일월성진 위편 오방제제 위패, 산신 위패, 수부 위패
		神 木	
		돌 무 더 기 祭 壇	
		傳 說 基 地	산제를 지냄, 우방돌고 제를 지냄
4	祭 神	神 格	
		効 驗 ・ 傳 說	제사를 지내야만 마을이 흥한다는 전설
5	祭 官	數 爻 方 法	당주 제관 약간명
		選 出 方 法	부정없는 男子후보자들을 데리고 가서 호명 기도하면 서 낭대가 기울어 지적되는 자
		其 他 參 與 者	부락민 유지, 농악사(풍장치며) 祭物운반자
6	祭 儀 節 次	祭 前	당샘에서 3일간 목욕한다. -당주, 제관, 제주(酒)로 서낭 대가 기울어 지적되는 날
		祭 儀 順 次	上 堂
		祭 後	음복한다.
7	祭 日 時 間	음력 正月 15日 午後 10시경	
8	祭 需 床 차 림	酒, 白餅, 白飯, 午園漁場, 果實一切	
9	祭 費	各戶에서 헌납하는 곡물, 금전으로 오늘날은 5,000원 정도 (옛날에는 20,000원 정도)	
10	其 他 特 記 事 項 (上 記 說 明 不 充 分 細 部 外 장 승 · 솟 대 들)	서낭대는 (왕대 20자가량) 왕대로 하고 기를 달고 있음. 그 기에 아래와 같은 글자가 새겨있음. 朝鮮湖西玉馬金簿大王之旗	

※ 附帶 說話 記入欄(祭神, 祭祀, 神堂, 장승, 솟대들에 對한 其他特記事項)

약 250년 전에 제석리 앞 바다물에 떠도는 함을 김모라는 老人이 그 함 상자를 주웠다고 한다. 그 함속에 경순대왕 위패 日月星辰 위패 수부 위패 등이 들어있어 집안에 갔다 모셨다고 한다. 해마다 정성껏 모시고 제사를 지낸 결과 그 집안이 부유하고 왕성 변화하여 부럽게 생각하고 동네마을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당을 짓고 부락비용으로 음 正月 15일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풍속이 오늘날까지 내려와 제사를 지내고 있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동네에 액운이 온다는 전설을 믿고 있음. 근래에 와서는 간략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음.

忠清南道 保寧郡 오천면 外煙里

	項 目		1
1	堂 이 름		堂 山
2	堂 位 置		부락 서쪽 上峰西向
3	堂 形 態	堂 집 外 形	합석 木造 二間
		堂 집 內 部	神體(神木이 神體)
		神 木	괴목 후박동백 1,200주 大木둘레 3자
		돌 무 더 기 祭 壇	
		傳 說 基 地	중국서 역적으로 온 선언장군 왔다 간 것을 추모함
4	祭 神	神 格	선언장군
		効 驗 ・ 傳 說	어선이 침몰 또는 어민이 고기잡고 海死가 없다 함
5	祭 官	數 爻 方 法	당제주 7名 대표 김봉운
		選 出 方 法	부락에서 선출한 7人名
		其 他 參 與 者	선출자 이외는 참석금지
6	祭 儀 節 次	祭 前	부정한 것 안 보고 당산서 2일 전부터 침식하고 제물준비 재배, 제주, 기도, 굿, 음복
		祭 儀 順 次	제의가 끝난 후는 동민 초청 음복 바다에 제물 투입
		祭 後	
7	祭 日 時 間		초봄 年 1回
8	祭 需 床 차 림		黃牛一頭, 과일, 떡, 술
9	祭 費		호당 거출 금전 30,000

忠淸南道 保寧郡 周浦面 館山里

	項 目		1
1	堂 이 름		上仙堂
2	堂 位 置		山川洞
3	堂 形	堂 집 外 形	기와집 2坪 정도
		堂 집 內 部	헛간과 같은 공간임
	態	神 木	木馬(木말)
		돌 무 더 기 祭 壇	없음
		傳 說 基 地	재를 지내는 날은 부락 개(犬)도 짖지않고 범이 와서 제당 뒤에 있다함.
4	祭 神	神 格	
		効 驗 ・ 傳 說	연간 부락민의 위로히 지내지 않음
5	祭 官	數 及 方 法	
		選 出 方 法	死亡 출생이 없는 洞에서 3개 洞에서 年太歲에 맞는 사람 3名
		其 他 參 與 者	上과 同一한 조건으로 3名
6	祭 儀 節 次	祭 前	3日間 독생을 차지하고 每日 저녁 목욕함 새벽 2시부터 祭堂에서 소지
		祭 儀 順 次	
		祭 後	
7	祭 日 時 間		年마다 (음) 1월 2일부터 4日 사이로 함
8	祭 需 床 차 름		平 萬
9	祭 費		3,000원
10	其 他 特 記 事 項 (上 記 說 明 不 充 分 細 部 外 장승·숫대 들)		1966년도에 제당을 철거하고 祭를 지내지 않음

忠清南道 保寧郡 靑所面 新松 高岑마을리

	項	目	1
1	堂	이름	山神堂
2	堂	位 置	部落 東北方 最上峯에 있음단
3	堂 形 態	堂 집 外 形	蓋瓦 建坪 3坪 内外
		堂 집 內 部	1. 内部엔 아무것도 없음 2. 木造 祭壇뿐임
		神 木	없 음
		돌 무 더 기 祭壇	없 음
		傳 說 基 地	部落 守護神으로 山神(虎)로 傳
4	祭 神	神 格	山神(靈虎)
		効 驗 · 傳 說	部落의 守護
5	祭	數 爻 方 法	堂主 1名, 副堂主 1人
		選 出 方 法	30代 以上の 不淨없는 男子로 舊天氣大要의 生氣福德의 方式에 依하여 部落任員會에서 選出하고 本人의 承諾으로 定함
	官	其 他 參 與 者	5, 6名の 不淨없는 祭享 有經驗者
6	祭 儀 節 次	祭 前	堂主, 副堂主는 堂泉에 沐浴, 禁酒·女, 不淨한 여자는 洞里 外로 出他 大小便 후엔 必히 沐浴 謹慎함
		祭 儀 順 次	堂主가 祭主되어 儒敎式 祭祝節次와 同一하게 行하여 山神께 部落 守護를 祈願
		祭 後	飲福, 洞內會議, 洞契會議로 一年 中 財政의 決算과 洞契 運營方針 決定
7	祭	日 時 間	陰 正月初 四日 子正
8	祭	需 床 차 림	酒, 白餅, 포, 果實, 유교식과 동일
9	祭	費	各戶에서 獻納하는 金錢과 곡물로 充當 1回 2,500원 内外
10	其 他 特 記 事 項 (上 記 說 明 不 充 分 細 部 外 장승·숫대 들)		1. 名稱, 山神堂 2. 位置 忠清南道 保寧郡 靑所面 新松里 高岑部落 東北方 最上峯에 있음

※附帶 說話 記入欄(祭神, 祭祀, 神堂, 장승, 숫대들에 對한 傳說 其他特記事項)

部落 守護神으로 山神(虎)으로 傳하고 있음.

忠清南道 保寧郡 繁川面 校成 金神里

	項	目	1
1	堂	이 름	삼신당
2	堂	位 置	部落 北쪽 北向으로
3	堂 形	堂 집 外 形	초가 대지 8평
		堂 집 內 部	내부에 석불상이 놓여있고, 길이는 12cm 제단은 없고 선반이 놓였있음
	態	神 木	없 음
		돌 무 더 기 祭 壇	없 음
		傳 說 基 地	없 음
4	祭 神	神 格	부락 수호신
		効 驗 ・ 傳 說	
5	祭 官	數 爻 方 法	3명-당산주
		選 出 方 法	연령 제한없고 남자로 아무탈이 없는 자를 지적하여 지냄
		其 他 參 與 者	부락민 남자 및 유지 다수
6	祭 儀 節 次	祭 前	근신 목욕상황-맑은 물에 목욕함
		祭 儀 順 次	당주-상당-벌신굿
		祭 後	하당 후 장신제 지내고 헤어짐
7	祭 日 時 間		2월 28일 10~12시 년 1회
8	祭 需 床 차 림		술, 백반, 제육, 김, 과일 등
9	祭 費		동에서 각호 100원 정도
			총 경비 4,000원 정도

忠清南道 保寧郡 繁川面 元山島 鎮村마을里

	項 目		1
1	堂	이 름	曉神堂
2	堂	位 置	部落의 中心部(山頂上)
3	堂 形 態	堂 집 外 形	瓦家(1間 内外)
		堂 집 內 部	木調 馬像 2位 祭 壇
		神 木	없 음
		돌 무 더 기 祭壇	없 음
		傳 說 基 地	詳細한 것 四面参照
4	祭 神	神 格	古代 中國의 曉임금
		効 驗 • 傳 說	傳說是 四面에 記載되어 있음
5	祭 官	數 爻 方 法	祭主는 一名이고(夫婦가 堂主가 됨)
		選 出 方 法	部落에서 不淨이 없는 者 中 選擇함
		其 他 參 與 者	洞長 外 部落民 多數
6	祭 儀 節 次	祭 前	沐浴再開하고 禁酒 禁女하며 不淨한 것 보지 않고 妊婦는 出他시킴
		祭 儀 順 次	曉神堂, 一洞里마을
		祭 後	飲福, 別神굿(農樂)
7	祭 日 時 間	陰 正月初 參日 十時	
8	祭 需 床 차 립	酒, 果, 胞, 牛肉, 白飯	
9	祭 費	部落에서 念出하여 每戶 百원 一回 壹萬원 程度	

※附帶 說話記入欄(祭神, 祭祀, 神堂, 장승, 솟대들에 對한 傳說 其他特記事項)

祭祀를 지내왔던 시기는 歷代로 不明하며 當日 祭날에는 妊婦나 產婦는 近處 에막골이라는 곳으로 集團 收容하였다하며 其곳이 人員이 많아 近處 밤섬이라는 곳까지 妊產婦가 넘쳐 其곳서 出生한 사람의 이름을 “밤섬시”라고 名命했다고 까지하는 記錄도 있다.

傳說, 歷代未詳 年代에 이곳 섬마을에 우연히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部落民들이 전전긍긍하였는데 奇異하게도 어느날 밤 이곳 部落의 노인이 밤에 꿈을 꾸니 마를 기르는 집이 있었는데 그말이 問題의 호랑이를 몰아냈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 山 골짜기의 場所에 있다고 선몽했다고 한다. 가보니 과연 그곳에 말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함. 그 후로 本 神堂에는 木馬像 2位가 保存되고 現在에 이르렀다.

忠清南道 保寧郡 繁川面 孝子島 웃말마을리

	項 目	1	2
1	堂 이 름	上 堂	下 堂
2	堂 位 置	部落 西北쪽, 西向	部落 西쪽, 北向
3	堂 집 外 形	瓦家 八坪 内外	瓦家 二坪 内外
	堂 집 內 部	神體는 아무것도 없음 祭壇(국시당, 장군당, 산신당, 본당, 수부당)	東 左 祭壇만 있음
	神 木	없 음	없 음
	돌무더기祭壇	없 음	없 음
	傳 說 基 地	特別한 傳說是 없으나 四面參照	없 음
4	祭 神	장군堂으로 概稱	없 음
	効驗・傳說	部落 守護 漁船 保護	同 左
5	祭 數 爻 方 法	堂主 一名, 화주 一名 外 五・六名	同 左
	選 出 方 法	不淨없는 者 中에서 部落民이 選出하고	同 左
	其 他 參 與 者	一日 堂主가 되면 向後一年間 謹慎함	
6	官	制根이 없고 不淨한 자는 本人이 가림	同 左
6	祭 前	沐浴, 禁酒, 禁女, 不淨한 것 안보고 妊婦는 出他시키며 喪家와 접촉을 杜絶시킴	一次祭만 올림 同 左
	祭 儀 順 次	국시당, 장군당, 산신당, 본당의 순으로 祭를 지내고 부수당엔 나중에 祭物만 차람	
	祭 後	飲福, 後三日에 堂主가 다시 致誠드림 (이를 답제라 함)	
7	祭 日 時 間	陰 正月 15일 前後에서 徹夜	同 左
8	祭 需 床 차 립	酒, 白餅, 白飯, 牛頭, 果實	同 左
9	祭 費	건립 又は 戶別割當	同 左

※附帶 說話記入欄(祭神, 祭祀, 神堂, 장승, 솟대들에 對한 傳說 其他特記事項)

上堂은 本來는 그 자리에 數百年 묵은 老松이 있었는데 全島民이 그 老松에 向하여 致誠을 드려오다가 至今으로부터 70年 前에 그 老松을 베어 그 자리에 現祭壇을 建立하였다 함. 特別한 傳說是 없으나 한 가지 記錄할만한 일은 祭를 올리게 되어 祭需를 陸地로 購入하러 갈 때는 반드시 全島 內 船舶 中에서 가장 정결하고 新品인 것을 選擇하였다 하며 萬一祭主의 命에 抗하거나 拒逆하면 實로 그 効驗이 嚴重하여 그 罪罰이 可兢하였다 함.

罪罰의 一例로 앓은뱅이가 된다. 삭신이 들어진다. 병어리가 된다. 等等인데 住民들은 近者에도 其實例가 있었고 또 보았다고 立話들을 하고 있음.

忠清南道 保寧郡 靑羅面 羅院里 月峙洞里

	項 目		1
1	堂	이 름	山祭堂
2	堂	位 置	部落 南方 1km 地點山
3	堂 形 態	堂 집 外 形	古松과 土石으로 싸여있음
		堂 집 內 部	없음(山이 神體임) 祭壇은 없고 山 중턱 오막한 곳임
		神 木	없 음
		돌 무 더 기 祭 壇	槐木, 土石에 싸인 판판한 곳
		傳 說 基 地	古來로 山中에서 많이 生活했고, 虎患이 두려웠던 탓임
4	祭 神	神 格	山神을 爲함
		効 驗 · 傳 說	虎患을 避하고 山 中을 自由롭게 出入할 수 있다.
5	祭 官	數 爻 方 法	도화주 1명, 발화주 2명
		選 出 方 法	不淨없는 各 世帶希望者 中 生氣福德을 따져 當는 사 람 3人을 선출 祭경비를 거출하여 祭물을 준비하고 회 망자를 데리고 가서 헌작(초헌, 아헌, 종헌)을 한다.
		其 他 參 與 者	헌납한 希望者 全員
6	祭 儀 節 次	祭 前	찬물에 沐浴, 禁酒·女, 禁煙, 不淨한 것 안 보고 接近않 음. 妊婦, 解散女가 있는 집은 山祭에 들지 못함
		祭 儀 順 次	홀을 부르며 초헌-아헌-종헌(감주 3배씩 9배)을 올 리고 내리며 祭관이 백지(吉運의 징조)를 나눠주는 폐 백이 있음
		祭 後	9잔을 참석자 飲福 後 世帶者 액운을 떨고 所願成就하 는 소지를 올린다.
7	祭 日 時 間		음 1月 3일에 集會書議 向後 2~3日內로 不淨없는 날 을 받아 오후 10시후에 지낸다.
8	祭 需 床 차 립		감주, 白飯, 果實, 牛肉, 탕, 생두부, 미역
9	祭 費		各 戶에서 헌납하는 金錢으로 充當, 1回 3,000원 內外
10	其 他 特 記 事 項 (上 記 說 明 不 充 分 細 部 外 장 승·숫 대 들)		떡시루, 과일만 가지고 두 사람이 국사당(부락北方 500m地點)에 가서 간단히 제사지낸 후 산제당으로 간 다.

參考文獻(보령군편)

우 리 나 라 방 언

우리지방과 다른지방의 사투리

사투리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에서 사용되는 말의 전체를 지칭하며 지방어라고도 한다. 발음, 액센트, 인트네이션, 말씨, 어법(語法)등의 차이가 뚜렷한 지방마다의 말을 가리켜 사투리라고 하는 것이다.

사투리에는 ① 입을 좁게 열거나 속으로 우물거리는 경향이 있고, ② 비교적 새로운 어귀(語句)나 표현법이 적고, ③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말이 많고, ④ 정서적인 표현이 풍부하고, ⑤ 저속한 말도 있고, ⑥ 글로 쓰는 말과의 조용성이 부족한 등의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 사투리가 특히 이런 특색을 보이고 있다.

표준말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물론 사투리가 있다. 그렇지만 사투리는 원래 각각의 지방에서 발달한 언어이다. 어떤 지방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 그다지 교류를 하지 않는 시대라면 사투리는 그대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교류수단이 발달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잡지가 전국에 보급되면 그 지방에만 통용되는 말만으로는 불편하게 된다. 이리하여 사투리 이외에 표준말도 쓰여지게 되고 또한 사투리 그것도 원래의 모습인 채로 남아 있지는 않게 된다.

표준말과 사투리가 두 가지로 혼합된 형태로 변형되어가는 것이다. 사투리 외에 표준말도 사용하게 되는 상태를 조사해보면 남자와 여자의 편이 빨리 사용하며,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젊은이 편이, 학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학력이 있는 사람이, 한 군데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여러군데로 이사다니며 사는 사람의 편이 표준말을 빨리 배우고 사용한다. 또한 다른 지방의 사람과 스피치를 하거나 할 경우에 표준말을 사용하자고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가정이나 이웃 사람과 스피치할 때는 사투리가 사용되기 쉬운 것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살)이라고 하여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 지방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달리짐으로써 일어나는 착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투리 때문에 웃음거리나가 되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으로 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투리에 대한 이러한 열등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표준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익숙치 못한 표준말을 억지로 사용하다가 웃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투리는 아마도 사람이 말이란 말을 할때 까지는 아주 없어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대 천 문 화 원 장 윤 원 석

全 國 方 言

서울·京畿 湖南地方
嶺東地方 嶺南地方
忠淸地方 濟州地方

서울·京畿

○ ㄱ ○

가까이=가차이
가마술=가매술
가만히 계시오=가만히 계슈
가시=까시
가워=가세, 가이, 가새
가을=가울, 갈, 가알
간장=지렁, 지릉
개구리=깨구리, 깨고리
개천=개울
거지(乞人)=그지
거짓말=거짓부렁, 거짓말
겨울-겨울
견디다=견된다
계시다=기시다
제집=기집
제집애=기지배
고기집=괴기간
고드름=고드림
고추=꼬추
곰보=곰뱅이
과자부스러기=과자부세기
괴롭다=개롭다
구멍=구녕, 구녁
국수가락=국수가닥
귀걸이=귀골이
귀때기=귀타기
권리=결리
그것이 아닌데요=그것이 아
닌델쇼
그네=구네
그래서=그래설라운
그러고=그러구말야

그러고요=그러구 말쌈야(그
러구말입조)
그러니까=그러니깐(그러니깐
두루)
그러지요=그러쥬, 그럽쥬
그런대요=그런델쇼
그런데 말입니다=그런데말입
쥬(그런델쥬)
그렇읍니다=그런델쇼
그렇게 하지요=그렇게 험쥬
그렇게 할까요=그렇게 험깁
쇼
그렇게 했습니다=그렇게 했
읍쥬
기가막힌다=기가맥힌다
기둥=지둥
기름=지름, 지럼
기쁘다=기뿌다
기와=기아, 지아
질이=기르기, 질이
깨소금=깨부생이
검정색=곰정색
콩보리밥=강보리밥
찌꼬리=깨꼬리
평=꽁

○ ㄴ ○

내일=넬
누더기=누데기
눈썹=눈썹
눈두렁=눈두렁

○ ㄷ ○

다리(발)=대리
단죽(短竹煙管)=곰방대

닭=닥
대님=다님
돼지우리=돼지울
두레박=두롬박
두루마기=두루매기
뒤주=뒤지
들고=듣구
등(背)=잔등
따갑다=따굽다
따로=따루
또아리=또가리, 켜리, 또바기

○ ㄹ ○

마실간다=말 간다
마울=말
막대기=작대기
말씀하십시오=말씀험쇼
맑다=막다
매워=매와
맨앞=원앞
머슴=머썸, 머심
먹이=멕이
며느리=메누리
모래(砂)=몰래
모퉁이=모퉁이
못한다=못헌다
뒤편(墓)=매
무당(巫堂)=당굴, 무당
무명=미영
무엇하나?=머하나
무엇하십니까=머히시쥬쇼
하심무엇하람니까=머 허랍쇼
무엇하오=무엇허우(머허우)
무우=무, 무유
물론그렇지요=물론그렀습쥬

미꾸라지=미꾸리
미장이=미쟁이

○ ㅂ ○

바퀴=바쿠
밭다=박다
배꼽=배꼽
배알이 툰린다=뱀이 툰린다
버선-보선
벼룩-베룩
병(病)-벵
보리(麥)=버리
볼때기=뿔따구, 볼따구
봉선화=봉숭아
봉투=봉지
부집개=부지깥이
부스러기=부세기
뿔뿌리=물부리
뿔=뿔
뿔=뿔

○ 人 ○

삼총=삼칭
성황당=서낭당
세상=시상
셈(算)=심
소달구지=쇠뿔구지
소주(燒酒)=쇠주
손잡이=손재비
손톱=손톱
수세미=쭈세미
수수=쉬수
수염=쉬염, 시염
술가락=술가락
싸리눈(雪)=싸래기눈
쑥말=말의수컷

○ ㅅ ○

아침=아적
아래=접때, 그제께
안녕히가십시오=안녕히갑쇼
어깨=으께

어금니-엄니
어떻게하십니까?=어떻게하랍쇼?

어디가니=워디가니
어른=으런, 으른
어서오십시오=어서옵쇼
어스름=으스름
언제=은제
없다=웁다
예쁘다=이쁘다
옥수수=강냉이, 가아내, 강내미
온통=원통
외양간=오양간
우물=웁물
우습다=우습다
위충=우칭
이것보시오=이것보시우
이길로가오=이길로가우
이르다=일르다
이리 와=일루 와
있소이다=있쇠다
계십시오=계십쇼, 계슈

○ ㅈ ○

잠자리=잠재리
장대=바지랑대
장독대=장독간, 장독대
저것이란=저것일랑
저리 가=절리 가
절구공이=절구갱이
점장이=점쟁이
정종(正宗)=중종
조각=쪼각
조금=초콤, 쪼콤
조심하십시오=조심헉쇼
조약들=주약들
지푸라기=지프락지
집적거리다=지분덕거리다
짚신=짚세기
찌꺼기=찌깨기

○ ㅊ ○

처녀=처니
측량=척량
충충대=칭칭대
치마=치메, 치매
침=척

○ ㅌ ○

택=택수가리

○ ㅍ ○

팔=풀

○ ㅎ ○

하겠는가?=허겠니?
하라니까=허라니깐
하오=하우, 허우
하시오=허시우, 허우, 허슈
허수아비=헤재비
허파=허패, 헤패
혀(舌)=세, 쇠
햇바닥=셋바닥, 헛바닥
혼자=혼재, 혼차
활개=할개
흙=혹
호른다=홀른다

嶺東地方

○ ㄱ ○

가까이=가차이
가다귀=가닥
가락조개=가막조개
가마술=가매술
가만히 계시오=가만히 계슈
가위=가새
가위=가세, 가이, 가세
가을=갈
가장자리=이으까리
간장=지렁, 지롱
개구기=깨구리

개울=도랑
 개천=개울
 거름치다=마우치다
 거울(鏡)=색경
 거지=그지, 거렁뱅이
 거짓말=거짓부렁, 거짓말, 그
 짓뿌리
 견디다=견디다
 계시다=기시다
 계집=기집, 지집
 계집애=지지배, 지저바
 고개=고랭이
 고기간=괴기간
 고드름=고드림
 곧장=곧장
 국수=국시
 굴뚝이=굴뚝이, 굴비
 귀=귀싸대기
 귀걸이=귀걸이
 귀리=귀밀
 귀머거리=귀먹랭이, 귀먹당
 수, 귀먹자가리
 그것이 아닌데요=그거 아닌
 뎁쇼
 그네=구네
 그래서=그래설므네
 그러고=그러구
 그러고요=그러구 말쌈야, 그
 러구 말입조
 그러니까=그러니깐두루
 그러지요=그러조
 그런데말입니다=그런뎁조
 그런데요=그런뎁쇼
 그렇습니다=그런뎁쇼
 그렇게하지요=그렇게협조
 그렇게할까요?=그렇게협조
 그렇게해서=그렇게해설라른
 그렇게했습니다=그렇게 했음
 조
 그렇지요=그렇지뎁쇼
 기가막힌다=기가막힌다
 기둥=지둥

기쁘다=기쁘다
 기와=기아
 길=질
 길모퉁이=길머치
 길쌈=질쌈
 길이=기르기, 질이, 기럭지
 김매다=짐매다
 김치=짬지
 깡그리=깡그리
 깨소금=깨부생이
 꺼리다=끄리다
 껌정=꿈정
 콩보리밥=깡보리밥
 피꼬리=깨꼬리
 꿩=꿩
 꼬나불=꼬나팔, 꼬나풀, 꼬내
 끼
 꼬트머리=꼬타리

○ L ○

나룻가=나룻가
 나무=낭구, 남구
 낫쟁이=낫쟁이, 낫몽태, 낫탕
 개
 낫자루=잘기
 내일=넬
 녀달(四個月)=늑달
 네개=니개
 눈곱=눈꼽재기, 눈피비
 누더기=누데기
 눈두렁=눈두렁
 눈두덩=눈두병, 눈두버리, 눈
 등, 눈뚱에

○ □ ○

다리=다기쟁이
 담배대=곰방대
 대님=다님
 동생=동상
 된서리=된내기
 돼지우리=대지울
 두레박=두름박

두루마기=두루메기
 뒤옹박=뒤편
 뒤즈=뒤지
 들고=들구
 등=잔등
 따갑다=따갑다
 따로=따루
 딸기=딸구
 또아리=또리

○ □ ○

마루=마룻
 마실간다=말 간다
 마을=말
 마침=마춤
 막대기=작대기
 말쌈하십시오=말쌈협조
 매워=매와
 머슴=머슴, 머심
 먹이=멕이
 먼지=멘지
 며느리=메누리
 멸치=매래치
 모래=모새, 무루
 모밀국수=매물국수
 모퉁이=귀퉁이
 못한다=못한다
 몽둥이=몽둥이
 뎁=매
 묘(墓)=미둥지
 무당=무덤
 무엇하고계십니까=머하시겟
 쇼
 무엇하나=머허나
 무엇하십니까=머하랍쇼
 무엇하려고그러느냐?=머허려
 구그러니
 무엇하셨습니다=머하셔겟쇼
 무엇하오?=머허우?
 무엇할까요=머하랍쇼
 물론그렇지요=물론그렇습쇼
 물론이지요=물론입조

미꾸라지=미꾸리
미장이=미쟁이
밀뜨리다=미뜩다, 미뜨리다

○ ㅂ ○

바소=바쇠
바스라기=바수라기
바퀴=바꾸
박쥐=팍쥐, 팍주, 팍지
박다=박다
밤나들이기다=마도리가다
밥먹었고=밥먹었수다
방망이=방맹이
발이랑=발고랑
배꼽=배굴
배 알이틀린다=뱀이 틀린다
버선=보선
벌판=버리
법칙=법측
벼=나룩, 베
벼룩=베룩
변소=정낭간
병=벙
병아리=뺨아리
보리=버리
보시오=보세요
복숭아=복상
불때기=불따구
봇짐장사=보따리장사
봉선화=봉송아
부스러기=부세기, 부스
부엌=정지
부지런하다=바지런하다
부집게=부집갱이, 부집이
볶다=복다
비슷하다=비젓하다
빨리=빨지
빤=뽕
뽕=뽕

○ ㅅ ○

삼거리=시거리

삼층=삼층
셋밥=셋놀이
설=술
성황당=서낭당
세개=시개
세상=시상
셈=심
소나무=솔낭기
소달구지=쇠달구지
소자=쇠자
소주=쇠주
소쿠리=소구리
속인다=썩긴다
손잡이=손자비
손톱=손물
송정(松亭)=솔무정
수세미=쭈세미
수수=쭈수
수염=시염
수채=개천
술가락=수갈
술=약주(모든술을 총칭해
서)
숨구멍, 정수리=숙가대, 숙궁
기
숫놈=쑤놈
숫제=수찌개
시골=시굴
시아주버니=시아지번님
싸리눈=싸라기눈
쌀자루=쌀잘기

○ ㅌ ○

아니야=앙여
아니요=아니에요
아니지요=아니란 말썬야
아침=아적
안녕히가십시오=안녕히갑쇼
안녕히계십시오=안녕히계십
쇼
알랑쇠=알랑뽕이
알밤=알락

알박이=알배기
양머리=양매리
어금니=엄니
어디가니=위디가니?
어떻게하십니까?=어떻게 허
랍쇼
어른=으른
어서먹게=어서먹게나
어서오십시오=어서옵쇼
어스름=으스름
어제=으제
언제=은제
없다=웁다
여보십시오=요보슈
웁다=엽다
영감=녕감
예쁘다=이쁘다
오누이=오누
오시오=오세요
오양간=마굿간
온통=원통
용마루=지붕마루
외양간=오양간
우리(돼지)=울(돼지울)
우물=웁물, 웁굴
우습다=우습다
우영=우월
원숭이=언숭이
이것보시오=이거보슈
이것이랑=이것일랑
이것하게=이것하게나
이길로가라=이길루가라
이르다=일르다
이리가십시오=이리갑쇼
이리와=일루와
이애가=야가

○ ㅍ ○

자루=펠
자식=자숙
작은항아리=독
잔디=뗏장

잘계십시오=잘 계십시오
 잠자리=꼬니, 끈자리
 작다기=작대기
 장독대=장독간, 장독대
 ~장이=~쟁이
 도마뱀=장지미, 장지뱀
 저것이란=저것일랑
 저기 좀 봐=저길 좀 봐
 저리 가=저길 좀 봐
 저리 가=절리 가
 절구공이=절구갱이
 꿔다=점다
 점장이=점쟁이
 정말=증말
 정말이지요=정말이지 뭐요
 정중=증중
 제방=말기
 조각=조각
 조금=조금, 짝금
 조심하십시오=조심하십시오
 조약돌=조약돌
 족집게=족집게
 종달새=종다리
 주시오=주세요
 지렁이=찌렁이
 지푸라기=지푸락지
 진지 잡수십니까=진지 잡수
 시접쇼
 집에 계십니까=집에 계시우
 집적거리다=지분적거리다
 짚신=짚세기
 찌꺼기=찌개기

○ ㅌ ○

창고=헛간
 처네=처녀
 처마=처매
 첫맛물=낙수물
 천연두=손님
 측량=척량
 층층대=칭칭대
 치마=치메, 초마

취=취

○ ㅋ • ㅌ • ㅍ ○

큰술(가마)=가매
 큰항아리=두멍
 키=챙이
 툇=툇주가리
 토끼=퇴끼
 팔=펠
 편집=편즙
 표범=알락범
 풀베다=꼴비다
 풋고추=땡개지, 땡가지, 땡꼬
 치

○ ㅎ ○

하겠느냐=허겠냐
 하겠는가=허겠니
 하라니까=허라니께
 하려느냐=허려나
 하셨습니다=허셨습니다
 하시오=허시우
 하세요=허세요
 하십니까=허랍니까
 하십니까=허실려우
 하오=허우
 하지요=허쵸
 학교=핵교
 할까요?=헐갑쇼, 허랍쇼
 하십니까=허려우
 해당화=이을구꽃
 했소이다=헛소이다
 허파=허페
 형짚=홍짚
 헛바닥=셋바닥
 해화동=해하동
 호두=호도
 호랑이=호랭이
 호미=호맹이
 혼자=혼재
 화로=화루
 화투=화토

활개=할개
 흐른다=흘른다
 흙=혹

忠淸地方

○ ㄱ ○

가=가그라
 가뭄=가물
 가시오=가시유
 가위(鋏)=가세, 가새 𪛗
 가을=갈, 갈알
 갈구리=갈구리
 감기=강기, 고뿔, 시랭이
 개구리(蛙)=개구락지, 께꼬
 락지
 거미(蜘蛛)=거무
 거짓말=그짓말, 그짓뿌리, 그
 짓뿌렁
 거의=거진
 결인(乞人)=결방이, 거렁뱅
 이
 겨우=간시니, 겐시
 계집=지지바, 지즈바
 꺾다=적다, 적졌다.
 계속=사뭇
 계신다=기신다
 고기집(정육점)=고기잔
 고양이(猫)=고냉이, 고네이
 고추=꼬치, 고치
 고추장=꼬치장
 곱다(濃)=곰는다, 골문다
 구덩이=구데이, 구덩이
 그래요=그래유, 그랫시유
 기둥(柱)=지둥
 기름=지름
 길=질
 길다(長)=질다
 김(水蒸氣)=짐
 김밥=짐밥
 김치=짬치
 까마귀=까마구, 까마기

깍쟁이=깍쟁이, 깍쟁이
꿩(雉)=꿩

○ L ○

나무=낭구
낙시=낙수
남(他人)=넌
내외술집=안방술집
냉이(齊)=나세
너, 네가=니
너희들=니덜, 니들
노루(獐)=놀개이, 놀개이
눔(耆)=눔
늪(쌀에 섞인벼)=니
눈자위=눈자우
늙다(老)=늙것다
~니종결어미=나
예:니 밥 먹었나(경상도)(거
세고 락름)
니 밥 먹었니(충청도)(완만하
고 느림)

○ C ○

달갈=달갈
닭장=달기장
당최=당체
도끼=도꾸
도둑(盜)=도적
돌맹이=돌메이
동네(里)=마실
동이(盆)=동우
된장=떼장, 떼된장
두레박=드리박
드세요=드시유
따로=따루
때때웃=곰개웃
똥다(糞)=똥다, 똥다

○ □ ○

마늘=나늘
마음=마암, 맘, 맴
머루=멀구, 멀귀

먼저(先)=만저
먼지=문지
멸짱한(生)=성한
메주=미주
머느리=메누리, 미느리
면장(面長)=민장
멸치=미리치
모기(蚊)=모구
모내기=모싱기
모이(沙料)=모시
목욕=미역
몰라요=몰라유, 모르겠시유
몸살=고팔
묘(墓)=모, 모이, 뫼
무우=무수, 무시
무녀(巫女)=무랑
무엇하나?=머하누?
머하는기여?=머해유?
무엇 하고 계십니까?=뭐 하
시유?

무엇 하십니까=뭐 해유
무엇 하려구 그러느냐?=머할
려구 그러냐?
미꾸라지=미꾸리

○ H ○

바보=시절이
방아(雄)=방에
바위(岩)=바우
바퀴(輪)=박꾸
방앗간=방간
배추=배차
버릇(習俗)=버르장머리
벌레(虫)=벌거지, 버레
벌써=하마
법(法)이 =뻬이, 그런 뻬이
아이여
법칙(法則)=법측
병어리(壓)=버버리
베개=비개, 비게, 벼개, 버거
벼락(霹)=베락
벼슬=벼실, 베슬

변소=측간
별(星)=빌
병(瓶)=빙
병아리=빙아리
병원=빙원
보리(麥)=버리
불=빨때기, 불따구
보자기(褌子)=보재기, 보제
이
복숭아=복상
부부(夫婦)=내우
부엌=정지, 벽
부처(佛)=부체
비행기=비항기
빈대떡=적, 부침개
빨리=얼릉, 얼렁, 싸게
뻬=뻬, 뻬
뿌리(根)=뿌렁거지, 뿌럭지,
뿌렁이, 뿌렁이

○ 人 ○

사마귀=사마구
사위=사우
산등성이=산등개이
삼촌=삼춘
상여(象輿)=행상
상처=상채기
상치쌈=상추, 상취쌈
석유=세가지름
선생님=선상님
성황당=서낭당, 고사태
세우다(立)=시우다
셈(算)=심
소나기=쏘내기
소풍=철럼
속이다(欺)=췌기다
솜(綿)=소케
송곳(錐)=송긔
술두정=소두방
쇠(鐵)=쇠괌, 시괌
수고했다=애썼다
수수밭=수꾸밭

숫돌=숫돌
 시다(酸味)=시겁다, 시겁다
 시렁(架)=실경
 시키다(使役)=씨기다
 십다=싱구다
 싸움=쌈
 쓰다(苦)=씨겁다, 쓰겁다

○ ○ ○

아궁이=부어강께, 각지
 아버지=아부지, 에비, 애비
 아주머니(兄嫂)=아즈미
 안경=앵경
 어른(大人)=으른, 으르신네
 어머니=어머이, 에미, 어무이
 언제(何時)=은제쫘
 여우=여수, 역시
 열쇠=열세
 얇다(薄)=알부리하다
 옥수수=옥시기
 온상(溫床)=원상
 올챙이=올창이, 올채이
 올테지(來)=올티지
 옹기(甕器)=옹구
 요강=오강
 외양간=마굿간, 오양간
 원수=웬수
 원숭이=원세이, 원상이
 읊다(詠)=읍는다
 이야기=이바구

○ ㄸ ○

자루(柄)=잘구
 잡수세요=잡쑤시요
 장대=바지랑대
 저고리(上衣)=저구리
 전부=몽땅, 죄다
 전차=즌차
 정원(庭)=뜨락
 조=스스
 조기=쫘구
 줄음(眼)=자부름, 자부럼

종이(紙)=종우
 줄이다=줄구다
 지금=시방
 진달래=창꽃
 짐승(動物)=즘승
 집에서=지비서

○ ㅈ ○

추수=바숨, 타작
 추수감사제=호무시시
 치마(裳)=초마, 초매
 칠(葛)=칠개이
 침(唾液)=츠름

○ ㅋ · ㅌ · ㅍ ○

키(箕)=치, 체
 토끼=뽕기
 편지=핀지

○ ㅎ ○

하겠느냐?=하겠나?
 하겠시유?
 하셨읍니까=하셨시우
 학교=핵교
 할아버지=할아부지, 할부지
 혀(舌)=세, 셋바닥
 형(兄)=성, 성님
 호랑이(虎)=호랭이, 호래이
 호미=호메이
 회갑(回甲)=항갑
 회충, 거위=거시
 흥내=승내
 흥년=승년
 희망=시망
 회미하게=시미하게

湖南地方

○ ㄱ ○

가(邊)=가상, 가상구, 가쟁이
 가랑비(細雨)=가는비, 이슬
 비, 가랑비

가뭇=가무름
 가위=가이, 가세, 가재, 가시
 가을(秋)=가질, 가솔
 각띠(角帶)=각뚜, 허리끈, 혈
 끈
 개구리=깨구리, 개구락지, 깨
 골태기
 개암(榛子)=깨금, 가암, 기암
 개울(小川)=개고랑, 냇갈, 깨
 골창
 거기(其處)=거그
 거미=거무
 거울(鏡)=밍경, 석경, 세명,
 체경
 거위(鵞)=거시, 거시랑
 거지=동냥치, 걸뽕이, 거럭지
 겉(表面)=겹딱, 겹테기
 겨드랑이=저드랑
 겨울(冬)=저울, 저실, 시한
 제집애(女兒)=지지배, 가시
 네, 간네, 가스나그
 결에=저태, 거테
 고기=게기, 피기
 고양이=꿩이, 게테기, 썩게
 미, 새꼬미
 고추=꼬치
 골목=고살, 골무살
 곰보=곰보딱지, 딱보, 딱구
 광주리=바구리, 강지리, 소쿠
 리
 구덩이(坑)=구덕
 구석=구석지, 구석테기
 굴(蟻)=서카, 서캐
 귀신=구신
 그림자(影)=기림제, 기림자
 기름(油)=지름
 기슭=비탈
 기와=지와, 지아, 게와
 김(海苔)=짐, 해우, 해이
 길=질
 깎두기=깎떼기, 푹딱지
 껴앉는다=포듬는다, 보듬는

다.

파리=까리, 때깎
꾸중(叱)=지천
꿀=청, 생청
끼니(食時)=끄니, 끄넉

○ L ○

나무=낭구
나물=너물, 노무세, 들새
나비=나부, 나뎡이
남(他人)=넙, 노무, 나미
냉이=나승개
넷(四)=넋
누더기=누덕지, 누테기

○ □ ○

다락=빅장, 백짱, 오시라내
다리미=다루미, 다래비대루,
대래미
단추=단초, 댕추
달래=달롱개, 달랭이
달무리=달머리, 달방석
닭=달구새끼
도라지=돌가지
돌(石)=독, 돌몽맹이
돼지=도야지
두르마기=두르메기, 둘메기
둑(堤防)=뚜럭, 두덕
딸(娘)=딸래미
땀=간꼭
똥=시둥, 합수
뚜껑=뚜병

○ □ ○

마을=마실, 모실, 모술
마음=맘, 심뽕
매=방다리, 술개
매듭=매디, 흘랑개
머루=덜구, 개포도
머리(頭)=데그딱, 대가리
머리카락=덜크락
머슴=머심, 답사리

머느리=메느리, 차부
먼저(先)=몬저, 몬제, 몬즘,
몬자
메밀=메물, 모밀
멜쌀=몹쌀
모기=모구
모래=모세, 모살, 복세
목침=몽침, 태침, 뒗침
못(池)=방죽, 둥병
무릅=물팍
무명(木綿)=미명, 명, 밍
무우=무수
미역(昆布)=믹, 먹, 각

○ H ○

바가지=조팍, 종그랭이
바위(岩)=바우, 바우멩이, 바
구
바퀴=바꾸
배추=배차
반딧불=개똥불, 소똥불
버신=보신, 보선
벌레=버럭지, 버레기
병어리=버버리
벼(稻)=나락
벼락=베락, 베랑
벼랑=베랑, 절벙
벼루=베루, 비루
별(眺)=빈, 벤
별(星)=비얼, 빌, 벨
보자기=보재기, 보통이
복숭아=복송, 복쌔
부뚜막=부수막, 부뚝
부스럼=부시럼, 곰깽이, 꿈발
부엌=정제, 정지, 부석
버=비짜락, 비시락
비녀=비네
빈대떡=누름적
뼈=뻬, 뻬다구, 뻬, 뿌리
뿌리=뿌렁구, 뿌렁지
빨리=싸게, 얼렁, 얼른

○ 人 ○

사나이=머시메, 머스마그, 멀
메
사닥다리=사드래
사마귀=사마구, 사마기
사위=사우, 사오
새끼손가락=새끼송꾸락, 정
지손꾸락, 앵두송꾸락
새우=새비
살랭이=쌀가지, 도둑세끼미
새벽=새복, 세백
서까래=석골, 집배
설합=빼다지, 빼다지
셋(三)=싯
쇠(鐵)=세, 세멩이, 세똥강
숨=소케
수제비=밀죽, 불태죽
쓸개=씨레, 실게

○ ● ○

아기=에기, 아그
아버지=아부지, 압니, 압씨
아침=아츄, 아춤, 아치게
어머니=어무니, 어무이, 엄
미, 엄씨
언청이=썰보, 얼챙이
여기=여그
여우=여시
연기=냉갈, 앵기
열쇠=췌대, 세대, 젓때
염소=땡생이, 암생이
오이(瓜)=무래, 예, 물외
오줌=오짐, 소뻬, 소피, 소매
옥수수=강냉이, 깡냉이
울챙이=복챙이, 꿀방망치
웃자락=오지람
요강=오강
요즘(近日)=요세, 요짐
우박(雹)=느리, 누레, 싸래기
눈
원숭이=잔나비, 온생이, 원생

이
이끼(苔)=잉게, 니게, 잉깁이
이삭=모개
이제(今)=인자, 인자사, 시방
앞=앞싸구, 이파리

○ ㅈ ○

자=잣대, 자쪽
자루=자리, 자두, 푸대
재채기=지치기, 재치기
저고리=돛찌, 돛방에
저기=저그
저녁=지녁
절고=도구통
젓가락=저름, 저금
정강이(脛)=성문다리, 성군
다리
조=수숙, 서숙
종이=종우
지라=지레, 마하, 마나
진딧물=쫄물
짓(容貌)=짓거리 지정머리

○ ㅊ ○

창자=창시, 창세기
천둥=천둥, 네성
추석=항가이날, 가인날
치마=초마, 초매, 치매
침=츄

○ ㅋ · ㆁ · ㆁ ○

키(箕)=치, 채, 챔이
토끼=태깁이, 태끼, 토깁이,
꽤기
트기(混血種)=티기
티끌(塵)=문지, 점부락, 지
티, 금새기
팽이=뽕도리
표(票)=폐

○ ㅎ ○

하루=하로, 하리

한다니까=한당께로, 한당께
로
할테면해보아=헐테면해봐,
헐테면해바
항아리=도자기
혀=서바닥, 세바닥
화로=하리, 화로, 화루
회오리바람(暴風)=회리바람,
소소리바람, 썩세기바람

嶺南地方

○ ㄱ ○

가깝다=가직다, 가참다
가위=가시개
갈고리=갈꾸리
갈치=칼치
감기=강기
갑자기=각중에
강아지=강생이
개암=개금
개똥벌레=반드깨비
거미=거무
거의=거진
거지(乞人)=걸버시, 걸뱅이
간장=지렁
강남콩=울콩
걸저고리=웃저고리
계신다=기신다
계집=기집, 지집
계집애=가시나, 가시나이
고기=궤기
고수머리=꼬시매
고양이=고냉이
고치다=곤치다
곰팡이=공팽이, 곰생이
꽃감=꽃감, 꽃괌
광주리=광우리, 광지리
구더기=구데기, 구덩이
구멍(穴)=구녕
구린내=꾸렁내
국수=국시

굵벵=굵베이 굵비
궁금하다=궁겹다
귀청=귀창, 귀챙이
그네=군대
그동안=그단새
그야=그사
그을음=끄시름, 끄스름
그저께=아래
그제야=그제사
그치다=근치다
기둥(柱)=지둥
기름=지름
김=짐
기와=기야, 기아
김치=짬지
까지=끄정
까치=칸치
꼬리=꼬랑댕이
꾸러미=꾸리미

○ ㄴ ○

나무(木)=남기
나쁘다=나뿌다, 파이다
나중에=냉중에
남(他人)=넌
날뛰는=해구는
내(川)=저랑
냄비=남비
냉이=나생이
너=니.
너희=느그
넓적다리=신다리
눈두렁=눈두름
농뽕이=농뽕이
누구나=뉘귀야, 누고, 누구래
누나=누부
눈시울=눈두부리
눈구경=눈구쟁
누룽지=누렁지
놀리다=놀구다

○ ㄷ ○

다라미=달비
달음박질=뒹박질
덩굴=넙굴
데릴사위=디릴사위
도대체=당체
도둑=도적
도련님=되림
도마=도매
돌=독
돌맹이=돌뱅이
동강=동가리
동그라미=동그랑이
동네=마실
두드리다=뒤뉘리다
두레박=뜨리박
뒤결=뒤안
뒤집다=뒤비다
들리다=듣기다
들어가다=드가다
들여다보다=디레다보다
따뜻할 건데=따실건데
딱지=따가리
때문에=따문에
떨으드리다=떨구다
뜸부기=뜸보기
딱꿀질=깔딱질, 깔때기

○ ㄹ ○

마게=따게
마렵다(소변이)=누렵다
마루=마리
마울=마술, 마실
마저=마자
마중=마중
마지막=마즈막
만들다=맹글다, 망글다
만큼=마큼, 만치
말리다=말기다
말씀=말썸
머루=멀구

먹다=묵다
메우다=메쿠다
메주=미주
멀치=메르치, 메루치, 메레치
모과=모계
모기=모구
모양=모앵
모이=모시
목화=미웅, 이영
무슨=무신
무엇이라하니?=머라카노?
무우=무꾸, 무시
무엇하나?=뭐하노?
목직하다=무쫄하다
묵고=묵으고
문둥이=문디
뭇라구?=머라꼬?

○ ㅂ ○

바가기=바가치, 박제기
바퀴(벌레종류)=강구
바위=방구, 바우
밥알=밥트꺼리
밥주걱=박죽, 밥주기
방망이=방맹이
뱀=배암
번데기=폰대기
법(法)=뱀
병어리=버버리
베개=벼개, 비계
벼=나락
변소(뒷간)=정랑, 통시
병(病)=뱀
불기작=궁둥작
부엌=정지
부추=정구지
비슷하다=비스프레하다
빨리=날래
빨다=빠수다
뺨=뺨따귀, 귀때기

○ ㅅ ○

사내아이=머스마, 머시마
사람=사렘
사팔뜨기=사팔이
살인=셀인
상여=쌩이
상치(植)=상추
색시=각시
석랍=쌔달이
성냥=다황
세수하다=시수하다
소고기=소괴기
속히=새키
숨=스캐
수수=수끼, 수시
수엎=쇠미
술밥=술찌꺼기
승냥=승냉, 숙냥
숫=수꿈
심다(植)=승구다
식충이=식팅이
심하게=되게
쓰레받기=씨리판

○ ㅇ ○

아가씨=엑씨
아무렵=하모
아주머니=아지매
아버지=아부지, 아배
아니꼬와서=앵이꼴아서
아니요=언지예, 어디예
아주버니=아지뻘
아궁이=아궁지
아침=아직, 아적
양말=양발
아위다=애비다
어디=어대
어린아이=얼라
어머니=어매, 어무이
어째=어쩌, 우쩌
엉덩이=궁디

없읍니다=없심니더
 여보세요=보소, 보이소
 여우=야시
 열쇠=열대
 염소=얌생이
 옥수수=강냉이, 강낭
 왜그러니=와이카노, 와그라
 노
 원숭이=원성이, 잔내비
 이리하면=이리카문
 입(주둥아리)=입주디이

○ ㄹ ○

자두=애치
 저고리=저구리
 저녁=저녁
 젓가락=거까치
 정강이=장쟁이
 정미소=방아칸
 정원=뜨락
 조금=찌깨
 줄립다=자부립다
 중매장이=중매쟁이
 좋지=조오치
 지렁이=꺼쟁이

○ ㄺ ○

차다=참다
 침=칠쟁이
 침(唾)=침

○ ㅋ ○

콩나물=콩길음
 큰아버지=만아버지
 키다리=꼭다리
 탕자=탕주
 토끼=토쟁이
 트기=티기
 티끌=티끌

○ ㅍ ○

포대기=뒤디기

판자=판때기
 ○ ㅎ ○
 할아버지=할배, 할부지, 큰아
 배
 할머니=할매, 할무이, 큰어매
 행구다=헤우다
 헛바닥=섯바닥
 형편=행펜
 호랑이=호래이, 호랭이
 호미=호메이
 혼구멍=혼짜
 호주머니=주머이
 회초리=회추리
 휘파람=회파람
 호지부지=시지부지
 힘찬=심찬

濟州地方

○ ㄱ ○

가깝다=가참다
 가격(價格)=까격, 깨격
 가락지=가락주, 가락쥐
 가래질=갈레죽-질
 가래침=게-춤, 게-침
 가루(粉)=가를, 가르, 가로
 가물치=가마치
 가운 뗏발가락=상 발가락
 가위(鋏)=가새, 가세
 가을(秋)=사슬, 가실(가슬과
 람秋風)
 가지(枝)=가장구
 가지다(持)=아지다
 가지런하다=카짱하다, 카똥
 하다
 간장=물장
 간지럽다=자굽다, 자굽다, 저
 굽다
 갈매기=갈매기, 갈매, 갈맹
 이, 갈메, 갈미
 감나무꽃=강남꽃, 감고장, 감

낭고장
 감자(馬鈴薯)=지슬, 지실
 값(價)=깎, 깎
 강강=조금큰 강아지가 갖는
 소리
 개구리=갈개비, 가개비, 개개
 비
 개미(蟻)=게염지, 게여미, 게
 에미
 가름하다=소름하다
 가웃거리다=자웃거리다
 거룻배=걸리, 걸귀
 거뭇다=거망하다
 거울(鏡)=썩경
 거의=거진, 거자, 건춤
 거지(乞人)=걸바시
 거짓말=그짓말=기짓말
 거품(泡沫)=부글레기, 벌굴
 레기, 버글레기, 부끌레기, 함
 불레기, 굼불레기
 건더기=건지
 걸핏하면=걸핏하민
 검은소=검은췌
 검은엿=생 엿
 겁장이=겁재, 겁쉬
 게(蟹)=강이, 기 쟁이, 쟁이
 겨드랑이=자깁이, 저게이, 자
 쟁이, 자쟁이, 자드랑이, 저드
 쟁이, 저드랑이
 겨우=제우, 제위
 겨우내=저을내낭, 저슬내낭
 계집(女)=제집, 지집, 기집
 고개(峴)=동산
 고기(魚·肉)=케기
 고드름=동곳
 고양이(猫)=고녕이, 고녕이
 곰팡이=곰생이, 곰생이
 구멍(究)=고망, 고냥, 구벽
 그네=굴메, 줄레, 굼베, 궁글
 그러고, 저러고=게고, 제고
 그렇게=기영
 그림자=굴메

금잔디=테역단풍
기와집=지에집, 지세집
길이(長)=지럭시, 지러기
까마귀(烏)=가나귀, 아메기
까치(鵲)=간치, 잔치
까다=가끄다
꽃(花)=고장, 곶

○ L ○

나무(木)=낭, 남, 나모
나무잎=낭쌔, 낭잎, 낭쌔
남편=소나이, 뉘편
낫(鎌)=호미
내일(來日)=닐, 넬
냉수(冷水)=냉수
노래(歌)=놀래
농사(農事)=용시, 농시
누구(誰)=누게, 누기
눈병(眼病)=눈병
눈초리=눈각
늙으신네=늙신네, 늙신이

○ C ○

다듬잇돌=돌안반
다르다(異)=타나다, 따나다,
따다
다음달(次月)=버금달
달갈=독새끼
대청=삼방, 상방
더러운 옷=버문옷
도깨비=도체비
도마=돔베
독=돌
동북풍(東北風)=높셋바람
돼지(豚)=돏, 뉘야지
두꺼비=두테비, 두체비
두더지=지다리, 오르
두부(豆腐)=돔비
뒷덜미=뒷야게
들(野)=드르
등잔불=각지불
멜나무=지들방

○ □ ○

마개=다게
마늘=콍대산이, 승게마늘
막넛누이=죽은 누의
막대기=막당이, 막탱이
많다=하다, 만하다
망아지=망생이, 망생이
메뚜기=말축, 만축
메밀 수제비=모말차비기
멜치=멜
모래(砂)=몰래, 모살
무명(木)=미녕, 미명
무우=남뻬
무지개=황고지, 항고지, 상고
지, 황구지
문둥이=용다리
물결(波)=절
미나리=미내기, 미네기, 미나
기

○ H ○

바가지=박세기
바늘(針)=바놓
바다=바당
바다고기=바릇게기, 바르궤
기
바람=바름
바퀴(輪)=도로기
병어리=반버리
방망이=마깨
배추=베치
벌레=버랭이 베랭이
범나무=심방나비
병어리=버버리
벼(稻)=나룩
벼이삭=나룩고고리
병아리=빙애기, 빙아리
불기=잠지
뿌리(根)=불희, 뿌랭이
부엌=정지
부채(子)=푼채

북풍(北風)=하니바람
비녀=빈네, 빈혜
비둘기, 비둘기
뼈(骨)=짱

○ 人 ○

사금파리=사그마치, 사그떡
치
사나이(男子)=소나의, 소나
이
사납다=싸무렵다
사냥꾼=사농군
사로잡다=산체심다
사립문=살체기문
사타구니=강알트멍
삭정이=삭다리
산기슭=산발
산돼지=산툏
살무사(蠃)=물페기
상치=부루
새(鳥)=생이
샘(泉)=세미
서까래(椽)=서리
설것이=서름질
성냥=팍, 화팍
세거리(三街) 세커림, 세커
리, 시커리
소(牛)=췌
소댕=소디아
소라=구쟁이, 구쟁이
술망울=술똥, 소낭망생이
송아지=송애기
송이(松茸)=소낭버섯
쇠내=소내
수말(雄馬)=웅매
수수께끼=예슈제길락, 질롤
락
수의(壽衣)=호상옷
수제비=자바기
순두부=물돔비
숨바꼭질=곱을내기, 곱음재
기

승능=누뎡이물
시동생=씨동승
시아버지=씨아지방
시어머니=씨어멍
식칼(食刀)=상키칼, 들편칼
싸우다(戰)=쌈다
쌀알(粒)=쌈방울, 쌀방울
쌈둥이=갈오기, 갈누기, 갈에기

○ ○ ○

아래(下)=알, 아래
아버지=아방
아우=아시
아주까리=피만지
얇은뎡이=아진배기
어머니=어멍
여우(狐)=여히, 여의, 여호
외뎡아들=다습아들
이=늑
이랑=고지

○ ㄸ ○

자갈=작지
자갈밭=작지왓, 작뎡왓
자루(袋)=찰리
자벌레=자채
자질구레하다=잘마롱하다
작다(小)=족다
잔디=테역, 잔뒤역
잠자리=밥주리, 밤무늬, 물자리, 물젤
장난감=방뒤, 방둥이
장독대=장항급
장작개비=지들낭가지
채채기=헛쟁이, 헛쟁이, 헛쟁이
저녁=저낙, 저녁
저렇게=저영
정액(精液)=섹
젓통이=젓통, 잣통, 젓텅어리
종달새=비죽생이, 비죽새, 종

애, 종애
주름살=살타귀, 살타귀
주머니=주멍기
주전자=주전지
지난여름=넌은 여름
짚다(杖)=주끄다, 지꾸다, 주치다
짚신(草鞋)=짚신, 짚신, 초신
찌꺼이=주생이, 주시

○ ㅈ ○

찬물(冷水)=언물, 실려운물
쳐녀=비바리
친할머니=성할망
친할아버지=성할으방
침(唾)=춤, 꿈
침뎡굴=침줄, 꾹줄

○ ㅋ ○

켜다=싸다(※불을붙이다)
코셋다=코쓸다
콩나물=콩주름, 콩지름
키(身長)=지레
키다리=걱대쉬, 헛대시
키질=폼질, 푸는체질
큰아들=큰소나이

○ ㅌ ○

태(胎)=텃, 붓, 아깃보, 아깃방석
털(毛)=꺼럭
토끼=튀끼, 튀께
통치마=통치메
틀(機械)=클
툼(기회)=트멍
티끌=문독, 티끌, 똥끌
티눈=퀴눈이, 퀘눈이

○ ㅍ ○

파(薺)=패마농, 마농
파초=반초, 반치, 반추
패다=케다

퍼렇다=퍼렇하다
품앗이하다=수눌다
풍뎡이=두이에기, 두메기
팔매질=데길락, 네길락
피리(笛)=주레

○ ㅎ ○

하룻저녁=하를저녁
하품=하위염, 하염우
한낮(正午)=방낮, 해왕낮
한눈팔다=세경바래다
할아버지(祖父)=할으방
할머니(祖母)=할땅
행주=상뎡
허수아비=허제비
허파=복부기, 부에
허풍선이=건풍다리, 허풍다리
혀끝(舌端)=세곳
형제=성제
호미=갈쟁이
호주머니=계와, 계화
황소=황쇄
휘파람=쇄바름
흑산호=무낭, 무의낭, 무히낭
흔겨보다=실겨보다
흔떡=곤떡
힌밥=곤밥
흰죽=곤죽

우리 故場의 民俗

1992年 10月 日 印刷

1992年 10月 日 發行

1996年 9月 日 再版

發行處：社團 大川文化院

發行人：院長 尹 源 錫

印刷：명문인쇄사

☎ 31-2850-935-2850

〈비매품〉

이 冊子는 道·市 費의 支援금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